

한반도 평화체제의 형성과  
새로운 북중·한중 관계의 모색

2009.12.11. 금 | 국회의원 회관 128호 회의실

주최 민주민주정책연구원 |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 새세상연구소 | 코리아연구원 | 현대사연구소

후원 월간 《민족21》 |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 동북아평화학술포럼 한국회의

## 행 사 일 정

---

09:30 접수

10:00 개회사 | **조영건**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이사장

10:05 환영사 | **김효석**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

10:10 초청강연 |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북핵문제 해법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10:35 동북아평화학술포럼 제안 연설 | **Li Xiguang** 청화대 국제언론대학원장

---

### 10:50-12:50 **SESSION1** | 북핵 해법과 '중국역할론'

사 회 |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발제 1 | **Kong Qingdong** 북경대 교수

**정영철** 서강대 교수

토론 1 | **Chung Kiyul** 청화대 초빙교수

**이찬우** 일본 사사가외평화재단 자문역

**김근식** 경남대 교수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

---

13:00-14:30 점심식사, Coffee Break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

---

### 14:40-16:40 **SESSION 2** | 미래지향적인 한중 · 북중관계의 모색

사 회 | **박순성** 동국대 교수 (코리아연구원)

발제 1 | **Xiong Lei** 청화대 초빙교수, 신화통신 편집인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토론 1 | **Yun Shan** 신화통신 자매 영문주간지 편집인

**주장환** 한신대 교수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정봉주**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

16:50 폐회

17:00-18:00 국회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 면담

18:30 환영 만찬

---





# 북핵문제 해법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공동대표

동북아평화학술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포럼이 소기의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미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변화를 내건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부시 정부의 적대시정책과는 다른 정책과 접근방법을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한반도는 반드시 비핵화 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북핵문제는 벌써 20년이 되어오지만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정책과 접근방법을 경험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禁忌視되어온 북미직접협상을 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합의를 통해 핵프로그램 폐기와 관계정상화를 맞바꾸기로 합의했습니다. 클린턴 행정부가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재를 완화하며 관계개선을 위한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할 때 북핵문제는 해결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미북정상회담을 위해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방문도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북한정권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惡의 輔'으로 지정하고 군사적 先制攻擊으로 交替시켜야할 대상으로 선언했습니다. 적대시정책에 기초하여 군사적인 안보위협, 경제적인 봉쇄와 제재, 외교적인 압박과 고립화를 추진하면서 사태는 악화되어 갔습니다. '先核廢棄'를 강요하며 壓迫과 制裁를 가하면 가할수록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핵시설의 稼動(제1단계), 핵물질의 생산 보유(제2단계), 핵폭탄의 제조와 핵실험(제3단계)을 강행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6자회담은 한반도문제의 해결방향을 제시한 훌륭한 <9.19공동성명>을 산출했습니다. 북핵문제를

한미일 3국의 대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안보 협력문제와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낸 한국과 중국의 긴밀한 협조는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시의 미국은 관계정상화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북한도 핵억제력 확보의지를 굽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6자회담은 상호불신을 증폭시키면서 부정적인 작용-반작용의 악순환을 반복하였습니다.

늦었지만 현 단계에서 지지하지 못하면 핵폭탄을 소형화·경량화하여 미사일에 장착하는 핵무기화(제4단계)와 핵무기를 생산 배치하는 핵무장화(제5단계)까지 초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해결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화의 유혹에서 헤어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지지하기 위한 군사적 강제조치 주장이 힘을 얻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국가안보와 체제보존에 위협을 느끼고, 핵무기의 필요성에 집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핵무기를 갖지 않고도 훨씬 안전해질 수 있으며 번영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난 20년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북핵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관계를 정상화하여 평화가 보장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북 제네바합의와 6자회담 9.19공동성명이 모두 북한의 핵폐기와 미북관계 정상화를 맞바꾸기로 합의한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해결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미국과 북한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도울 수는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변화를 내건 오바마 대통령은 60년이 넘는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근본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선핵폐기'의 강요가 아니라 핵폐기를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교관계 수립, 평화체제 확립, 경제개발 지원 등 근본적인 문제들과 함께 핵폐기와 장거리 미사일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북핵문제는 미북 양자협상을 통해 해결을 주도하되 6자회담의 틀은 유지해야 합니다.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북핵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 질서구축이라는 틀 속에서 접근해야 해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이러니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동북아 평화 안보 협력체제의 모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비핵화 실현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과감하게 핵 폐기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와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민주국가에서의 정권교체가 대북정책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전향적인 정부와 더 많은 진전을 이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2012년까지는 결정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년의 경험을 통해 북핵문제가 한반도 냉전구조에 뿌리내린 문제요,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북핵문제는 남북간은 물론이러니와 미북간의 불신과 적대관계, 전쟁을 끝내지 못한 채 지속되는 정전상태, 교전 쌍방의 군사적 대치와 군비경쟁, 더 나가서는 동북아의 냉전체제 등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6자는 9.19공동성명을 통해 정전상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협의하기 위한 관련당사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남북한의 4자회담을 통해 우선 전쟁종식에 합의하고, 평화를 담보할 실질적 조치들이 망라된 평화체제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적 조치부터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분단을 고착시키는 평화체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트남의 예에서 보듯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단 상태에서는 정통성을 독점하기 위한 경쟁이 불가피하고, 또한 군비경쟁에서 헤어나기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극적 평화’는 참된 평화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직접당사자인 남과 북이 상호의존도를 提高하고,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공동체를 형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불가침과 평화를 담보할 軍備統制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비감축을 실현하여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적극적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공동체 형성 발전과 군비통제의 병행 추진은 교호작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과 북은 이미 2000년 ‘6.15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대로 ‘남북연합’을 제도화하여 서로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의 과정을 공동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평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동북아의 평화 없이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될 수 없으며, 한반도의 평화 없이 동북아의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동북아 안보 협력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북핵문제를 다루어온 6자회담을 모체로 발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구를 통해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며, 잠재적 갈등 요인과 군사적 긴장요인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군비증강을 제한하는 등 군비통제를 실현하여 공동안보를 구현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군사적 안보만이 아니라 경제·통상·환경·테러·국제범죄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평화 안보 협력체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새 정부의 출범으로 지역협력기구 창설문제 협의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과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포괄적 지역협력공동체를 형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도 보장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12.11



## 학자 간 교류와 대화로 평화의 종자를 뿌리자

리시광 칭화대 국제언론대학원장

저는 베이징의 칭화(淸華)대학에서 왔습니다. 칭화대와 한국의 교류는 아주 긴밀한데, 한국의 고(故) 노무현 대통령과 고 김대중 대통령이 일찍이 연이어 칭화를 방문하여 강연을 했었습니다. 칭화대에는 한국에서 온 많은 유학생이 있고, 동시에 칭화대와 한국의 많은 대학도 아주 긴밀한 교류와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 한국의 고 김대중 대통령은 칭화대학에서 강연 중 아주 겸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서기 7세기 한반도 통일 이후부터 한중 양국은 줄곧 평화공존의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도 줄곧 긴밀한 교류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유교, 불교 등 정신적 재부가 우리 국민의 지식과 신앙세계를 풍부히 했습니다.”

한편 고 노무현 대통령은 칭화대 강연에서 “우리 양국은 수천 년의 선린 교류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국 국민은 서로 자연스러운 친근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많은 한국인들은 중한양국 인민형제들의 왕래 중에,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에게 귀중한 역사문화 유산을 남긴 걸 잘 모르실 겁니다.

칭화대학에서 저는 매주 하루의 시간을 내어, 학생 또는 친구들을 데리고 삼림이 무성한 베이징의 시산(西山)에 갑니다. 그곳 시산에는 당대에 기원을 둔 디창쓰(地藏寺)라는 한 절이 있습니다. 한 봉의 향을 태운 후, 저희들은 절의 찻집에서 보이차를 끓여, 차의 맛을 음미하면서 고금(古今)을 논하는데, 중한간의 순치상의(脣齒相依)와 같은 우정을 회상합니다.

디창(地藏)보살은 중국불교에서 전해지는 4대 보살 중의 한 명입니다(나머지 세 사람은 원슈(文殊), 푸센(普賢), 관잉(觀音)입니다). 송나라의 《고승전(高僧傳)》에 따르면, 디창보살이 내려와 신라왕족인 김교각(金喬覺)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출가 후 중국의 지우화산(九華山)에 와서 여러 해 수행을 했습니다. 99살 때 원적(圓寂)한 후, 그의 제자와 중국의 불교도들은 모두 그를 디창보살의 화신으로 여기어, 그가 진디창(金地藏)이 되는 것을 존중하였으며, 선광링(神光嶺)에 탑을 만들어 모셨습니다. 이로부터 이 신라인은 중국불교의 4대 보살중의 하나인 디창보살이 되었습니다.

칭화대학에서 매년 가을학기가 시작될 때, 저는 항상 칭화대학의 국방생을 데리고 한 한국 청년이 만든 노래인 《팔로군행진곡(八路軍行進曲)》을 부르며 새로운 학년의 시작을 맞이합니다. 노래를 만든 이는 한국의 전라남도에서 태어난 위대한 음악가 정율성(鄭律成)입니다. 1937년 19살의 정율성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옌안(延安)에 왔습니다. 빠오타산(寶塔山) 산비탈에 서서 전우들이 석양에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며 항일구호를 연습하여, 옌안성 안팎에서 이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옌안송(延安頌)》은 이렇게 그의 가슴속에서 성숙되어 갔습니다. 후에 마오쩌둥(毛澤東)이 참가한 한 만찬에서 정율성은 직접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 옌안, 너는 엄숙하고 웅대한 고도(古城), 뜨거운 피가 너의 가슴속에서 솟구치는구나.”

당시 많은 혁명가들이 정율성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려움과 위험을 돌파했고, 옌안으로 달려가 중국혁명의 큰 흐름에 뛰어들었습니다. 정율성의 부인으로 나중에 중국 최초의 여자 대사가 된 멩쉐송(丁雪松)은 이렇게 지난 일을 회상합니다. “옌안의 한 만찬상에서 저는 정율성을 봤습니다. 정율성은 당시 항일군사정치대학의 음악 지도자였고, 저는 항일군사정치대학의 여대생부대 대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자주 우리부대에 와서 노래를 가르치곤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친분을 맺게 됐고, 이후 우리들은 자주 함께 한가롭게 거닐며, 이야기하고, 말 못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한 한국 청년과 한 중국 아가씨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옌안에서 정율성은 더욱 유명한 노래 《팔로군행진곡》을 썼고, 후에 《중국인민해방군행진곡(中國人民解放行進曲)》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항일전쟁부터 해방전쟁까지 줄곧, 수천 수만의 병사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용감하게 적진을 향해 나아갔고, 신 중국의 여명을 맞이했습니다. 1949년 신 중국 탄생 시, 엄숙하고 웅대한 개국 행사에서 이 노래가 톈안먼(天安門)광장 상공에 울려 퍼졌고, 1988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중국인민해방군군가(中國人民解放軍軍歌)》로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1976년 12월 7일 그가 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한국의 후손 음악가는 중국인민과 한국인민을 위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300여 곡의 노래를 남겼습니다. 2009년 가을 신 중국 60주년 경축행사 전야에서 중국의 1억이 넘는 네티즌들이 인터넷 투표를 통해 정율성을 신 중국을 위해서 위대한 공헌을 한 100명의 훌륭한 인물로 추천했습니다.

칭화대학의 매년 개학 제1과에서 저는 항상 신문학과의 학생들에게 까오셴즈(高仙芝) 장군의 이야기를 말해 줍니다. 오늘날의 조선인과 한국인은 고려에서 온 당나라 대장 까오셴즈에 대해서 매우 숭배하고, 그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지도자의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까오장군은 천군만마를 이끌고 파미르고원을 달려, 지금의 카슈미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과 중앙아시아에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비록 그가 통솔한 2만의 중국 대군이 타라스에서 전멸했지만, 타라스전투는 중국의 제지술과 나침반이 사마르칸트(Samarkand : 우즈베키스탄 동부에 있는 도시)에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수세기 후, 제지술과 나침반은 아랍 세계를 통해 유럽에 전해졌고, 최종적으로는 유럽의 문화부흥과 유럽인의 항해대탐험을 불러왔습니다.

중국 근현대사를 돌아보면 중화민족의 흥망성쇠는 더욱 조선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대 중국을 거의 망국멸족에 이르게 한 갑오전쟁의 발발입니다.

오늘날 점점 더 위협하게 분열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 하에서, 중국과 조선(북)은 이런 고위층간의 상호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현임 지도자들은 양 이웃나라의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며, 이런 상호신뢰를 건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일생 동안 중국을 공개 및 비밀 방문한 횟수는 40여 차례 가까이 됩니다. 1971년 7월 키신저가 비밀리



에 중국을 방문하여,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와 회담한 후 닉슨 대통령이 다음 해에 중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 때 몇몇 국가로 하여금 우려를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우 총리는 당일 정오에 비밀리에 평양으로 가서 김일성 주석과 만나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저우 총리가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에서, 세계 정세변화와 중미관계의 전략적 의의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내놓자, 김일성 주석은 이를 경청한 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우 총리는 그 날 자정에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머지않아, 김일성 주석은 특사를 베이징으로 보내 중국 측에게 조선은 중국의 행동을 완전히 이해하고 동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은 “사회주의국가 마오쩌둥의 위대함이 자본주의 국가 미국의 닉슨이 백기를 들고 중국으로 오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1972년 2월 닉슨이 중국을 방문한 후, 저우 총리는 다시 평양으로 가서, 김일성 주석에게 방문 상황을 통보했습니다.

지구화 된 오늘날에 중한 양국의 지도자는 많은 주요 국제문제상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 여름 고 김대중 대통령은 칭화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21세기는 이미 공업사회의 민족주의 시대가 아니며, 또한 다짜고짜 마음대로 침략을 일으킬 수 있는 제국주의 시대도 아닙니다. 교통, 통신 특히 정보 매체의 급속한 발전은 세계가 하나의 큰 가정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21세기에는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모두 균형된 지구화 구조 속에서 공존공영 해야 합니다. 오늘날 소수의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지구화는 반드시 다수의 빈곤한 민중들의 강렬한 저항을 받을 것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빈발하고 있는 테러는 불공정한 빈부격차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2007년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胡錦濤)는 중국공산당 17대작의 정치보고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크고 작고, 강하고 약하고, 부유하고 가난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평등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합니다. 우리는 각국 인민이 자주적으로 발전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존중하며,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여름 칭화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저는 오래 보존하고 있는 한 개의 씨앗이 있는데, 그것은 21세기 동북아의 희망의 씨앗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에 대한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동북아지역은 대립과 충돌의 역사를 반복해왔습니다. 동북아는 대륙과 해양 세력의 충돌, 동서양의 충돌, 동서진영의 이념대립 등의 원인 때문에, 상호 의심과 심지어 반목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불러온 경계심은 아직 치유되지 않은 하나의 상처처럼 지금까지 이 지역의 인민들 마음 속에 남아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역사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침략과 통치가 초래한 고통의 역사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립과 충돌의 슬픔과 아픔을 치유해야 하고, 협력과 대동의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서로 경계하고 의심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들은 세계발전의 뒤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우리는 자기 나라의 이익과, 개인의 울타리를 넘어 대동의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마음의 벽을 허물고, 그 대신에 화해와 협력의 씨앗, 평화와 번영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북아지역 각국 인민을 하나로 단단히 연결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다행히 한중 양국을 선두로 한 동북아 각국이 함께 갖고 있는 가치관과 유교전통으로부터 나온 인본위사상(人本位思想), 상생과 화목은 귀중한 것(和爲貴), 대동사상 등 이러한 세계관 모두 동북아 인민이 공유하는 귀중한 정신유산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열리는 이 중한학자 양자대화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유훈에 따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창건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학술종자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회의를 시작으로 우리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동북아 6개국 학자 평화대화(동북아평화학술포럼)의 거행 형식과 목표에서 하나된 의견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번 서울회의는 중국과 한국의 학자만 참가합니다. 우리는 내년 봄 베이징에서 중·한·조(북) 3개국 학자 평화대회를 열 계획이고, 내년 여름에는 평양에서 제2차 중·한·조(북)학자 평화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년의 두 차례 회의에서 우리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학자 분들뿐만 아니라, 평양의 학자들도 참가하도록 초청할 것입니다.

만약 세 차례의 회의가 성공을 거둔다면, 우리는 내년 여름이나 가을에 베이징에서 정식으로 1차 동북아 6개국 학자 평화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북아 학자 평화대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학자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조(북)핵문제를 포함한 조선반도의 정세에 대해 토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중국, 한국, 조선(북), 러시아, 일본, 미국의 6개국 학자들이 모두 참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제창한 이 지역적(地區性) 학자 대화는 적극성과 우호, 단결의 정신을 바탕으로 구역적(區域性) 대화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적 학술대화 중에 모든 대회 참가자들은 모두 평등한 대화상대이며, 궁극적 목표는 한국과 조선(북)의 화해·협력과 관계정상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발 더 나아가서 중국이 조선(한)반도 문제에서 조선·한국·일본·러시아·미국과 협력 및 이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동북아 6개국 학자 평화대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공개와 공유를 원칙으로 하고, 어떠한 비밀스런 의사일정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이 지역의 아름다운 미래와 조화로운 발전을 찾는 것입니다. 이 대화는 6개국 학계가 조선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있어 만리장정의 제 1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공동의 의사일정이 필요하고, 멀리 내다보는 시야가 필요하며, 세계와 이 지역 인류 공동의 이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년(2010년) 제1차 동북아 6개국 학자대회에 우리는 6개국가의 저명학자를 초청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중동의 학자들이 옵서버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하도록 초청하여, 전 세계 모두가 동북아 학자들의 미래에 대한 동경과 사고 및 관심에 대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동북아 6개국 학자대회의 구체적인 목표는 이 6개국가의 정치정책과 주류 미디어의 보도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6개국가의 주류미디어가 이 지역의 발전과 진실된 모습을 객관·정확·확실·명확·사실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고, 6개국의 정부가 완전하고, 명확한 정보에 의거 정확한 판단과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선(한국)전쟁이 끝난 후부터 동북아지역은 오랫동안 분열과 분화, 상호불신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불신의 상태가 최근 몇 년 동안 위험한 상황까지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 동북아지역 각 국의 단결과 신뢰를 실현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희망에 찬 목소리로 칭화대 학생들에게 “동북아는 생산과 투자, 금융과 무역, 정보와 기술 일체가 모이는 세계 번영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동북아시아의 청사진입니다.

저는 다음의 동북아 학자대화 회의가 베이징을 출발, 평양을 경유해 종착역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서 열리길 희망합니다.



# 开展学者对话 播撒和平种子

李希光

我来自北京的清华大学。清华与韩国的交流很紧密，韩国已故总统卢武铉和金大中曾先后访问清华并发表演讲。清华有很多来自韩国的留学生，同时清华与韩国很多大学也有着非常密切的交流与合作关系。2004年夏天，韩国已故总统金大中在清华大学演讲中十分谦虚地说：自从公元7世纪韩半岛统一以来，韩中两国一直保持着和平共处的关系。不仅如此，在政治、经济、文化等方面也一直保持着密切的交流。我们从中国引进的儒教、佛教等精神财富丰富了我国国民的知识和信仰世界。卢武铉总统在清华演讲说，我们两国具有数千年的睦邻交流史。两国人民互有天然的亲近感。但是，也许很多韩国人不知道，在中韩两国人民兄弟般的交往中，韩国人民给中国人民同样留下了珍贵的历史文化遗产。

在清华大学，每个星期，我要抽出一天的时间，带着我的学生，或者是朋友，走进森林茂密的北京西山，在那里有一处源于唐代的幽静寺庙——地藏寺。烧完一柱香后，我们在寺庙的茶馆里沏上一壶普洱，一边品茶，一边说古道今，回味着中韩之间唇齿相依的情谊。地藏菩萨，为中国佛教所传的四大菩萨之一（其他三位是文殊、普贤、观音）。据宋《高僧传》卷20等载，地藏菩萨降诞为新罗国王族，姓金名乔觉。他出家后来到中国九华山潜修多年。99岁时圆寂后，其弟子和中国的佛教徒都把他看成是地藏

菩萨应世，尊其为金地藏，并在神光岭建塔供奉。从此这位新罗人成了中国佛教的四大菩萨之一的地藏菩萨。

在清华大学，每年秋季学期开学，我总是要带着清华大学的国防生唱一首韩国青年谱写的歌曲《八路军进行曲》迎接新的学年的开始。歌曲的作者是出生在全罗南道德的伟大音乐家郑律成。1937年，19岁的郑律成满腔热情来到延安，站在宝塔山山坡上，看到战友们沐浴着夕阳的余辉，操练抗日口号，延安城内外歌声四起。《延安颂》就这样在他胸中酝酿成熟。后来在毛泽东参加的一个晚会上，郑律成亲自演唱了这首歌。“啊！延安，你这庄严雄伟的古城，热血在你胸中奔腾”。当时，很多革命者正是唱着郑律成这支歌，冲破艰险，奔向延安，投入中国革命的洪流。郑律成的妻子丁雪松、后来的中国首位女大使这样回首往事：“在延安的一个晚会上，我见到了郑律成。郑律成当时是抗大的音乐指导，我任抗大女生队队长，他常到我们队来教唱歌。我们就这样结识了，以后，我们常在一起漫步、聊天，无话不说。”。一个韩国青年和一个中国姑娘就这样相爱了。在延安，郑律成写了更为著名的乐曲《八路军进行曲》后来改名为《中国人民解放军进行曲》。从抗日战争一直到解放战争，成千上万的战士唱着这支歌冲锋陷阵一往无前，迎来了新中国的黎明。1949年新中国成立时，在隆重的开国大典上，这支名曲回响在天安门广场上空。1988年被邓小平命令为《中国人民解放军军歌》。到1976年12月7日他病逝的时候，这位韩国裔音乐家为中国人民和韩国人民留下了300多首脍炙人口的歌曲。2009年秋天，在新中国60周年的庆典前夕，中国上亿网民，通过网络投票，推选郑律成为新中国做出伟大贡献的100名杰出人物。

在清华大学，每年的开学第一课，我总要跟新闻学院的学生讲高仙芝将军的故事。今天的朝鲜人和韩国人对于这位来自高丽的唐朝大将高仙芝十分推崇，认为他是世界历史上最伟大的军事将领之一。高将军率领中国的千军万马驰骋在帕米尔高原，在今天的克什米尔、阿富汗、巴基斯坦和中亚奋勇作战。虽然他率领的2万中国大军在塔拉斯全军覆没，但是，塔拉斯之战导致中国的造纸术和指南针传到了撒马尔罕。几个世纪后，造纸术和指南针又经过阿拉伯世界传到欧洲，最终带来了欧洲的文艺复兴和欧洲人的航海大探险。

回顾中国的近现代历史，中华民族的兴衰更与朝鲜有关。比如导致近代中国近乎亡国灭种大祸的甲午战争。在今天越来越危险和分裂的东北亚局势下，中国和朝鲜需要恢复这种高层互信。中国和韩国现任领导人更需要从两个邻邦的大局出发，建立这样一种互信。

金日成一生公开的和秘密访问中国近40次。1971年7月，基辛格秘密访华，与周总理会谈，之后宣布尼克松总统将于次年访华，震惊了全世界，也使一些国家产生了疑虑。于是，周总理于当天中午就秘

密前往平壤，会见金日成通报情况。周总理与金日成会谈，深入分析世界形势变化和中美双边关系的战略意义，金日成听后表示十分重要，朝鲜党中央要专门开会讨论。周总理于当天午夜飞回北京。此后不久，金日成派特使来北京向中方通报，朝鲜完全理解并同意中方的做法。金日成说：社会主义国家毛泽东的伟大，令资本主义国家的美国尼克松举白旗到中国。1972年2月尼克松访华后，周总理再次前往平壤，向金日成主席通报了访问的情况。

在全球化的今天，中韩两国领导人在许多重大国际问题上有很多共识。2004年夏天，已故总统金大中在清华大学对学生们说，“请各位切记，21世纪既不是工业社会的民族主义时代，也不是一个可以不由分说肆意发动侵略的帝国主义时代。21世纪是世界进入一体化的地球村时代。交通，通讯尤其是信息媒体的飞速发展使世界成为一个大家庭。因此，在21世纪不论是发达国家还是发展中国家都应在均衡的全球化框架内共存共荣。如今只关注少数人利益的全球化，必然会受到多数贫穷人民的强烈抵制。在世界各地频发的恐怖活动，其根源在于不公正的贫富差距。”

2007年，中国国家主席胡锦涛在中共17大作的政治报告中说，“我们坚持国家不分大小、强弱、贫富一律平等，尊重各国人民自主选择发展道路的权利，不干涉别国内部事务，不把自己的意志强加于人。”，“中国反对各种形式的霸权主义和强权政治”。

卢武铉总统在2003年夏天清华大学对学生们说，我有一颗保存已久的种子，它是对21世纪东北亚的希望种子，是对东北亚“和平与繁荣时代”的展望。在过去的岁月中，东北亚地区重复着对立和矛盾的历史。东北亚因为对大陆和海洋的势力冲突、东西方矛盾、东西阵营的理念对立等原因，长期摆脱不了相互怀疑甚至反目的局面。这些因素导致的戒备心像一处未愈的伤疤至今都留在这一地区人民的心中。现在，需要改变这种东北亚地区的历史。我们不能重复侵略和统治所造成的痛苦的历史。我们应该治愈对立和冲突的伤痛，走向合作和大同的新秩序。在我们相互戒备和怀疑的过程中，我们被落在了世界发展的后面。我们应该越过本国利益、小我的篱笆，谱写大同的崭新历史。为此，首要的是我们应该拆除心灵之墙，取而代之要播下和解与合作的种子、和平与繁荣的种子。我们需要的是，能够把东北亚地区各国人民紧紧联系在一起的一种力量。庆幸的是，以韩中两国为首的东北亚各国共同拥有传统的价值观和源自儒家传统的人本位思想，相生与“和为贵”，大同思想，这些世界观都是东北亚人民所共有的珍贵的精神遗产。

今天在此间召开的这次中韩学者双边对话，是我们遵循卢武铉总统的遗训，为创建和平繁荣的东北亚时代播撒的第一粒学术种子。

通过今天一天的会议，我们要为未来定期的“东北亚六国学者和平对话”的举办形式、目标达成一致，明年夏天在平壤举行第二届中朝韩学者和平对话。在明年的两次会议上，我们不仅邀请出席这次会议的各位学者参加，而且还将邀请来自平壤的学者参加。



如果这三次会议能获得成功，我们将在明年夏天或秋天正式在北京举行首届东北亚六国学者和平对话。我们希望通过东北亚学者和平对话，能把来自这个地区学者聚集在一块，讨论朝鲜半岛的局势，包括朝核问题。我们希望中国，韩国，朝鲜，俄罗斯，日本，美国的六方有好学者都能来参加。

我们发起的这个地区性学者对话本着积极，友好，团结的精神，开展区域性对话。在这个地区性的学术对话中，所有的与会者都是平等的对话伙伴，目标是促进朝鲜与韩国的和解，合作和关系正常化。同时，进一步加强中国在朝鲜半岛问题上与朝鲜，韩国，日本，俄罗斯和美国的合作和理解。

东北亚六方学者和平对话的议程都是公开和共享的，没有任何隐藏的议程。我们的目标就是寻求本地区的美好未来，和谐发展。这个对话仅仅六方学界在解决朝鲜问题上的万里长征的第一步。我们需要共同的议程，需要远见，需要为了实现世界和本地区的人类共同的梦想而努力奋斗。

在明年的第一次东北亚六方学者对话中，我们不仅要邀请来自这六个国家的知名学者，同时还邀请来自非洲，拉丁美洲和中东的学者作为观察员参加会议，让全世界都能分享东北亚学者未来的憧憬、思考 and 关注。

东北亚学者六方对话的具体目标是影响这六个国家的政府政策和主流媒体的新闻议程。争取促进这六个国家的主流媒体能够客观，正确，准确，透彻，知情地报道该地区的发展和真实情况，确保这六个国家的政府能够依据完整，透彻的信息作出正确的判断和决策。

自从朝鲜战争结束后，东北亚地区长期处于分裂、分化、相互不信任的状态。这种不信任的状态最近几年来已经发展到了危险的地步。我们希望通过这个对话，实现东北亚地区各国的团结，互信。卢武铉曾经充满憧憬地对清华学生说，东北亚将成为集生产与投资，金融与贸易、信息与技术一体的世界“繁荣中心”。到那时，北京的学生可以买张火车票就可以经平壤，汉城和釜山到东京旅行。这是一幅和平而富饶的“东北亚时代”蓝图。

我希望，我们下一次的东北亚学者对话会，将从北京启程，途径平壤，最后抵达汉城的火车上召开。





SESSION 1

## 북핵 해법과 ‘중국역할론’

사회 |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발제1 | **Kong Qingdong** 북경대 교수  
**정영철** 서강대 교수

토론1 | **Chung Kiyul** 청화대 초빙교수  
**이찬우** 일본 사사가와평화재단 어드바이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





# 조(북)핵문제와 중국의 역할

공칭동 북경대 교수

## 세계의 주류 화두는 평화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에서 연구하는 입장에서 조(북)핵문제와 중국의 역할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북)이 핵무기를 시험한 후부터 전 세계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는 일종의 ‘평화공황’이 생겼습니다. 이 공황 하에서 감정이 격해지거나 격렬한 언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핵무기가 증가하지 않길 바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의 일반적인 감정이며, 선입견을 버리고 나면 인지상정(人之常情)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조선(북)에 대한 불만과 질책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의 주류 화두는 평화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세계 각 국의 지도자들은 각종 외교무대에서 거의 이구동성으로 평화와 발전이 현재 세계의 주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백하게 세계는 결코 평화롭지 않고 전쟁의 불길은 매일 타오르고 있으며, 군인과 무고한 일반인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호소하는 정치가들 중에도 일부 전쟁 참여자가 있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킨 사람도 있습니다. 평화가 단지 일종의 구호 또는 외교적 수사가 될 때, 이 세계는 위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중국의 옛 시에 살인여초불문성(殺人如草不聞聲: 살인을 많이 하고, 사람 목숨을 아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평화의 깃발에 가린 살인이 더욱 잔인하고 야만적일 수 있습니다.

국지전의 참여자와 제조자는 자주 어떤 국가가 어떤 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쟁개시의 구실로 삼으며, 이것으로 자기나라 국민을 속이고 전쟁의 합리성을 믿도록 만듭니다. 그들은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만들어낸 불공정한 민주

질서를 통해 소수 이익집단의 폭력이 필요로 하는 것을 실현합니다. 이런 선전의 연막탄 아래에서 사람들은 항상 세계 평화 여부를 간과하고, 무기의 살상성과 소유 수량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기가 누구의 손안에 있는가 만을 생각합니다. 무기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국가는 평화의 희망을 다른 나라의 무기낙후에 맡길 수 없습니다. 세계역사의 발전(과정)은 평화가 때로는 군사적 균형이 이뤄졌을 때에 나타나고, 군사적 불균형은 전쟁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 조(북)핵문제의 배경

2009년 다시 불거진 조(북)핵문제는 조선(한)반도의 정치적 긴장국면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촉발된 것입니다. 우리는 입장을 바꿔 조선(한)반도 인민의 처지에 서서, 이런 장기간의 긴장국면이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거대한 압력 및 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조(북)핵문제의 발생과 이것이 가져오는 정치변동에 대해서 중·미·러·일·조(북)·한 6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단순히 조선(북) 일방만 질책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일방적 질책은 단지 적대와 오해를 더할 뿐이고, 심지어는 결국 철저한 파멸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조(북)핵문제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장기간 지속해온 대조선(북) 고립?타격?봉쇄?비하의 입장과 태도는 조선(북)이 국제환경에서 극도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했으며, 조선(북)이 최대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게끔 압박했습니다.

사실 1964년 중국이 처음으로 원자탄 실험에 성공하기 전후에 미국은 유사한 입장을 중국에 대해서도 취했습니다. 미국의 이와 같은 국제적 대처 방식은 사실상 약육강식이라는 밀림의 원칙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숨겨진 뜻은 핵무기가 없는 자는 핵무기를 가질 권리가 없고, 핵무기를 가진 자는 자연히 핵무기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핵무기의 확산을 유발하는 논리상의 역설입니다. 서방의 천부인권의 이념과 미국인민이 자유롭게 총기를 가질 수 있는 법규에 따르면, 모든 지구상의 사람과 국가는 모두 무기를 사용하여 자신을 보호할 신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 여부는 당하고 있는 위협의 정도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나중에 자기의 외교 방식을 즉각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하는 현재의 태도는 높이 평가할 만 합니다.

미국의 태도가 사실상 핵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봐야 합니다. 미국은 현재 세계상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이고, 주관적으로 세계 곳곳의 일에 관여하고, 객관적으로도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발생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쟁·충돌·유혈·사망 등 미국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국가도 미국과 같은 힘과 포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반드시 자신의 정신상태와 책략을 반성해야 하고, 유일한 초강대국의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다시 새롭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계를 위해서도, 미국인민을 위해서도 최대의 평화와 최대의 존경을 얻어야 합니다.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도 현실과 직면해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짊어져야 하고, 함께 협상하여 이 중대하고 엄숙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중국의 입장을 소개하자면 중국은 조선과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특수한 역사적 연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북)핵문제에서 특별하고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유관국들은 이에 대해 충분한 인식을 가져야 하며, 고도로 존중해야 합니다. 중국을 배제하려 하거나, 중국과 조선(북)의 전통우호를 파괴하여 조(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은 절대로 실현가능 하지 않으며, 심지어 다른 이에게 말할 수 없는 다른 목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조선(북)의 우호관계는 조선(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불가결한 기초입니다. 이러한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평화와 발전도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양국은 이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중국과 일부 국가의 일부 민중들은 이 문제에 대해 큰 시야에서 보지 못하거나, 이 문제가 단지 조선(한)반도 남북 쌍방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등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연히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과 해석을 해야 합니다. 동북아는 아주 큰 시야에서 보면 이미 반세기 넘는 평화 국면을 지속하고 있고, 중국과 조선(북) 양국 인민의 우호적인 유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면은 동북아 각국 모두 양호한 경제발전 기회와 정세를 얻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도의상에서 말하건 이익상에서 말하건 관계없이, 우리를 모두 단독으로 조선(북)을 이러한 기회의 밖으로 배척해서는 안됩니다. 조선(북) 인민이 겪고 있는 압박을 없애고, 조선(북)에게 충분한 발전공간을 주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동북아 각국 모두에게도 새로운 이익과 복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 민간교류의 중요성

지금 세계 주류 미디어는 ‘조선(북)의 악마화’ (이미지를 비하하는 것)와 냉전사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부분 조선(북) 인민과 관련된 소식은 미국 등 강권국가의 선전기구로부터 나옵니다. 이와 같은 소식과 보도는 조선(북)의 빈곤과 낙후, 우매함, 독재를 제멋대로 과장하고, 조선(북)의 집권당과 지도자를 추악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조선(북)의 경제건설 성과와 인민복리의 적극성, 사회생활의 건강성에 대해서는 봐도 못 본 척 또는 이야기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조선(북)을 비하하는 서적 출판을 전문으로 하고, 심지어는 일종의 직업으로까지 되었습니다. 이러한 언론과 현상의 배후에는 고도로 냉담해진 인간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인류 동포에 대한 고도의 잔인함이 깔려 있습니다. 유가사상이든, 도가사상이든, 또는 불교나 기독교 사상에서 보건 상관없이, 이러한 화제들은 모두 지극히 비우호적이고, 조선(북) 인민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며, 심지어는 전쟁의 동원령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비우호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조선(북)반도 정세의 안정은 요원합니다. 만약 세계에 정말로 그와 같은 악마의 국가가 존재한다면, 그럼 모든 교섭과 대화는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중국은 장기간 서방에 의해 ‘악마화’를 겪은 국가입니다. 이와 같은 ‘악마화’는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여러 변종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 본 많은 외국 친구들은 중국의 일반인들은 먹을 고기도 없고, 먹을 과일도 없으며, 맥주와 텔레비전이 없고, 몸에 독약을 숨기며, 지도자를 비판할 수 없고, 걸핏하면 공산당에 끌려가 총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어떤 일에 대해서건 긍정적 태도를 가지면 반드시 ‘공산당의 첩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식과 견해를 통해 우리는 많은 서방 민중의 정보통로가 협소하고 사고방식이 편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비하의 고통과 가소로움을 깊이 아는 중국은 이 문제에서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선(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우선 중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정확하게 조선(북)을 대하고, 평등하게 조선(북)을 대하며, 호의로써 호의를 대할 때 비로소 6자회담을 다시 열 수 있고, 진정으로 문제해결의 실질적인 단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쪽에서는 조선(북)에 대한 모욕과 ‘악마화’를 지속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조선(북)이 먼저 대국의 뜻에 굴복할 것을 요구한다면, 어떠한 집권당과 지도자도 존중의 마음을 갖지 않고, 일방적으로 양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또 하나 중요 원칙은 남북 양국을 평행하게 대해야 하고, 남북을 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단순한 경제적 시각으로 조선(한)반도 정책을 입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92년 중국과 한국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중한간의 왕래는 점차 증가와 심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양국 인민은 점차 상대방을 비하하는 진흙탕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방면에서 상호 이해와 상호 지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조선(한)반도 남북 양쪽을 대하는데 있어,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운 균형 잃은 표현이 존재할 수 있으며, 어떨 때는 경제분야에 대한 고려가 정치와 문화분야의 선명한 시야를 가리기도 했습니다.

올해 조선(북)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우호 정도가 약화 된 것은 일정한 수준에서 조선(북)인민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따라서 조선(북)의 핵문제 발생에 대해서, 중국도 일정 정도 간접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편으로 남북 양국을 동등하게 대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한)반도 남북 양쪽을 한 개의 문화정체로 여겨야 하며, 합리적이고 점층적으로 동북아의 외교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한 쪽의 쌍방관계 때문에 다른 쪽의 쌍방관계에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한관계와 중조관계는 균형 되고 건강하게 동시발전을 이뤄야 하며, 이것으로 남북관계의 균형 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경제와 정치에서 실현한 다방면의 상호 이익과 상호 신뢰, 이것이야말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계 역사상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한 일은 단지 일개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던 때에 발생했습니다. 많은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게 된 이후부터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한 일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대전조차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물론 '핵무기가 평화를 지킨다' 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평화는 더 큰 시야와 더 많은 시간 속에서 볼 때, 균형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자 중의 화(和)자는 균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북아는 한 개의 경제문화권에 속하고, 공동의 문화배경과 공동의 인문(人文)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대사에서 겪은 길고도 엄중한 침략과 노역 때문에, 서로간의 관념에서 이익에 이르기까지 많은 불일치가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주요문제가 동북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부간의 교류와 협상이 항상 순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역사상 동북아 인민간의 상호 왕래는 전통적인 것으로 정부의 각종 교류를 적극적인 추동하고, 길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은 마땅히 많은 민간단체의 왕래를 허락하고 촉진해야 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인민들간의 우호교류와 문화 동질감 위에서 건립해야 합니다. 이것은 동방문명의 오랜 번영을 보장하고, 세계 각지의 오랜 평화를 보장하는 근본대계입니다.

# 朝鲜核问题与中国的作用

孔庆东

各位尊敬的先生、女士：

大家好！

我是一名北京大学的普通教授，我从一个知识分子的角度，谈谈我对“朝鲜核问题与中国的作用”的看法。

自从朝鲜试射核武器，全世界特别是东北亚地区就产生了一种“和平恐慌”。恐慌之下，各种情绪激动或者是激烈的言辞纷纷涌现。不希望这个世界上的核武器增多，大概是人之常情，或者说是被洗脑之后的“人之常情”，所以从官方到民间，对朝鲜的不满与谴责，似乎占了上风。

当前世界的主流话语，是呼吁“和平”。世界各国领导人在各种外交场合，几乎众口一词地说：“和平与发展，是当今世界的主题。”但是我们清醒地看到，世界并不和平，战火天天在燃烧，军事人员和无辜平民天天在死亡。那些呼吁和平的政治家里面，有一部分就是战争的参与者甚至是制造者。当和平仅仅成为一种口号或者外交辞令的时候，这个世界，就是充满危机的。中国有句古诗：“杀人如草不闻声”。在和平旗帜掩盖下的杀人，可能是更残暴、更兽性的。

局部战争的参与者和制造者，往往以某个国家拥有了某种杀伤性武器，作为发动战争的口实，以此来欺骗本国民众，让他们相信战争的合法性。利用大众媒体所操纵的不公正的“民主”程序，来实现少数利益集团的暴力诉求。在这种宣传的烟幕弹之下，人们经常忽略了，世界和平与否，从来就不依赖于武



器的杀伤性和拥有数量，而依赖于武器掌握在什么人的手中。武器是重要的，但更重要的是人。拥有先进武器的人或者国家，不能把和平的希望寄托在他人的武器落后上。世界历史的发展告诉我们，和平有时候恰恰出现在“军事均衡”时期，而“军事失衡”可能恰恰是战争的契机。

2009年所出现的朝鲜核问题，是朝鲜半岛政治紧张局势长期延续所促发的。我们应该设身处地，站在朝鲜半岛人民的处境中，去体会这种长期的紧张局势给人带来的巨大压力，以及由此所产生的心情。对于朝鲜核问题的发生，和由此带来的政治震荡，中美俄日朝韩六方都有责任，不应该单向度谴责朝鲜一家，那样只会加剧敌对和误解，甚至最终走向彻底的破裂。美国在这个问题上负有最大的责任，正是美国长期坚持的对朝鲜进行孤立、打击、封锁、丑化的立场和态势，使朝鲜在国际环境中处于极度不利的位置，逼迫朝鲜要以最大的举措来保卫自己。其实，1964年中国成功爆炸了第一颗原子弹之前和之后，美国也是采用类似的立场来对待中国的。美国这种处理世界事务的方式，实际上推广了弱肉强食的丛林法则。其中包含着的潜台词是：没有核武器者，就没有拥有核武器的权利；拥有核武器者，就自然拥有了这种权利。正是这个逻辑上的悖论，诱发着核武器的扩散。按照西方“天赋人权”的理念和美国人民可以自由持有枪械的法规，每个地球上的人和人都拥有使用某种武器自卫的神圣权利。至于使用与否，则决定于所受到的威胁大小和自身的能力。所以，美国事后能够及时调整自己的外交口径，仍然主张以谈判解决问题，这一态度是值得赞赏的。

应该看到，美国的态度其实是解决该问题的关键。美国是当今世界上最强大的国家，主观上积极插手全世界各个角落的事务，客观上也负有这样的责任和义务。世界上所发生和正在进行的战争、冲突、流血、死亡，无一不与美国有关。其他任何国家，都不具备美国的实力和雄心。所以，美国必须反思自己的心态、策略，重新思考怎样担负唯一超级大国的责任，为世界、也为美国人民赢得最大的和平与最大的尊敬。美国之外的其他各方，也应该面对现实，承担各自的责任和义务，共同协商解决这一重大而严肃的问题。

至于中国，由于中国与朝鲜从古代到现代的特殊历史渊源，决定了中国必须在朝鲜核问题上发挥独特的重要作用。各方对此必须有充分的认识，并予以高度尊重。企图绕过中国，或者破坏中国与朝鲜的传统友谊来解决朝鲜核问题的想法，是不切实际的，甚至是怀有不可告人的目的的。中国与朝鲜的友好关系，是朝鲜半岛和平与稳定的不可或缺的基础。动摇了这个基础，一切的“和平与发展”都有可能成为泡影。韩国和日本两国，对此尤其应该具有清醒的认识。中国和一些国家的部分民众对此问题怀有糊涂看法，不能从大局考察，觉得这只是朝鲜半岛南北双方的事情。这是应该加以耐心说明和解释的。必须看到，东北亚已经持续半个多世纪的和平局面，在非常大的程度上，是中国和朝鲜两国人民的友好纽带所维系的，这个局面使得东北亚各国都获得了良好的经济发展机遇和势头，不论从道义上讲还是从利益

上讲，我们都不应该单独把朝鲜排斥在这个机遇之外。解除朝鲜人民的压力，给予朝鲜宽松的发展空间，必将给东北亚各国都带来新的利益和福祉。

当前世界的主流媒体话语，充斥着对朝鲜的妖魔化，充斥着冷战思维。大多数人民的消息来源，是美国等强权国家的宣传机器。这些消息和报道，大肆渲染朝鲜的贫穷、落后、愚昧、专制，丑化朝鲜的执政党和领导人，对朝鲜的经济建设成就和人民福利的积极面、社会生活的健康面，视而不见或者是避而不谈。在某些地区，专门出版妖魔化朝鲜的书籍，甚至成了一种职业。这种言论和现象的背后，弥漫着一种人性的高度冷漠，是对人类同胞的高度残忍。不论从儒家思想、道家思想，还是从佛教、基督教的思想来看，这种话语都是极不友善的，是不把朝鲜人民当人看，甚至可以说就是战争的动员令。不改变这一非常不友善的态势，朝鲜半岛局势的缓和将遥遥无期。假如世界上真的存在那样一个妖魔般的国度，那么一切的谈判又有什么意义？

中国是长期遭受西方妖魔化的国家，这种妖魔化至今也还在继续和变种。我本人遇到很多外国朋友，认为我们中国的平民没有肉吃，没有水果吃，没有啤酒和电视，身上藏着毒药，不能批评领导，动不动被共产党拉出去枪毙，如果对中国的某件事持肯定态度，就一定是共产党的特务等等。从这些认识和见解中，我们看到的是很多西方民众信息渠道的狭窄和思维方式的可怜。深知这种妖魔化之苦之可笑的中国，在这一问题上，应该加强与美国的沟通，首先共同地正确面对朝鲜、平等面对朝鲜，以善意换取善意，才能重启六方会谈，真正进入解决问题的实质性阶段。如果一方面坚持对朝鲜的污蔑和丑化，另一方面又要求朝鲜首先屈从大国的意志，那在朝鲜人民面前，就必然是一副失去了道义的非常凶狠霸道的形象，任何执政党和领导人，都不会在没有尊严的情境下，单方面让步的。

中国的另一个重要原则，应该是平行对待南北韩两国，在帮助南北韩加强经贸合作的同时，不以单纯的经贸视角来处理朝鲜半岛事务。自从 1992 年中国与韩国建立了正常的外交关系以来，中韩之间的往来逐渐增多和加深，两国人民逐渐走出了妖魔化对方的泥潭，正在越来越多的方面相互理解、相互支持。在这个过程中，中国对待朝鲜半岛南方两方，可能存在着畸轻畸重的失衡表现，有时候经济方面的考量，遮蔽了政治和文化方面的清晰视野。中国所展现的对于朝鲜的支持和友善力度，有所弱化，这在一定程度上，刺激了朝鲜人民的心理。因此对于朝鲜核问题的出现，中国也是负有一定的间接责任的。中国应当一方面同等对待韩朝两国，另一方面又要将半岛南北两方当做一个文化整体，合理而有层次地安排东北亚的外交布局。不要因为一个双边关系而影响另一个双边关系。中韩关系、中朝关系应该均衡健康地同时发展，并以此促进韩朝关系的均衡健康发展。经济上和政治上实现了多方互利和相互信任，这才是最大的和平保障。

世界上真正使用核武器的事实，只发生在一个国家拥有核武器的时段。自从多个国家拥有核武器之后，

不但未发生过核武器的真正使用，连世界大战也没有发生过。这当然不能说是“核武器保卫了和平”，但可以提醒我们，和平在更大的程度和更多的时间里，取决于“均衡”。汉字中的“和”字，本身就包含着“均衡”的意思。

东北亚同属一个经济文化圈，有着共同的文化背景和人文共识。但是由于漫长的近代史上遭受过严重的侵略和奴役，彼此之间不免存在着许多从观念到利益的分歧。全世界的许多关键问题，都集中在东北亚。这使得政府之间的交流谈判，经常不够顺畅。历史上，东北亚人民之间的相互往来是有传统的，对于官方的各种交流也是具有积极的推动和指路作用的。中国应该允许和促进更多的民间团体往来，把东北亚的和平，建立在人民之间的友好交往和文化认同之上，这是保证东方文明长久繁荣、保证世界各地长久和平的根本大计。



# 북핵문제의 해법과 중국<sup>1)</sup>

정영철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 1. 들어가며 - 20년의 위기

‘북핵문제’가 어느덧 20년 남짓한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199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불거진 문제가 세기를 넘어 새로운 세기의 첫 10년을 넘어가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3번이나 바뀌었고, 한국에서도 5번의 대통령을 맞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핵문제’의 해결은 요원하고, 갈등과 타협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북핵문제의 20년 역사를 돌아해보면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초기 북한의 영변 핵시설(핵프로그램)에 대한 공방으로 시작한 문제였지만 지금은 북한의 핵무장 및 핵무기 보유를 둘러싼 의제로까지 확장되고 있고, 회담 역시 북미 양자간 회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양자회담 및 6자회담을 통한 국제적인 의제로 확장되었다. 또한, 북한과 미국을 보더라도 체제의 붕괴위기까지 치닫던 북한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지속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강성대국’ 건설을 주장할 정도로 체제의 안정화를 이루어내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일극체제의 형성을 통한 세계 패권국으로 등장한 이후, 지금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비롯한 일련의 경제위기 속에서 패권국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 ‘북핵문제’의 초기 시작점에서 보자면 북미 양자의 처지와 주변국, 그리고 이를 둘러싼 의제의 변화 등 모든 점에서 변화가 발생하였고, 이는 곧 현재의

1) 이 글은 북미간 직접 양자회담이 성사되기 전에 작성되었다. 양자회담 이후 ‘북핵문제’를 둘러싼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의 본질이 변하지는 않고 있다.

‘북핵문제’의 해결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북한의 핵’ 그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정착 -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 - 의 문제와 북미수교, 북일수교의 문제, 그리고 동북아평화공동체의 형성 등의 문제로 확장되었다. 또한, 북한의 핵보유 - 이것이 주변국이 인정하든, 하지 않든 간에 - 에 의한 보상과 해결의 방식도 일정하게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단지 ‘북한의 핵’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한반도 전체의 핵문제 및 동북아시아의 핵문제, 미국의 핵우산 문제 등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제와 북미관계정상화, 나아가 주한미군의 문제 등도 필연적으로 논의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본질적인 핵심은 변하지 않고 있다. 즉, 북미간 직접 협상과 두 나라의 관계정상화의 확고한 전망만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이 글은 이러한 현상의 변화와 본질을 염두에 두면서 현재의 ‘북핵문제’의 해법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들을 전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만간 북미양자간 회담이 시작될 전망이며, 교착된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의 해결에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움직임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 놓인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현상의 변화에만 집중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 2. ‘북핵문제’의 밑바탕에 존재하는 구조들

### 1) 냉전의 해체와 힘의 불균형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

북핵문제의 발단은 물론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의지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은 소련 및 중국의 협조에 의해 이미 1950년대부터 출발했으며, 지금과 같은 ‘문제거리’로 전혀 문제시되지 않았다. ‘북핵문제’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1990년대 초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에서의 전술핵무기 철수에 즈음하여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시기는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 그리고 남북한의 동시 유엔 가입 등으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경제난이 본격화될 즈음이었다. 보다 더 중요하게는 냉전 체제의 해체가 역설적이게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급격한 힘의 불균형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힘의 불균형은 북한에 대한 미국과 일본, 그리고 남한의 공세적인 대북 정책에 의해 보다 더 심화되었고,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 속에서 북한의 ‘핵문제’가 말 그대로 ‘문제거리’화 되었다.

냉전 시절 북한의 핵개발은 소련의 통제에 있었고, 1980년대 후반에는 NPT 가입(1985년) - IAEA가입은 1974년 - 등으로 국제적인 쟁점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말, 1990년대 초의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전술핵무기 철수와 북한 핵문제의 ‘국제적 쟁점화’가 시도되었다. 소위 ‘제1차 핵위기’의 시작인 것이다. 힘의 불균형은 곧 북한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다가왔다. 안보 위협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찾아왔다. 북한 체제 내부의 문제를 일단 제외하면, 하나는 국제적인 냉전 질서의 붕괴이며, 다른 하나는 동·서독 통일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곧 미국으로부터의 핵 공방, IAEA의 공세적 사찰 요구와 더불어 남한의 공세적인 대북정책 -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더불어 김영삼 정권기의 노골적인 흡수통일주의의 추구 - 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북한으로서는 핵개발에 대한 강한 동기가 유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은 군사적 목적으로만 설명될 수는 없다. 즉, 북한의 핵개발은 경수로 건설의 요구에서 알 수 있듯이, 부족한 전력 자원의 원자력으로서의 충당이라는 경제적 목적이 중요한 동기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남한은 북한의 핵개발이 문제로 제기된 상황에서 3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6기의 핵발전소의 건설 추진 및 향후의 보다 더 많은 핵발전 추가를 계획하고 있었다.<sup>2)</sup> 이런 조건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군사적·안보적 측면에서만 문제로

제기된 것은 결국 북한의 핵문제를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달성하려는 목적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북-미간 신뢰의 충돌 - 동시행동의 원칙

북핵문제가 '문제거리'로 등장하게 된 원인의 하나는 결국 북한과 미국간의 적대적 관계로부터 비롯한다. 즉, 상호 적대적 관계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조건에서 북한 핵문제는 북한에 대한 편견과 불신으로 인해 군사적·안보적 문제로 성격을 규정당하였다. 이는 냉전시대 미국에서의 북한 인식에 근거하는 바, 북한을 항상 안보화 패러다임(securitization)<sup>3)</sup>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탈냉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북한의 호전성과 침략성이라는 선협적인 판단<sup>4)</sup>에 따라 북핵문제를 규정하려고 했던 시각이 진하게 배어있다. 이러한 시각에 따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북한의 핵개발을 북한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앞세워 국제적인 비확산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서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앞세웠다. 이후, 북미 양자간 회담을 통해 제네바 합의로 일단락되었지만, 핵심적인 갈등은 결국 북미간 적대관계에 있었다.

양자간 불신은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에서의 냉전 체제의 불완전한 청산에 기인한다. 냉전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의 냉전은 아직 해체되지 않고 있으며 평화적인 그 어떠한 군사·안보 체제도 형성, 작동되지 않고 있다. 북미간 불신의 구조는 북한의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1990년대의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북한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IAEA의 강제적 사찰의 요구는 1993년 북한의 NPT 탈퇴라는 극한 수단을 낳았고, 결국 1994년 한반도를 전쟁 일보직전으로까지 몰고 갔다.<sup>5)</sup>

양자간의 극단적 불신은 문제의 해결에서도 장애를 초래하였다. 상호성의 원칙에 따른 동시 행동이 아니라 'if - then'으로 이루어진 전제조건의 제시는 결국 무장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추어졌다. 즉, 미국의 특별사찰 및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무제한적인 사찰의 요구를 타협과 협상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무장해제 외에는 달리 해석될 수 없었다. 이러한 불신의 구조는 김영삼 정권의 노골적인 흡수통일에의 염원,<sup>6)</sup> 미국의 소프트 랜딩(soft landing) 전략의 추구를 북한 체제의 변화 혹은 붕괴의 의미로 해석하게 하였고,<sup>7)</sup>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 체제의 내파(implosion)를 목적하는 것으로 비추어졌다.

결국 불신의 구조는 사태의 해결에 주된 장애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불신관계는 타협의 방식에 있어서 포괄적 합의에 불구하고 단계적 이행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단계에 상응하는 '주고받기' 식의 해결 방안은 양자간의 불신 구조 속에서 최선의 길이었다. 그리고 이는 지금도 유효한 방식으로 판단된다.

## 3) '북핵문제'의 '북한문제화'와 '국제화' - 양자회담과 다자회담

2) 한국의 원자력 발전은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등 4개 지역에 발전소가 건설되었으며, 총 20기의 발전소가 운영중이다. 또한, 현재 신고리 1-4호기, 신월성 1-2호기 건설중이며, 신울진 1-2호기, 신고리5-6호기 건설 준비 중에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지식센터(<http://www.khnp.co.kr>)

3) 북한에 대한 안보화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Smith, Hazel, 'Bad, mad, sad and rational actor? Why the 'secrutization' Paradigm makes for poor policy analysis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Affairs 76, 1(2002).

4) David C. Kang, 'Rethinking North Korea,' Asian Survey, Vol.35, No.3(Mar. 1995).

5) 1994년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돈 오버도퍼,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두 개의 한국』(서울: 길산, 2003).

6) 사실 김영삼 정권기에는 정권 차원에서의 흡수통일에 대한 노골적인 의도와 더불어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기정사실화하였다.

7) 1994년 제네바 합의 역시 '가까운 미래'에 북한이 붕괴할 것을 예상한 합의안 이었다고, 당시 협상대표였던 갈루치가 후일 밝히기도 하였다.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국제적인 '비확산' 혹은 '반확산' 문제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도 있으며, 북미간 양자 대결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도 있다. 전자의 시각이 주로 미국의 시각이라면, 후자는 주로 북한의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지난 '제1차 북핵위기' 나 '제2차 북핵위기' 모두 국제법에 따른 해결의 길을 갈 것인가, 혹은 북미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적인 쟁점의 하나였다. 지금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보면, 대체로 북미간 협상에 따라 국제적인 협상들이 고착되거나 국제기구의 역할이 결정되어 왔다. 이는 북핵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 핵심에는 결국 북미간 대결-협상의 구조가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핵문제가 불거진 초기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도 미국의 입장은 '북핵문제'의 '국제화'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제법의 위반자로서 북한을 낙인찍고 이에 대한 처벌을 앞세우는 '북한문제'로 문제의 본질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북핵문제를 국제문제화하고, 북한 체제의 문제로 변질시켜 국제적인 압력을 통해 북한의 체제변화를 의도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의 일관된 주장은 문제의 본질은 '북한과 미국의 적대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해결 역시 북한과 미국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1994년 제네바 합의 즉, 북-미간 직접 합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이로써 제1차 '북핵위기'는 종식될 수 있었다.

제2차 북핵위기는 지금까지의 합의를 부정하고 미국에 의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 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즉,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의 평양 방문과 그로 인한 고농축우라늄(HEU) 문제제기로 다시금 불거졌다. 더 나아가 미국은 이를 제네바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제문제화 시켰다. 미국의 국제문제화 제기는 결국 '북핵문제'의 북미간 협상 회피, 국제적인 압력을 통한 힘으로의 해결을 의도했던 것에 원인이 있다.

특히, 미국은 '제2차 북핵위기' 시에 '북핵문제'를 '북한문제'로 보다 더 선명히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핵문제'를 계기로 인권문제, 금융, 위조지폐문제, 종교문제, 민주주의의 문제 등의 전방위적 카드를 내던졌고, 이를 보편성의 기준으로 내세워 국제문제화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04년 7월의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었고, 종교탄압 특별우려 국가 지정, 위조지폐 의혹과 BDA 불법 금융거래 의혹을 통한 국제 금융 거래 압박 조치를 취했다. 나아가 PSI 및 2002년 12월 서산호 나포, 프랑스 화물선에 대한 북한으로의 알루미늄 수출 의혹에 따른 수색(2003년 4월), 2003년 8월에는 대만에서 베개보호 수색 등의 물리적 압박 조치도 취하였다.

'제2차 북핵위기'를 다루기 위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은 이전의 '제1차 위기'와 동일하였다. 즉, 북한이 일관되게 양자 협상을 통한 해결을 주장했다면, 미국은 국제적인 협상들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였다. 이 결과 나타난 것이 바로 6자회담이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가 북핵문제의 국제화로서 IAEA를 동원하였다면, 부시 행정부는 관련 당사자인 중국, 남한,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6자회담을 통한 북한 고립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대응의 차이는 클린턴 행정부가 자유주의(혹은 제도주의)적 입장에서 국제기구를 동원한 세계 지배 방식을 선호했던 반면, 부시 행정부는 직접적인 미국의 힘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현실주의-신보수주의적 입장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클린턴 행정부나 부시 행정부 모두 '북핵문제'의 국제화를 통한 북한의 고립과 체제 변화를 목적으로 했던 것에 있어서는 동일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는 곧 '북핵문제'를 북미간 적대관계의 종식과 관계 정상화라는 본질적 문제를 회피하고, '북한'이라는 국제사회의 '불량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미국은 '북핵문제'를 '북한문제'로 치환함으로써 북한이라는 불량국가의 체제변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서의 자신들의 패권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에 반해 북한은 '북핵문제'를 북한과 미국의 양자 관계에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빚어낸 결과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일관되게 북-미 양자간의 적대 관계 종식과 관계 정상화가 문제의 종착역이며, 이 과정은 곧 한반도 평화, 통일의 문제에서 핵심적 의의를 갖는 문제로 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자간의 팽팽한 입장은 6자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함이 없었으며,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북핵문제의 북한문제화와 국제문제화는 북한에 대한 초기 대응의 시기에 공통적으로 시도한 것이었고, 클린턴 행정부나 부시 행정부 모두 다 실패하였다. 미국의 압박 정책의 실패는 곧 양자회담으로의 복귀를 의미하였고, 문제의 해결은 양자회담을 통한 북미간 직접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이다. 이는 현재의 '북핵문제'의 본질이 '북미간 적대관계 및 그의 종식' 나아가 '관계정상화'에 있음을 말해주고, 이 외에는 해결의 방도가 없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 3. 해법은 무엇인가?

#### 1) 북미간 양자회담을 통한 정치적 해법 -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재자

'북핵문제'는 북한의 핵문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질은 북미간 적대관계의 청산 및 관계정상화이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조의 정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한반도비핵화라는 최종적인 목표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역사적 과정과 문제의 본질로부터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북미간 양자회담을 통한 정치적 합의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미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적 관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sup>8)</sup>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은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가 가장 중요한 협상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또한 '북핵문제'의 발단과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즉, 미국의 힘에 의한 한반도 정책과 그에 맞선 북한의 대응이 중심축이었고, 이는 곧 북한과 미국의 정치적 협상만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나 2005년 '9.19공동성명', 그리고 2007년의 '2.13 합의'는 모두 북미의 협상을 통해 가능했었다. 현재의 6자회담이 '북핵문제'를 논의하는 장이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북미의 협상을 촉진하거나, 혹은 승인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도 북미간 협상이 '북핵문제' 해결에 가장 핵심적인 해법의 하나임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부시행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6자회담'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6자회담은 지금까지 북핵문제를 논의하는 장으로서 유용한 틀을 제공해왔고, 특히나 '북핵문제'의 의제가 확장되고 있는 조건에서 6자회담은 보다 더 나은 협의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6자회담에 참여하는 주변국들의 중재 역할은 북미간 협상을 촉진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다. 남치자 문제만을 고집해왔던 지난 시기의 일본, 그리고 아직까지 한반도에서 발언력이 약한 러시아를 제외하면 중국과 한국은 6자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평화적인, 외교적인 방식으로 풀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9.19 공동성명'이나 '2.13합의'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중국과 한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9)</sup>

8) 김정일-원자바오 회담, 2009년 10월 6일.

9) 지난 6자회담 과정에서 중재자의 역할이 빛을 발한 것은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의 경우에 드러난다.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과 북미관계 정상화까지를 상정한 공동성명은 중국의 미국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압력 -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한 폭로 등 - 과 남한의 미국 편향적 입장의 변화 등이 주효하였다. 사실 중국은 합의문을 놓고 미국에 '가-부'의 입장을 요구하였고, 6자회담 바깥에서는 일련의 전문가 인터뷰와 신문기고를 통해 미국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남한 또한 미국의 일방적 CVID 입장에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북한과 미국의 요구 모두를 공동성명에 담은 '정직성'의 입장을 보여주었다. 결국 '9.19 공동성명'은 북한의 요구와 미국의 요구를 동시에 담은 합의문이었지만, 사실상 그동안 일방적으로 '북한문제'로서의 '북핵문제'를 다루어왔던 미국의 입장이 후퇴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6자회담을 통해 '5:1 구도' 최소 '4:2 구도'를 만들어 북한을 압박하고자 했던 미국의 정책이 좌절되었음을 의미했다.

북미간 양자회담이 핵심축이라고 하더라도 합의의 기본 원칙으로서 동시행동이 보장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북미간 불신의 장벽이 높은 조건에서 ‘원샷 딜’과 같은 방법은 포괄적 협상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신뢰의 구축과 단계적 이행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sup>10)</sup> 오히려, 서로가 단계별 이행 계획에 합의하고 동시 행동의 원칙에 따라 합의 내용을 행동으로 옮길때 신뢰의 구축과 이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9.19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공약대 공약’, ‘행동대 행동’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 2) 6자회담의 의제 확장 - 핵 그리고 평화

북핵문제의 근원은 북한의 안보위협과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적 질서의 구축이 맞부딪치면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 해소와 평화적 구조의 마련은 중요한 합의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북한의 경우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침체로 인한 어려움에 더하여, 냉전 질서의 붕괴에 따른 심각한 안보 위협에 노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선택지는 핵개발을 통한 억지력의 강화였다.<sup>11)</sup> 핵개발의 동기가 경제적인 것으로부터 1990년대의 상황은 급격하게 군사적인 것으로 변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해결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해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해소는 ‘북핵문제’가 ‘한반도비핵화’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포괄적인 평화구조의 구축이라는 목표와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제의 확장은 이미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따른 5개의 실무그룹의 설치에서도 드러난다. 5개의 실무그룹 즉, ①한반도 비핵화, ② 북미 관계정상화, ③ 북일 관계정상화, ④ 경제 및 에너지 협력, ⑤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를 다루는 실무그룹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넘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북미, 북일관계의 정상화와 동북아시아 평화,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문제를 다루는 실무그룹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07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 그리고 나아가서 평화체제 구축까지 - 을 위한 3자 혹은 4자 정상회담이 결합된다면, 결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지는 평화구조의 정착을 포함하게 된다. 이미 북한은 한반도비핵화와 더불어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의 문제와 주한미군의 문제, 한반도 핵우산 등의 문제를 향후 북미간 회담에서 의제로 삼아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의 6자회담은 기존과는 성격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6자회담이 주로는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협상안을 마련하고, 단계적 실행을 위한 성격을 띠었다면 앞으로의 6자회담은 지금보다 더욱 높은 고위급 회담으로서, 그리고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할 회담으로 격상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현재의 6자회담은 재개된다 할지라도 실무적 협상 이상을 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앞으로 다루어야 할 의제가 지금의 6자회담 틀로는 담아내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북미 양자간의 고위급 협상을 통해 형성된 의제는 6자 참가국들의 고위급의 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sup>12)</sup>

북미 양자회담이 북핵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축이라고 한다면, 6자회담은 이를 국제적으로 담보하는 성격을 지니고

10)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은 북미간 협상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흐려놓은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도 부정적이다.

11) 물론,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핵억지력만으로 설명하는 것을 부적절하다. 북한의 핵개발은 전력 자원의 확보, 군사적 억지력의 확보, 정치적 협상 지렛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12) 최근 북한의 의도를 보면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보다는 북미 양자회담과 북일 양자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문제의 근원으로 곧바로 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6자회담은 이러한 양자회담과 동시 혹은 그 결과에 따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달라진 협상전략이자 새판 짜기의 의도로 판단된다.

있었다. 그러나 의제의 확장은 6자회담이 북미, 북일 양자회담 등과 더불어 주요하게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공동체 형성의 중요한 출발점으로서 자리매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당분간은 현재의 협상들이 유지될 수 있겠지만, 논의의 진행에 따라 6자회담은 현재의 틀에서 변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3) 한반도의 비핵화 – 북미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

현재 한반도의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간 주요 쟁점의 하나는 비핵화를 통한 관계정상화와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로 좁혀진다. 여기에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폐기의 상응하는 대가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도 포함된다. 특히,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 이후 북한은 지난 6자회담의 합의가 지연되고, 검증 문제로 인한 교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직접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즉,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핵폐기와 한반도에서의 핵우산 철거,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문제, 북미 관계정상화 그리고 경제보상의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해나가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를 합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우선적으로 적대정책의 철회와 평화적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북한의 현재의 입장은 핵불능화에서 교착된 과정을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로 직행하자는 것이며 이를 포괄적으로 타결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sup>13)</sup>

북한의 이러한 의도는 크게 두 가지로 좁혀진다. 즉,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대문을 여는 해'를 목표로 이를 위한 대외 환경을 되돌릴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과 북핵문제의 지나온 20년의 경험 속에서 미국에서의 정권 교체와 잦은 정책 변경에 따른 지연과 협상의 반복을 끝내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북한에게는 대외환경의 변화를 통한 경제강국 건설에의 매진이라는 목표로 나타나며,<sup>14)</sup> 직접적으로는 핵보유를 통한 역지력의 강화로 표출되고 있다.

또한, 지금과 같은 동결·불능화의 단계를 거친 핵폐기의 지루한 과정이 아니라 포괄적인 합의를 통해 되돌릴 수 없는 문제 해결 과정으로의 진입을 의도하고 있다. 즉, 미국의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와 북한의 '되돌릴 수 없는 관계정상화'가 동시에 합의되고,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폐기는 정치적 결단이 내려진 다음, 최후의 단계에 가서야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북한의 핵폐기는 비가역성의 성격을 띠지만, 평화체제의 구축, 관계정상화, 경제보상 등은 핵폐기에 비해 속도도 느리며, 언제든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마지막 단계에 가서야 비핵화 – 핵폐기를 마무리하고자 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핵폐기에 대한 정치적 결단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 4. 중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다. 전통적으로 북-중간의 관계나 중국의 국제적 위상 등에 비추어보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에의 과도한 의존과 기대는 잘못

13) 이에 대해서는 「민족 21」100호(2009년 7월호), 스페셜 리포트를 참조할 것.

14) 이러한 의도는 김정일 위원장의 '6.25 담화'에서도 나타난다. 2012년까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역량의 집중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분석글로는 「민족 21」103호(2009년 10월호) 정영철의 글을 참조할 것.

된 정책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 및 한국의 과도한 기대는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한 직접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지 못하는 자신들의 무능력에 대한 표출이기도 하며 - 북한과 같은 작은 나라와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세계의 지도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키신저의 발언을 상기해보라 - 더욱이 과거 북한에 대해 소련-중국의 위성국가 혹은 꼭두각시 국가라 생각했던 냉전적 사고의 연장선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sup>15)</sup> 또한, 한국 역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중국의 역할에 과도한 기대를 표출하고, 기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물론, 중국의 현실적 역할의 부정이나 중국의 중요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현재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은 중요하며, 또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충실한 중재자로서의 가치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9.19 공동성명' 채택 당시 중국이 보여주었던 미국에 대한 압박이 실제 공동성명 채택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되돌아보면 중국이 현재의 북핵 문제에 중대한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한국 역시 6자회담의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 어느 한편에 기울이지 않고 정직한 중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경험을 돌아보면 자신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북핵문제에 있어서 주변국가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아직까지 청산되지 않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북핵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경제적 지원, 그리고 나아가 동북아 평화공동체 추진에 필요한 각자의 역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특히 중국의 역할은 6자회담 의장국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당사자로서 그리고 향후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논의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2007년 정상회담에서도 선언되었듯이, '3자 혹은 4자 정상회담'이 필수적이며 이는 중국이 응당한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중국의 역할은 정직한 혹은 충실한 중재자로서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번의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에서 확인되었듯이, 중국은 북한과의 역사적 관계를 여전히 중시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동북아시아의 안정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또한, 한중 관계 역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중국은 이미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에 해당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공동의 번영을 위해 현재의 북핵문제가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풀려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중재자 및 건설적인 제안자로서 그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이미 중국은 미국의 대북 압박에 반대하지만,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상을 들여다보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경제적 협력을 보다 더 강화할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현실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미국이나 한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핵화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적 지향보다는 한반도의 안정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적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의존은 북핵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앞세우기 보다는 혹은 중국을 과도하게 끌어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하려고 하기보다는 미국과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적인 접촉을 늘려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베이징을 경유해 평양과 대화하기보다는 직접 평양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당사자로서의 주장에도 부합하며, 문제의 해결에도 보다 더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 될 것이다.

15) 미국 및 서방국가에서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 대한 비판글로는 정영철, '집단주의 발전전략으로서 '수령제' 정치체제,' 국사편찬위원회『현대사의 제문제』창간호(2005.12)



# 朝核问题的解法和中国

郑英喆 西江大学 公共政策学院 教授

## 1. 导言 - 20年的危机

有关朝核问题的攻防大约持续了20多年。1990年初正式暴露出来的朝核问题跨过世纪后，又即将走过新世纪的第一个10年。在这期间美国白宫的主人已更换了三次，而且韩国也迎来了第5届国家总统。不管怎样，朝核问题里仍存在着许多问题，在这里反复的纠纷和妥协是一直存在的。回顾朝核问题的20年历史，我们可以发现几个重要的变化。一开始仅仅是有关朝鲜宁边核设施的问题，但到后来这个问题扩张到了围绕着朝鲜的核武装及持有核武器的议题，除此之外会谈也从开始的朝美两国会谈，发展成了现在的六方会谈，成为了一个国际性议题。通过朝鲜和美国的政策可以看出，虽然经历了体制崩溃危机的朝鲜仍然处在非常困难的环境中，但是朝鲜通过‘苦难的行军’等正在逐渐使体制安定化，安定化的程度已经能够使其主张建设‘强盛大国’，反观美国，通过苏联解体、东欧社会主义崩溃以及一极体制形成而成为世界霸权国之后，现在，世界金融危机和一系列的经济危机正威胁着它的霸权国地位。从初期的朝核问题去看的话，朝美两国的处境和周边国家，及与之相关的议题的变

化等所有方面都发生了改变。这表明了现存的朝核问题的解决进入了更加复杂的局面。现在的问题不只是朝核本身的问题，而是扩大到了朝鲜半岛的和平稳定—终战宣言、和平协定等—问题；朝美建交和朝日建交问题；还有东北亚和平共同体的形成等的问题。另外，对于朝鲜持有核武器—不管周边国家认同与否—的补偿和解决方式也发生了一定的变化。这意味着朝鲜半岛无核化不局限于“朝核问题”，朝鲜半岛整体的核问题，东北亚的核问题，美国的和保护伞问题，同时，朝鲜半岛和平体制问题，朝美关系正常化及驻韩美军问题等都会成为必然的讨论对象。

尽管如此，问题的本质核心并未改变，即朝美直接协商和两国关系正常化的明确未来是解决问题的核心。这篇文章在这样的现象变化和本质的基础上，对当今朝核问题的解决方法展开基本的讨论。很快，朝美两国的会谈应该会再次展开，并且六方会谈重启的可能性也非常大。朝核问题肯定会向着积极的方向发展，这不需要我们去怀疑，但我们去研究问题时要注意的是，我们不能集中去观察问题表面上的现象，而是应该更加理解问题所包含的内在结构。

### 3. ‘朝核问题’的基本结构

#### 1) 冷战的解体和力量的失衡 - 对朝鲜安全保障的威胁

朝核问题的起点可以说从朝鲜对原子核发展的意志开始，但是朝鲜着力发展原子核是从50年代起，在苏联及中国的协助下开始的。当时，这个问题处在一个不起眼的角落里。90年代初布什政府从朝鲜半岛上撤回战术核武器之后，正式把此问题提了出来，并称之为朝核问题。这个时期出现了苏联和东欧社会的解体、南北朝鲜同时加入UN等的问题。这种种原因，使得朝鲜在国际上的更加处在孤立的地位，而且出现了经济上的严重衰落。比这更重要的是，冷战体制的解体反而导致了东北亚地区急剧的力量失衡。这种力量失衡因美国，日本和韩国对朝鲜的攻击性政策更加深化了。在这样的结构不平衡上，朝核问题越来越被当作一个严重的危险。

在冷战时期，朝核的发展是在苏联的统治下进行的。朝鲜80年代晚期加入NPT、1974年加入IAEA等的活动并没有引起国际社会的反响。但是在80年代末，90年代初力量不平衡的情况下，美国单方面的核武器撤回战略和朝鲜核武器向国际社会的挑战日趋加剧了。这就是第一次核危机的开始。力量不平衡的问题给朝鲜安全保障带来了严重的威胁。这里所指的安全保障的威胁可以分为两大部分。首先如果不谈朝鲜内部的体制问题，一个是源于国际冷战秩序的崩溃，另外一个源于东西德国的统一。这使美国开始关注了朝核，使IAEA正式介入到朝核问题上，并且导致了韩国对朝鲜的攻击性政策—卢泰愚

政府的防北政策和露骨的吸收同意政策。这些威胁诱发了朝鲜核发展的强烈的动机。其实朝鲜的核发展不能仅仅被认为是军事上的目标。通过轻水炉建设的要求来看，朝鲜的核发展是有着充当不足的电力资源的原材料等经济目的的。在朝鲜的核开发被当做问题的情况下，韩国已经运营3所核电站，推动6所核电站的建设，并且未来还有更多的核电站计划。这样的条件下，重点关注朝核军事安全方面的问题是因为美国想要获得在东北亚的军事利益。

## 2) 朝美之间信赖的冲突 - 同时行动的原则

朝鲜的问题被称为老大难的原因其中之一是朝鲜和美国之间的敌对性关系。在追求相互敌对性的关系和政策的条件下，由于对朝鲜的偏见和不信任，朝核问题被归于军事性的问题。美国把冷战时期对朝鲜的认识做为根据，冷战以后也一直把朝鲜看作安全保障化的例子。在美国的观点里其实有很浓厚的偏见，那就是朝鲜本身具有好战性和侵略性。因此，在这种偏见之下，美国和西方国家片面地把朝鲜的核开发看做是对国际不扩散体制的挑战。在这样的情况下，他们都提出了自己片面的要求。之后，虽然通过朝美两国会谈及日内瓦协议暂时解决了一些问题，但是最核心的纠纷还是朝美之间的敌对性关系。

两国之间的不信任会导致东北亚和朝鲜半岛冷战体制的不完全清理。不管冷战的体制如何，朝鲜半岛上乃存在着战争的气息，并且还没有形成和平的军事安全体制。朝美之间的不信任结构在90年代朝鲜的安全保障威胁加重的情况下，美国对朝鲜的片面主张只能带来激烈的反抗。而且IAEA的强迫访问调查要求引起了1993年朝鲜退出NPT的极端的结果。最终1994年差一点就导致了朝鲜半岛的战争。

两国之间极端的不信任造成了问题解决的障碍。不是相互性原则上的同时行动，造成‘if-then’的前提条件议题式被人看作武装解体的意义。美国把特别调查和对可疑设施的无限制的调查要求作为妥协和协商的前提条件，这些对朝鲜来讲这就意味着核武器的完全解除。只表现为韩国金泳三政权的吸收统一的政策，美国的 soft landing 策略任朝鲜体制的变化及崩溃。这种，不信任结构是事态解决的主要障碍。对妥协方式来看，这样不信任关系只能归纳为阶段的实践。阶段上相互的接收解决方式是在两国之间的结构当中唯一最好的解决方法。

## 3) 朝核问题的朝鲜问题化和国际化 - 两者会谈及多者会谈

对朝核问题有多个角度，可以从国际性的非扩散或者半扩散问题的角度来看，还可以从朝美之间两



国对立的角度来看。前者可以说是从美国的角度看的，后者是从朝鲜的角度看的。那么以前的第一次朝核的危机或第二次朝核的危机会按照国际法来解决呢？还是通过朝美之间协商来解决呢？两个解决的方式是争论的核心。到现在，以历史的进程来看，大体上朝美之间的协商内容规定了国际的框架以及国际机构的行事范围。虽然这不能否定朝核问题的国际性，但是这个核心还是在于最终朝美之间对立-协商的结构。

从提出朝核问题的初期开始，到现在为止美国的立场是把朝核问题国际化。而且在这样的过程当中，把朝鲜当作国际法的违法者，通过实行惩罚来改变朝鲜问题的本质。这是把朝核问题国际化，从而利用国际上的压力来改变朝鲜的体制。而朝鲜一贯主张问题的本质在于‘朝鲜和美国之间的敌对性的关系’上，对这个问题的解法只能是朝鲜和美国的直接协商。最终，通过1994年日内瓦（Geneva）协议，即朝美之间的直接协议问题得以解决，因此终止了第一次朝鲜核危机。

第二次朝鲜核危机是通过朝鲜否定至今的协议及对美国提出新的疑惑开始的。即，2002年10月从James Kelly 访问平壤时提出高浓缩铀的问题开始的。美国把这一问题认定为朝鲜违反日内瓦协议的行为，把这个行动转化为国际问题。美国把这个问题当作国际性问题的原因是为了回避关于朝核问题的北美之间的协议，想要通过国际压力来解决问题。当第二次朝鲜核危机来临时，美国把朝鲜核的问题当作严重的问题。为了提出朝鲜核的问题，美国还提出了人权问题、金融、伪币问题、宗教问题、民主主义问题等全方位的问题。把这些问题当作普遍性的标准来转化为国际性问题。因为这个原因，2004年7月通过了‘朝鲜人权法’，通过把朝鲜指定为宗教镇压特殊忧虑国家，提出制造伪币嫌疑，BDA非法金融交易嫌疑等对朝鲜采取了压迫国际金融交易的措施。并且进一步采取了截获PSI及2002年12月色三（서산）号，对法国货船向朝鲜出口铝的疑惑的搜查，2003年8月在台湾对贝给琫（베게봉）号的搜查等无理性的压迫措施。

处理第二次朝鲜核危机的朝鲜和美国的立场跟第一次危机时相同。朝鲜还是主张通过两者的协商来解决，而美国是喜欢通过国际协商结构来解决。这种情况下所产生的就是六方会谈。过去克林顿政府是通过朝核问题的国际化来动员IAEA的，布什政府是通过有关的当事者像中国，韩国，日本，俄国来试图使朝鲜在国际上孤立。克林顿政府和布什政府应对朝鲜的差异是克林顿政府偏向于从自由主义的角度来动员国际机构统治世界的方法，而布什政府是偏向于站在现实主义及新保守主义的立场直接通过美国的力量来统治世界的方法。无论如何，克林顿政府和布什政府都想要通过朝核问题的国际化，朝鲜的孤立和体制变化来解决的目标是一样。

美国的这种意图是为了回避通过朝核问题终止朝美敌对关系和朝美关系正常化这一本质性问题，是为了把朝鲜当作国际社会上的不良国家而进行有效地统治和调操纵。即，美国想要通过把“朝核问

题”置换为“朝鲜问题”，来诱导朝鲜这一不良国家的体制变化，希望以此维持他们自己在朝鲜半岛和东北亚的霸权秩序。反而，朝鲜认为朝核问题在于美国和朝鲜两国的关系，是美国对朝鲜的敌对性政策造成了这样的结果。所以，朝鲜还是认为终止朝美两国之间的敌对性关系和两国关系正常化才是最后解决问题的关键，这个过程在朝鲜半岛和平和统一问题中具有核心的意义。两国之间紧张的状态在6方会谈过程中也没有改变，持续到现在。结果上来看，美国对朝核问题的朝鲜问题化，国际化是在应对朝鲜的最初时期共同实施的，克林顿政府和布什政府都失败了。美国的压迫政策的失败意味着两者会谈的再次展开。通过朝美之间的直接协商有所成功的历史性的经验来看，最好的解决方案是两者会谈。这证明现存的朝核问题的本质是朝美之间敌对性关系的终止和关系正常化，除了这些方式之外没有其他的解决方案。

### 3. 有什么解法？

#### 1) 通过朝美之间两者会谈的政治性解法 - 朝鲜，美国和仲裁者

朝核问题不仅仅意味着朝鲜的核问题。上面所说，本质是朝美之间敌对关系的终止及关系正常化，还有朝鲜半岛和平体制的构建和东北亚和平结构的稳定化。当然最终的目标是朝鲜半岛的无核化。那么，从历史过程及问题的本质上看，最合理的解决方案是什么呢？这就是通过朝美之间的两者会谈来开始政治性协议。朝鲜总统金正日已经通过朝美两者会谈指出了朝鲜半岛上准备和平的关系是最重要的一点，朝鲜对美国的敌对性政策的基本立场成为最重要的协商出发点。这是在朝核问题的开端和过程当中表现出来的。这表明了应对美国力量时朝鲜半岛的政策和面对这些朝鲜的应对是中心问题，而且只能通过朝鲜和美国的政治性协商才能形成解决这个问题的基本框架。

1994年的日内瓦协议和2005年9.19共同声明, 2007年的2.13协议等这些都是通过朝美的协商才可能完成的。虽然现在6方会谈是讨论朝核问题的场所，但是最终起到了促进或承认朝美协商的作用也表明了朝美协商是解决朝核问题的核心解法之一。

无论怎样，通过过去的布什政府产生的六方会谈不能说没有作用。六方会谈到现在一直提供了能提出朝核问题的机会，在扩张朝核问题的议题的情况下，六方会谈是能提供更加好的协议的框架。参加六方会谈的周边国家的仲裁角色是促进了朝美之间的协商和提出对应方法等的重要角色。除了过去只考虑到被绑架者问题的日本，还有到现在在朝鲜半岛比较没有发言权的俄国之外，中国和韩国通过六

方会谈起到了把一些问题通过和平的、外交的方式来解决的作用。回顾9.19共同声明和2.13协议的过程，可以证明中国和韩国的角色是非常重要的。即使说朝美两者会谈是核心轴，作为协议的基本原则的应该是能保障同时行动的方式。上面所说，朝美之间有着不信任的隔阂下，和 One shot deal 一样的方法可以只能意味着大致性的协商，但是再信赖的构筑和阶段的实践上没有大的帮助。反而，互相协议阶段实践的计划，按照同时行动的原则，实行协议内容的话，对构建信赖和实践是有所帮助的。在9.19 共同声明上所提到的‘公约对公约’，‘行动对行动’的原则还是有效的原则。

## 2) 六方会谈的议题的扩张 - 核与和平

朝鲜的核问题根源于朝鲜的安全保障威胁与美国对朝鲜半岛及东北亚的霸权性秩序的构建有所冲突。根据这种情况，解决朝核问题的过程当中，朝鲜的安全保障威胁的消除与构建和平结构是重要的协议内容。从朝鲜来看，苏联及东欧社会主义圈的崩溃、国际性的孤立、经济上的困难、冷战秩序的崩溃上带来的严重的安全保障威胁已经暴露出来了，在这样的情况下，朝鲜的选择通过核开发强化震慑力。核发展的动机是从经济上的困难开始，90年代急剧地变成了军事上问题。

所以朝核问题的解法是消除对朝鲜的安全保障威胁。如果要解决朝鲜的安全保障威胁，不仅仅要解决朝鲜半岛无核化的问题，而且要构建朝鲜半岛及东北亚地区的大致性的和平结构。这样议题的扩张已经在9.19 共同声明和2.13协议的5个事务集团的设置上显示出来了。5个事务集团：①朝鲜半岛的无核化，②朝美关系正常化，③朝日关系正常化，④经济及资源的合作，⑤东北亚和平、安全保障体制。这些对事务集团的处理超过了朝鲜半岛无核化的问题，而且包括了朝鲜半岛和平稳定化、朝美、朝日关系正常化、东北亚和平、安全保障体制的构建等问题。为了2007年朝韩协议的朝鲜半岛终战宣言—进一步到和平体制的构建，3者会谈或4者会谈正常开始的话，最终可以包含因为朝鲜半岛和平协议的签订而稳定的和平结构。朝鲜已经要求在今后朝美两者会谈时，将朝鲜半岛无核化、朝鲜半岛和平体制的构建的问题、驻韩美军问题、朝鲜半岛核保护伞等问题作为议题。

如果这样的话，现存的六方会谈的性格一定会有所变化，现存的六方会谈是主要提出朝鲜半岛无核化的大致性的方案；如果具有了阶段实行的性质，以后的六方会谈会变成更加有益的会谈，并上升为处理比现在更加本质性的问题的会谈。即，现存的六方会谈即使重启，也很难承担比事务协商更高级的议题。这是因为以后应该处理的议题，在现存的六方会谈框架中难以承担的可能性非常大。通过朝美之间的高级协商形成的议题要求参加六方会谈的周围国家的高级的讨论。

如果朝美两国的会谈是能够解决朝核问题的核心，那么六方会谈是其国际上的保障。但是随着议题的



扩张，六方会谈和朝美会谈、朝日会谈一起，作为东北亚和平共同体形成的重要出发点而定位，当然，在短时间里，会维持现存的协商框架，但是随着讨论的进行六方会谈的现存结构也一定会有变化。

### 3) 朝鲜半岛的无核化 - 通过朝美关系正常化的无核化

现在朝美之间围绕着朝鲜半岛无核化的主要的争论缩小为是通过无核化使关系正常化还是通过关系正常化达到无核化的问题。这里也包含着朝鲜核武器报废相应的代价是什么？尤其是，朝鲜的第二次核试验和奥巴马政府登台之后，朝鲜延迟了过去的六方会谈的协议，在因验证问题而产生的僵持一直持续的情况下，朝鲜表示了通过跟美国直接协商来解决问题的意图。朝鲜愿意与美国概括性地协商为了朝鲜半岛无核化进行核武器报废、朝鲜半岛核保护伞的消除、和平协定、驻韩美军等问题，朝美关系正常化、经济保障等问题，并履行协商的结果。但是这些问题的协商应该在撤回敌对性政策和创造和平环境的前提条件下进行。朝鲜的立场是要直接谈问题的本质。

朝鲜的意向可以分两个方面，2012年以‘打开建立强盛大国大门的一年’为目标，要创造一个好的对外环境。从过去20年对朝核问题的经验上来看，朝鲜意图结束因为美国的政权交替和频繁的政策变动而产生的推延和协商的反复。对朝鲜来说是通过对外环境变化向建设经济强国的目标迈进，直接的意思是通过保存核武器来显示出震慑力的强化。即，不是通过现存的冻结阶段的核报废的繁冗过程，而是通过大致性的协议来进入新的解决问题的过程。也就是说在协商“美国的不可换回的无核化”和“朝鲜的不可换回的关系正常化”的同时去履行。那么，朝鲜核武器的报废，在做了政治决断之后，到最后的阶段才能实现。这是因为，朝鲜的核报废具有不可逆性，而和平体制的构建、关系正常化、经济补偿等比核报废的速度慢，任何时候都可以挽回。所以，到最后一步的时候，朝鲜才会决定无核化-核武器报废的行动，只不过在此过程中，可以在比较早的时期做核武器报废的政治性决断。

## 4. 中国应该做什么？

很多人认为解决现存的朝核问题的过程中，中国的角色非常重要。从历史上，朝鲜和中国之间的关系和中国在国际上的地位来看，不可否定中国角色的重要性。可是对中国过分的依靠和期待是错误的政策判断。韩国和美国对中国过分的期待显示了在现实上跟朝鲜直接协商当中不能解决问题的无能，和像朝鲜那样小的国家都不能解决问题，怎么会被称为领导世界的国家呢？甚至，过去把朝鲜看作苏

联和中国的卫星国家或者木偶国家的冷战性的思考延续到现在。韩国是朝鲜半岛问题的当事者，但是实际上过分的依靠着中国的角色，这是不符合道理的。当然，不能否定现在中国的作用和中国的重要性。作为六方会谈的议长国，中国的角色非常重要，其中作为朝鲜和美国之间忠实的仲裁者的价值是非常重要的。通过‘9.19’共同声明的时候，中国对美国的压迫在实际通过共同声明当中有非常大的影响力，中国应该作为现在朝核问题的重要主体发挥作用这一点我们没有怀疑的余地。而且，韩国在六方会谈的过程当中也没有偏向朝鲜和中国之中的某一个国家，而是作为正直的仲裁者发挥作用并带来了肯定的结果。从上面的经验看出，忠实于自己的角色是非常有必要的。

有关朝核问题的周边国家的角色非常重要。这是因为存在着，还没解决的东北亚军事紧张缓解，解决朝核问题时要求的经济支援，促进东北亚和平共同体时所需要得各自的作用。在这样来看，中国的角色不仅仅是六方会谈的议长国，而且应该作为朝鲜半岛的和平体制构建的当事者，担当以后的东北亚和平共同体的核心角色。尤其是，2007年在首脑会谈当中已经宣布过的，在解决朝核问题的过程中需要讨论的朝鲜和平体制的构建意味着3方会谈或4方会谈是必须的，而中国应该担当相应的角色。

中国的角色是正直的，忠实的仲裁者，帮助朝核问题的解决。通过这次温家宝总理访问朝鲜可以确定中国仍然重视和朝鲜的历史关系，现实上，东北亚安定对持续性的经济增长也非常重要。而且中韩关系也对东北亚安定和发展很重要。从这点来看，中国已经在各个方面有了多样性的关系，并发挥着应有的作用。总之，中国为了朝鲜半岛的安定和平、共同繁荣，希望朝核问题能得到和平的解决。为此，我认为中国作为仲裁者和建设性提案者将会发挥出其最大的作用。从最近发生的一系列事情中我们可以确定，中国虽然反对美国对朝鲜的压迫，但是在联合国对朝制裁中，发挥着其作为国际社会中负责人的一员的作用。但是从具体的实际情况来看，中国对国际社会对朝制裁所持得反对立场，表现了其更加强化与朝鲜经济合作的意图。这表现了中国的现实主义思考。中国不像美国和韩国那样主张以无核化为先的政策方向，而主张以朝鲜半岛的安定为先的政策方向。

总的来说，韩国和美国对中国过分的依靠和期待对朝核问题的解决没有什么帮助。为了解决朝核问题，美国和韩国增加与朝鲜直接接触的机会才是更现实的。而且，韩国不应该通过北京与平壤交流，而应该直接与平壤交流。这符合当事者的立场，也是解决问题的最佳途径。

# ‘북핵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과 동북아의 미래

정기열 중국 청화대 겸임교수, 중국사회과학원 초빙연구원

## 1. 들어가는 말

중국 북경대 공경동 교수와 한국 서강대 정영철 교수는 ‘북핵문제’ 본질이 ‘북미대결구도의 산물’이라는 시각을 큰 틀에서 공유하고 있다. 본 토론발제는 두 교수의 기본시각에 적극 동의하면서 동시에 북핵문제 해결방식과 관련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견되는 향후 중국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려고 한다.

이번 학술회의에 참가한 중국학자들을 비롯해 동북아의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북중관계가 결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돕거나 혹은 받는 주종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지난 3년동안 중국에서 접한 정부, 당, 국가의 중요연구기관들과 주요대학들의 학자·전문가들은 향후 북중관계가 지난 60년이 그랬듯 “우의 친선 상호존중에 기초한 대등한 전략적 연대협력관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둘의 관계는 두 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 지속적인 경제발전 등 모두를 아우르는 광의의 지정학적 측면에서 지극히 ‘상호적’이라는 주장이다.

‘북핵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주목 속에 부침과 혼란을 거듭하던 북중관계는 지난 10월 원자바오 총리와 11월 량광례 국방부장 등 중국의 당, 정, 군 최고위급 인사들의 방북과, 역시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북의 당, 정, 군 고위간부들의 연이은 북경방문 등을 거치면서 60여 년 큰 틀에서 유지됐던 ‘상호존중에 기초한 대등한 전략적 친선우의동맹관계’로 복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엔대북제재 1874호 발동 이후 일정 기간 혼란과정을 거치긴 했지만 결국 과거의 북중 혈맹관계로 다시 복원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국은 오늘 북핵문제 해결방식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중요한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다.

한국과 중국 또한 수교 17주년을 맞으며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시키면서 또 다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급변하는 몇 가지 상황들과 여건들이 먼저 서울에서, 내년 초와 봄에는 북경과 평양에서 모두 세 차례의 준비대화를 갖고, 내년 가을 북경에서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학자들 모두가 참가하는 첫 '동북아평화학술회의'(Northeast Asian Scholars for Peace: NASP)를 개최하여 동북아학자·전문가들 사이의 정기적 대화를 중장기적으로 지속시켜나가는 제안을 하게 된 하나의 핵심배경이다.

## 2. 문제의식과 주장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교수의 발표와 북미관계, 북중관계를 중심으로 북경에서 평소에 강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쟁점들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쟁점1 북핵문제의 본질 :** '북핵문제는 반세기를 넘기도록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는 북미대결구도의 산물이다.'

'북핵문제'로 대표되는 북미 간 정치군사적 대결구도의 배경과 원인은 중동의 경우 이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자는 이란핵문제로 불리는 이란-미국·서방간의 해묵은 정치군사적 갈등과 대결이 중동지역 전체의 석유자원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관철시키려는 미국·서방세력의 패권전략에서 빚어지고 있는 배경과 본질에서 같다. 중동지역과 같은 맥락에서,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패권지배전략을 관철키 위한 미·일·한 3국 동맹체제의 대북전략은 북한체제의 붕괴를 궁극적 목적으로 갖고 있다. '북한붕괴'는 결국 미국주도의 3국 동맹체제가 한반도 북녘에까지 군사정치경제문화 종교 및 자원 측면에서 자신들의 패권통치와 지배질서를 확장함을 의미한다. 북한체제와 제도, 경제, 일반시민들의 삶과 생활을 극단적으로 피폐케 하고 낙후시키는 한편 북을 국제적으로 고립무원의 처지로 내몰아 체제를 약화시켜 붕괴를 유발키 위한 미국주도의 대북 와해전략에 서방과 유엔조직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가들이 충실히 복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지속적인 미국주도의 합동군사훈련과 온갖 형태의 군사위협을 통해 북의 경제와 사회전반의 시스템을 서서히 몰락시켜 궁극적으로 북한체제의 급격한 붕괴를 목적하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1990년 대 소련연방을 급격히 붕괴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미소간의 무한군비경쟁이 북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논한 몇 가지 주장과 쟁점들에 근거해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의 적지 않은 학자, 전문가들은 북핵문제를 '반세기를 넘기도록 미국이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대북적대정책의 결과'라고 정의하는데 크게 이견을 달지 않는다.

**쟁점2 미국의 협상전략 :** '지난 20여 년 소위 북핵문제가 해결기미를 보일 만 하면 미국은 또 다른 한편에서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 등 세상의 거의 모든 독립적인 성격의 반제자주국가들에게 전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는) 소위 위조지폐, 인권문제, 민주주의, 종교자유 카드를 내밀어 오히려 북핵문제의 근본해결을 의도적으로 저해하곤 했다.'

지난 60여 년 동안 미국은 소위 'Soft Power' 범주에 속하는 선전매체, 즉 사상통제와 대중여론조작을 전담하는 대표적 도구로 언론매체를 장악해 북을 정치·경제·사회·이념(반공)·문화·종교적으로 끝없이 '악마화'(demonization)했다. 노암 촘스키 MIT대 교수는 이를 군사작전교본에 나오는 일종의 심리전(Psychological Warfare)이라고 정의한다. 윌리엄 엔달(William Engdahl)은 그의 최근 저서 'Full Spectrum Dominance'에서 이 문제를 '인



권의 무기화' ('Weaponizing Human Rights')라고 정의했다. 미국은 물론 일본 또한 위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의 과거 정권들이 '납치문제'를 구실로 북핵문제 해결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장애를 조성했던 예는 또 하나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쟁점3 미국의 궁극적 목표 :** '미국 주도의 대북고립외해전략의 실제 핵심목표에는 북한체제의 와해 이외에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포위전략도 포함되어 있다.'

필자는 '북핵문제'를 미국의 대중전략을 포함한 대동아시아전략의 핵심카드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의 북핵카드가 그들의 궁극적 목표인 북한체제의 와해 이외에도 북중 간 전통적인 전략적 친선우의동맹관계를 깨뜨리려는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즉 미국이 북핵카드를 통해 자신의 대중포위전략을 완결함과 동시에 나아가 동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지역 전체, 특별히 석유 및 천연가스자원들에 대한 자신의 패권적 지배를 관철시키려 한다는 주장이다.

적지 않은 수의 중국학자, 전문가들은 북중관계가 (지난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평양방문 직전까지) 과거 '친선우의동맹' 혹은 '혈맹관계'에서 '북핵문제' 해결방식을 놓고 극심한 갈등과 대립, 불신관계로 전략할 뻔했던 현실을 놓고 '중국이 미국의 대동아시아전략, 직접적으로는 대중전략에 말려든 것과 같다'고 지적한다. 특히 그들은 1960년대 중 후반 중국이 핵개발을 강행했던 당시 미국·서방주도의 중국봉쇄전략에 사회주의 이웃이었던 소련이 가담했던 쓰라린 역사적 경험에 기초해서 '북의 핵개발을 일방적인 미국의 패권적 대결구도에서 부득이하게 빚어진 자구책'이었다고 이해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북중관계가 만약 대립과 갈등, 불신관계로 전략할 경우 중국자체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제는 물론이고 자국을 포함한 동북아전체의 평화와 안전 또한 결코 담보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북중관계가 잘못될 경우 이것은 양국 모두에게 '재난'으로 될 것이라고까지 경고하는 중국학자도 있다.

끝으로 그들은 미국주도의 3국 군사동맹체제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전보다는 동북아국가들에 대한 MD(미사일방어망)체제확산, 즉 미국군산복합체(MIC)의 이해관계를 확대,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북핵문제'를 빌미로) 동북아에 끝없는 군사긴장과 분쟁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적대적이고 패권적인 미국의 대북 외해전략이 근본적으로 종식되어 북미간에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비롯해 불가침조약의 체결과 나아가서는 공식외교관계수립을 통한 관계정상화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병행되지 않는 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 지속적인 경제발전과제 등은 요원한 이야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 3. 맺는 말

미국은 1990년대 초 소련체제의 와해를 시작으로 1990년대 내내 진행된 동구권의 급속한 붕괴과정을 거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포위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상호협력과 연대(예, 상하이협력기구: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저해하기 위한 세계패권전략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56개의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십 수개의 나라들과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이웃나라들과의 친선우의관계는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중국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이 문제가 미국에게는 역으로 대단히 좋은 카드로 이용될 수 있음을 지난 시기의 중미관계사는 증언하고 있다.

국제위기관리(International Crisis Group: ICG) 아시아 사무소는 11월 2일자 내부정세분석보고서에서 중국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 중국내부에 북핵문제와 관련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위 '전략가들'(strategists)과 '중국의 전통적 이웃에게 정치경제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통론자들'(traditionalists) 간의 심각한 일종의 내부사상투쟁(토론)이 있었음을 전했다.

이러한 논쟁을 거쳐 추구되는 중국 정부의 향후 대북관계 성격과 형식, 내용은 중국정부가 주창하는 '상호존중하며, 조화롭게 협력, 상생(win-win)' 하는 더 나은 미래인류사회를 창출하는데 있어 앞으로 중국이 어떤 역할을 어떤 원칙에서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中国在处理‘朝核问题’ 中所起作用及东北亚的未来

郑己烈 中国清华大学兼任教授/中国社会科学院聘任研究员

## 1. 前言

对于“朝核问题”的本质实为“朝美对抗的产物”这一问题，中国北京大学教授孔庆东 和韩国西江大学教授 郑英喆 有着相同的看法。本研究在同意两位教授的基本观点的基础之上，以中国对一些问题的处理方式上所产生的影响为出发点进行研究讨论，比如，朝核问题的解决方案以及对相关的朝鲜半岛地区乃至整个东北亚地区所产生的影响。

参加这次学术会议的很多中国学者，以及东北亚不少的专家学者关于中朝关系都有着一致的评价，即最终会有一方将另一方“单方的提供支援或者不存在给予接受的主从关系”。然而过去的三年里，无论是中国政府，共产党，国家重要研究机构，还是各大院校专家学者都对今后的中朝关系有着这样的评价，像过去的 60 年一样朝中两国“在友好亲善相互尊重的基础之上，保持着平等互利的战略伙伴关系。”朝中两国关系十分重要，它关系到包括两国在内的东北亚地区的和平，安全以及持续经济发展等等方面

广范围的利益，甚至可以说是“相互的”利益关系。

围绕着“朝核问题”的解决办法，国际社会引起了广泛的关注，中朝关系自 10 月温家宝总理和 11 月国防部长梁光烈等中国党政军最高领导人访朝，以及同期朝方党政军领导者对于北京的访问开始，可以看出两方一直保持着“友好亲善相互尊重的基础之上，保持着平等互利的战略伙伴关系。”

联合国对朝制裁政策 1874 号颁布以来，在一定程度上遏制了混乱的局面，不过结果还是依赖于中朝关系来解决，因此中国也成了当今世界上解决朝核问题以及相关国际社会关系的重要的示范者。

中韩建交 17 年来，两国保持着良好的“战略合作伙伴”关系，双方也共同期待着更加美好的未来。

基于这些东北亚地区剧变的情况，首先在首尔，明年年初和春季分别在北京和平壤举办对话活动，明年秋季将在北京举行第一届“东北亚和平学术会议”(NASP)，届时参加会议的有美国，日本以及俄罗斯等国。此会议的核心背景之一为东北亚专家学者间的关于各国今后长期合作发展的议案。

## 2. 问题意识及主张

下面来介绍两篇教授的文章以及以朝美关系，中朝关系为中心在北京进行的课堂讲义内容，这些内容都围绕着一些争论而展开。

**论点 1 朝核问题的本质：**“朝核问题是跨越了半个多世纪，美国单方强调的朝美对抗的产物。”

以“朝核问题”为代表的朝美政治军事上的对抗产生的背景和原因同样适用于中东的伊朗情况。前者因伊朗核问题引发的伊朗—美国之间的政治军事方面的冲突，以及美国对于中东地区所有石油资源的支配占有权，从西方霸权主义这一层面来看，两者的本质是一样的。与中东地区相似，美国也将在东北亚地区的霸权主义在美，日，韩三国同盟体的对朝战略就是以使朝鲜体制崩溃瓦解为最终目标。“朝鲜崩溃论”就是指以美国为主导的三国同盟将霸权用于军事、政治、经济、文化、宗教以及资源等方面，并对其产生进一步的支配作用。一方面将朝鲜的体制制度，经济，普通民众的生活推向极端，使其落后。另一方面将朝鲜置于孤立无援的处境，让它的体制制度慢慢弱化直到崩溃。美国会联合西方各国以及联合国里的美国同盟国一起对抗朝鲜。

特别是美国通过持续不断的协同军事训练以及形式多样的军事威胁，一步步促进朝鲜的经济和社会系统的没落以至最后彻底崩溃。这意味着 1990 年美国对苏联联邦的急速摧毁使其崩溃产生的作用也将同样适用于朝鲜。

根据上述的有些论点和主张，对于已超越半世纪的“朝核问题”是美国一方强制实行的对朝政策的结

果这一观点，包括美国在内的东北亚为数不少的专家学者并没有提出太大的分歧意见。

**论点 2: 美国的协商战略：**“在过去的 20 年间，对于所谓的朝核问题的解决方案，美国（一直适用于古巴，伊朗，委内瑞拉等国）用的都是所谓的假币，人权问题，民主主义，宗教自由等王牌，不过这些对于朝鲜核问题得根本解决好像都没起到什么实质的作用。”

过去的 60 多年里，美国用所谓的“软实力”范畴内的宣传媒体，也就是对朝鲜进行思想制裁并通过大众舆论媒体对朝鲜的政治，经济，社会，观念（反共），文化和宗教进行从未间断的“恶魔化”般的干涉。麻省理工大学的教授乔姆斯基认为，这是一种来源于军事的心理战。William Engdahl 在最新的著作《*Full Spectrum Dominance*》中提出，这个问题就是“人权的武器化”。对于这样的评价，美国以及日本自然而然的处在了被动的地位。一个很好的例子就是，日本过去的政权中也存在着“绑架问题”，这些也对于处理朝核问题产生了很大的阻碍。

**论点 3 美国的终极目标：**“以美国主导的对朝瓦解战略的实际核心目标在于不仅仅要瓦解朝鲜的体制，也包括了对中国以及俄罗斯的大东亚战略。”

对于这种认识，美国的朝核王牌在于不仅仅将终极目标锁定在朝鲜制度的瓦解上，而且还要瓦解朝中保持的长久的战略亲善同盟关系。也就是说，美国通过朝核这张牌，将自己对中国的战略政策更加完善的同时，更进一步的将包括东亚的其他地区，特别是拥有丰富石油天然气资源的国家进行霸权性的支配活动。

很多中国专家学者都认为，中朝关系（今年 10 月温家宝总理访问朝鲜前）从过去的“亲善友好的同盟”关系到了现在面临的“朝核问题”的解决方案，这个过程中产生了矛盾和对立，甚至差点陷入了不信任的关系。中国也成为了美国大东亚战略政策的对象之一。尤其是 20 世纪 60 年代以来，随着中国的核开发，美国等西方国家将对以苏联为基础的社会主义国家中国进行崩溃战略，可以说“朝鲜的核开发是对美国霸权主义不得已的自救政策。”另外，他们强调，如果中朝关系一旦形成对立局面，不仅仅对于中国自身的发展不利，对于东北亚地区的和平和安全也一定会产生一定的威胁。也有的中国学者警告说，中朝关系恶化的情况会对两国都产生“灾难性”的损失。

最终，比起包括朝鲜半岛在内的东北亚地区的和平和安全，以美国为主导的三国军事同盟体将对东北亚国家实行 MD（导弹防御系统）体系扩张，即美国军事工业复合体（MIC）为了扩张和维护其利害关系，反而会对东北亚产生不间断的军事紧张气氛，也可能促进他们之间的纷争。

美国对朝的敌对而又霸权的瓦解政策已经从根本上结束了，以朝美之间签订的休战协定来处理和平协

以便给包括朝鲜半岛在内的东北亚地区以真正的和平和安全，持续性的经济发展才是眼前的当务之急。

### 3. 结论

美国从 20 世纪 90 年代前苏联体制的瓦解开始，在整个 20 世纪 90 年代，东欧圈经历了急速的崩溃瓦解的过程，不仅包围了中国和俄罗斯的军事方面的力量，而且为了阻碍中俄之间相互合作的关系(比如，上海合作组织: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世界霸权主义开始崭露头角。尤其是中国这种情况，中国由 56 个民族组成，而且周围与数十个国家接壤，不能不说中国与这些国家之间的友好关系对中国战略上有着非同寻常的意义。

这一对于中国极为不利的事情，在美国看来却是一张王牌。他们利用这张牌在过去一段时期里操纵者中美之间的关系。

国际危机管理集团（ International Crisis Group : ICG）亚洲办于 11 月 2 日曾发表内部局势报告称，所谓的“战略家”认为对与中国国内的朝核问题相关的事项“需要加强制裁”，有些“传统论者”主张“要跟中国传统上的邻居继续保持着政治经济上的支援关系”，两者形成了激烈的关于内部思想的论争。

经过了如此激烈的争论，中国政府在今后的对朝关系的形式以及内容上都主张“本着相互尊重的原则，和谐互利，实现双赢”，更进一步讲，就是为了创造美好未来，中国应找出一个基准，这个基准将适用于中国今后会担当怎样一个角色，会以什么样的方式和原则来实行一系列的问题的一个判断的标准。

# 북핵문제의 해법과 중국-정영철에 대한 토론문

이찬우 사사가와평화재단 범아시아기금 자문역, 도쿄국제대학대학원 경제학연구과 비상근 강사

## 1. '북핵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한 토론

- 발표자가 '북핵문제'의 직접적 원인을 "북-미간 신뢰의 충돌"에서 찾고 이 양자간 불신의 기인을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에서의 냉전 체제의 불완전한 청산"으로 분석한 데 대하여 기본인식에서 동의함
- 발표자가 미국의 입장에 대해 "북핵문제"를 '국제화'하여 이 과정에서 국제법의 위반자로서의 북한에 대한 처벌을 앞세우는 '북한문제'로 문제의 본질을 변질시켜 국제적인 압력을 통해 북한의 체제변화를 의도하였다"고 본 데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함
- 발표자가 북한의 입장에 대해 "북핵문제"의 본질이 '북한과 미국의 적대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해결 역시 북한과 미국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분석한 데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동의함

### • 토론

#### ① '북핵문제'의 용어설정에 대하여

발표자: "한반도의 비핵화가 단지 '북한의 핵'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한반도 전체의 핵문제 및 동북아시아의 핵문제, 미국의 핵우산 문제 등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의 문제와 북미관계정상화, 나아가 주한미군의 문제 등도 필연적으로 논의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본질적인 핵심은 북미간 직접 협상과 두 나라의 관계정상화의 확고한 전망만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점이다."(발표문 중 <들어가며>)



에서)

→ ‘북핵문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현실의 문제는 ‘북핵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핵문제’로 되어야 최종목표도 ‘한반도 비핵화’로 설정될 수 있다. 문제해결의 입구에서 ‘북핵문제’를 설정하고 출구에서 ‘한반도 비핵화’로 설정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구도를 인정하는 꼴이 될 우려가 있다. ‘북핵’의 문제가 북한과 미국의 적대관계에서 나타난 북의 대응양식이라면 ‘북핵문제’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 문제 대상을 설정하는 입구에 ‘한반도 핵문제’, ‘한반도 정전체제 문제’를 놓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미국 및 주변국의 대처라는 과정(프로세스)으로서 분석해야만, 문제해결의 출구에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북미관계 정상화’라는 구도가 나올 수 있다. 발표 주제가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제기로 되어야할 것이다. ‘북핵’은 북한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처방식으로 만들어 낸 결과라는 관점에서 ‘북핵’의 원인제공 인자를 ‘문제’로 설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 ② ‘북핵’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

북한의 입장에 대해 발표자가 ‘북핵문제’의 본질이 북한과 미국의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그 해결 역시 북한과 미국의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설명한데 대하여, 그 적대관계가 북미직접협상을 통해 청산되면 북핵도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로 보이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옳고 부분적으로는 옳지 않을 수 있다. 한반도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처방식으로서 나온 것이 ‘북핵’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면, 북핵의 출구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물론 북미관계 정상화는 그 가장 중요한 과정이지만, 북미관계 정상화가 한반도문제 해결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에 다름 아니다. 북핵이 이 목표에 어떠한 대답을 주고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북한에게 있어서 북미관계의 외교적 정상화가 갖는 힘과 목숨줄 같은 북핵이 갖는 힘 사이에는 등가교환할 수 없는 비대칭 관계가 있다. 북한의 입장을 더 멀리 내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2. 해법 틀로서의 ‘6자회담’ 위상에 대한 토론

- 미국의 의도에 대해 : 동북아시아에 냉전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미국의 군사안보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하에 북한의 대응을 문제화하고 국제적 압력을 구사하기 위한 틀로서 본다면, ‘6자회담’이 미국의 입장에서 “‘불량국가’를 효율적으로 통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발표자의 분석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함

### • 토론

냉전적 사고의 결과물로서의 ‘6자회담’이라는 측면과,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성격의 결과물로서의 국제적 협의틀이라는 측면 사이에 그 메카니즘과 실용성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그 메카니즘에 반발하고 있으며 ‘6자회담’에 대하는 입장은 북-미 양자간 대화를 보장하는 틀로서의 인식에 국한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냉전적 지배틀이 약화되어가고 있는 세계사적 흐름에서 동북아시아의 국제적 협의틀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6자회담’이 그나마 실용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은 중국이 미국의 냉전적 지배구조에 편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 중국을 소련의 대체물로서 보지 않고 전략적 동반자로서 대응하는가 어떤가 하는 문제



가 '6자회담'의 위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6자회담'의 잉태와 진행과정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보다는 향후 동북아시아에 국제적 협의틀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와 전망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즉,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로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논의틀로서의 지역협력체의 구상으로 질적인 변화가 가능한가, 이에 대해 중요한 당사자인 중국과 북한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본다.

### 3. 중국의 역할에 대한 토론

- 발표자가 “중국의 역할은 정직한 혹은 충실한 중재자로서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기한데 대하여 부분적으로 동의함

- 토론

중국에 대해 정직한 역할을 주문한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주문한데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국제관계에서 어느 나라도 충실한 중재자임을 자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때 일 뿐이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우호친선 관계라고 해서 중국이 북한의 정책과 미국의 정책 사이에 중재자로서는 것은 본질상 어렵다. 지배개입을 할 수 없을뿐더러 중재도 할 수 없는 관계가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중국의 국익에 따라 지역협력을 추구하는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에 참여하는 것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입하거나 중재하거나 하는 위상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이 중국의 국익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은 중국의 그 행동이 한반도의 평화에 이익이 되는 것인가 어떤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남-북의 관계 증진과, 북-미의 관계증진, 북-일의 관계증진 등과 더불어 중국이 동북아의 공동체성을 향상하는데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외교관계를 추구하기를 바란다. 중국은 이미 대나무 장막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국가도 아니며, 개혁개방의 단계를 지나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파워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에게 뭘가를 요구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정도이거나 아니면 북한이다. 중국이 북한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 对于《朝核问题的解决方法和中国》—鄭英喆 的讨论文

李燦雨 笹川 和平財団泛亞基金 顧問, 東京國際大學研究生院 經濟學研究系 兼職講師

## 1. “朝核问题”根本原因的讨论

- 报告人在“朝美对抗”中寻找“朝核问题”的根本原因，把两国之间不信任的原因分析为“东北亚，特别是朝鲜半岛的冷战体制的不完全清算”。我在基本同意这一观点。
- 报告人认为，在美国的立场上，美国意图“朝核问题”成为“国际化”，在这一过程中，利用对违反国际法的朝鲜进行惩罚的所谓“朝鲜问题”改变问题的本质，通过国际压力使朝鲜的体制发生变化。我完全赞同此看法。
- 对于朝鲜的立场，报告人分析道，因为“朝核问题”的本质是“朝鲜和美国的敌对关系”，所以也应该由美国和朝鲜通过直接的协商来解决。对这一看法，我部分同意。

### ● 讨论

#### ①关于“朝核问题”的用语设定

报告中说到，朝鲜半岛的无核化，不只局限于“朝鲜的核”问题，朝鲜半岛整体的核问题，东北

亚的核问题和美国的核保护问题，以及朝鲜半岛和平体制问题，朝美关系正常化，更进一步的驻韩美军问题等都必然会成为讨论的对象。尽管如此，解决问题的核心还是朝美之间的直接协商和两国关系的正常化。（报告文的《引言》中）

→ 关于“朝核问题”的设定：现实的问题如果不是“朝核问题”而是“朝鲜半岛核问题”，最终目标才能设定为“朝鲜半岛无核化”。在开始时将对象设定为“朝核问题”，在解决时却变成了“朝鲜半岛无核化”，让人担心有承认美国的战略构想的倾向。如果说“朝核”的问题是朝鲜在应对朝美敌对关系时产生的，那么“朝核问题”这一用语并不恰当。在设定问题对象的时候，把问题设定为“朝鲜半岛核问题”、“朝鲜半岛停战体制问题”，并分析朝鲜如何应对这些问题，美国以及周边国家的应对措施，有了这一过程，在解决问题的时候，才能出现“朝鲜半岛无核化”、“朝鲜半岛和平体制”、“朝美关系正常化”等构想。虽然可以看成这是因为发表题目是《朝核问题的解决方法》而产生的现象，但是我认为应该提出更加本质性的问题。“朝核”是朝鲜应对朝鲜半岛问题的方式，从这一原因来看，把“朝核”原因提供的因子设定为“问题”是合适的。

## ②朝鲜对于“朝核”的立场

对于朝鲜的立场，报告人认为，因为“朝核问题”的本质是“朝鲜和美国的敌对关系”，所以也应该由美国和朝鲜通过直接对话来解决。这一观点中包含着这种敌对关系如果通过朝美对话得以清算，朝核也可以得到解决的逻辑。我部分赞同此观点，但是我认为这种观点也有一部分是错误的。“朝核”是朝鲜为应对韩半岛问题而采取的方式，如果以这一认识为基础，朝核问题的解决应该与韩半岛问题的解决直接相关。虽然朝美关系正常化是其中一个十分重要的过程，但是我认为朝美关系正常化并不是韩半岛问题解决的最终目标。其最终目标正是韩半岛的和平自主统一。朝核对这一目标给出什么样的答案是非常重要的。对于朝鲜来说，朝美关系正常化所具有的力量和像生命一样的朝核所具有的力量，这两种力量是不能等价交换的不对称关系。我认为我们是不是有必要进一步研究朝鲜的立场。

## 2. 对于作为解法框架的六方会谈的地位的讨论

●关于美国的意图：报告人分析说，在维持东北亚冷战体制符合美国军事安全利益的认识下，美国为了把朝鲜的应对问题化，对其施加国际压力而构建了六方会谈框架，如此看来，在美国的立场上

六方会谈是其统治、调整“不良国家”的手段。我基本上赞同这一分析。

- 讨论

“六方会谈”作为冷战思考的产物，作为朝鲜半岛问题的国际对话框架，在这两个层面之间，在它的结构机制和实用性之间发生了巨大的背离。朝鲜排斥这种机制，局限地认为“六方会谈”只是保障朝美两国之间进行对话的框架。另一方面，在美国的冷战支配框架正逐渐弱化的国际历史潮流中，以及在东北亚不存在一个国际对话框架的现实情况下，“六方会谈”能够具有实用性，是因为中国并没有加入美国的冷战支配结构。美国的奥巴马政权是否不把中国当做苏联的替代品，而是作为战略伙伴来应对，还是用其他方式来应对，这是决定“六方会谈”框架地位的关键。从这种意义来说，在这一时期，比起讨论和评价“六方会谈”的进行过程，更加重要的是讨论和展望如何建立东北亚国际对话框架。即，不仅仅把“六方会谈”作为解决“朝核问题”的框架，而是作为东北亚合作和调整的讨论框架。这一地区合作体的构想能否有质的突破在于作为重要当事者的中国和朝鲜的认识。

### 3. 对于中国作用的讨论

- 报告人指出“中国应该作为正直和忠实的仲裁者在朝核问题的解决中发挥作用。”我部分同意他的看法。

- 讨论

认为中国应该发挥正直的作用这一点，我完全同意，但是中国作为仲裁者的作用，我有一些不同的想法。在国际关系中，无论哪一个国家，只有在有助于本国利益的时候，才会自居为忠实的仲裁者。因为朝鲜和中国的友好亲善关系，而让中国在朝鲜的政策和美国的政策之间作为仲裁者，这在本质上是非常困难的。不能支配干涉，甚至连仲裁都不能做的关系是现实。

中国唯一能做的是根据国家利益追求地区合作；如果朝鲜半岛的和平和安定有助于中国的国家利益，中国就会为了构筑朝鲜半岛和平体制而参与国际合作。中国不是为了解决朝核问题而干进行干涉或者仲裁，而是为了构筑东北亚和平体制，做出符合国家利益的行动。韩国和朝鲜应该判断中国的行动是否有利于朝鲜半岛的和平。希望在增进朝韩关系，朝美关系，朝日关系的同时，中国能够向着有利于提高东北亚共同体性质的方向构建外交关系。中国已经不是闭塞落后的国家，通过改革开放，中国正作为国际社会的一员和强大的领导者发挥着作用。能对中国提出要求的国家要么是像美国一样的强国，要么是朝鲜。中国容易接受朝鲜的要求这一点也很重要。

## 북핵해결의 원칙과 중국의 역할

김근식 경남대 교수

북핵문제는 단순히 북한의 핵개발 의도를 봉쇄하는 것으로 종결되지 않는 사안이다. 북핵문제는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이를 막으려는 미국 주도의 핵비확산 의지와 충돌에서 비롯된 문제이지만 보다 근원적인 측면에서는 탈냉전기 북미관계 정립이라는 큰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결국 북핵문제는 핵을 카드화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주권보장'과 함께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북한과 '핵비확산'이라는 국제규범을 고수하고 악의 축이자 불량국가 북한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려는 미국 사이의 오랜 대결관계의 산물이다.

지금의 북핵문제가 미국 주도의 비확산 문제와 북한이 주장하는 주권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만큼 그 해결방안은 당연히 '핵비확산 규범'과 '주권존중의 원칙'을 동시에 만족하는 병행 해결에서 찾아야 한다. 즉 북한은 비확산 규범을 수용하여 핵포기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미국 역시 주권규범을 존중하여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체제붕괴용 대북 압박과 적대정책을 철회하는 동시행동의 해법이 최선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은 상호 요구사항을 교환할 수 있는 '거래의 방식'에 동의해야 하고 거래가 이뤄지는 마당이 바로 6자회담과 양자회담이다.

북핵 해결의 한 축인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서는 거칠게 3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첫째는 핵무기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이다. 팔려는 측과 사려는 측의 가격이 맞아야 흥정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6자회담을 통해 협상으로 북미간 상호 요구 사항을 타결하는 것이 바로 이 흥정의 일환이다. 북이 필요로 하는 것과 미국 등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고 서로 거래함으로써 문제를 푸는 방식이다. 즉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듯이 협상장에서 북미가 핵무기의 가격을 놓고 거래가 이뤄짐으로써 북한의 핵무기를 처분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점은 핵무기의 가격이 공정하게 매겨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장에서 형성된 공시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북은 되



도록 비싸게 부르고 미국은 가능한 한 싸게 사려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6자회담이나 북미협상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난항을 거듭하는 것도 바로 이 거래의 어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흥정에 의한 거래 방식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함을 갖는다.

두 번째는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내놓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북한이 도저히 핵무기를 갖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겁을 주거나 협박을 해서 북이 핵무기를 내놓는 것이 갖고 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하는 방식이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에게 각종 다양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로 인한 불이익을 감당하지 못하고 북이 억지로 핵무기를 내놓은 방식이거나 핵무기를 가질 경우 북이 감수해야 할 위험이 매우 크고 치명적임을 인식시켜 북한 스스로 내놓게 하는 방식이다. 제재와 압박을 통한 해결 방식이 이것이다.

그러나 북이 제재의 고통을 감내할 만하고 제재로 인한 북한의 피해가 견딜만한 것일 경우 그리고 북에 대한 압박이 실제 북에게 먹히지 않을 경우 이 방식 자체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실제로 북한은 오랫동안 고립과 제재에 익숙한 체제여서 어지간한 제재로는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게 정설이다. 또 북중관계가 아직은 중국이 북을 포기할 정도가 아니어서 전면적 제재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전쟁까지를 포함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것이라며 북을 한껏 겁박하는 것도 이미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현실이나 대한민국의 정책범위를 감안할 때 우리가 군사적 수단을 선불리 사용하지 못할 것임은 북이 더 잘 알고 있어서 통하기 힘들다.

세 번째는 북한에게서 강제로 핵무기를 뺏어내는 방식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해 직접 후세인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북한에 들어가 북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제거하거나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북한 지도자를 축출하는 것인데 이는 곧 전쟁을 감수한 군사행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직접 군사력을 동원하는 강제탈취의 방식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불리 선택할 수 없다. 아무리 보수적인 정부라 하더라도 아무리 강경한 대북 입장을 가진 정부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는 없다. 최악의 대북강경론자였던 김영삼 대통령마저도 정작 클린턴 행정부가 영변 폭격을 준비하고 있음을 뒤늦게 알고 서둘러 말렸던 역사적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결국 전쟁불사의 강제적 핵무기 제거 방식은 우리의 합리적 정책선택 밖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3가지 방식 중 군사력을 동원한 강제 탈취의 방법은 선택 불가능하고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북을 굴복시키는 것 역시 성공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억지로 핵무기를 뺏아올 수 없고 제재 일변도로 북을 굴복시키기 어렵다면 결국은 협상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가격 흥정을 하다가 결렬되어 돌아서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협상의 기술이다.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쉽게 얻기 위해 일정기간 협상을 중단하고 성난 얼굴을 보이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협상의 기술이다. 오랜 제재 국면 끝에 다시 시작되는 북미 양자협상이 바로 이를 증명한다.

북핵문제 해결에서 중국은 북미간 협상 즉 상호 수용가능한 '거래'를 성사시키는 거간꾼이자 흥정꾼 역할을 해야 한다.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북미 양자협상의 중재자이자 촉진자로서 중국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대북제재의 실효성과 관련한 결정적 역할이 중국임도 바로 이 때문이다.



# 朝核问题的解决方法和中国角色

金根植 庆南大学教授, 政治学

朝核问题是简单地封闭朝鲜发展核武器的主张所不能解决的问题。朝核问题虽然从表面上看是朝鲜对发展核武器的意向和美国主导非扩散的意向之间的冲突而导致的问题，但是从根源的角度来看，跟后冷战时期，朝美关系的建立有关。总之，通过朝核问题，朝鲜把核武器当作保障自己主权和安全的手段，相反美国还是把核武器非扩散当作必须坚守的国际规范，而且美国要从根本上转变与“不良国家”朝鲜之间长久的对决关系。因为现存的朝核问题结合着美国主导的非扩散问题和朝鲜主张的主权问题，所以这个问题的解决方案要从核武器非扩散的规范和主权尊重的原则同时满足的方案中找。朝鲜接受非扩散的规范之后，明确地表示了放弃核武器的同时美国也应该尊重主权规范而且保障朝鲜的安全，撤回体系崩溃的对朝鲜的压迫和敌对政策，这一切同一时间进行是有效的。所以，朝鲜和美国应该同意以交易的方式满足双方的要求，这些要求的结合点应该是六方会谈和双边会谈。

朝鲜放弃核武器是解决朝核问题的主要方法，这一点可以分三种方式。

第一是购买核武器的方式。合于卖者和买者的价格双方才能进行交易。到现在，通过六方会谈的协商来妥结朝美之间相互要求就是这交易的一环。朝鲜和美国的要求以一定标准的协和相互交易的方式来解决。与在市场上交易的形式一样，在协商上朝美以武器的价格来交易的形式，出售的朝鲜

的核武器，但是这里的难点是核武器的定价不太公正。这里不像市场一样，没有形成的标准的价格，所以朝鲜要高价，而美国尽量买便宜。到现在，六方会谈和朝美协商有不少曲折，而且反复遇到的困难也是因为这个问题。但是，讨价还价的交易方式是对朝核问题和平解决是有效的。

第二，朝鲜自身放弃核武器的方式。即通过各种各样的方式来让朝鲜不能承受保存核武器的情况或者镇吓或要挟来让朝鲜放弃核武器的方式。给保存核武器的朝鲜施加各种各样的制裁，让朝鲜不能承受非利益而朝鲜不得不放弃核武器的方式，或者让朝鲜意识到如果朝鲜保存核武器时要承受很大的危险，使得不得不放弃核武器，这是通过制裁和压迫来解决问题的方式。但是，如果朝鲜能够忍受对他们的压迫、在制裁下还能继续坚持，仅仅使用这个方式是绝不能解决问题的。实际上，朝鲜已经熟练长久的孤立和制裁，所以一般的制裁根本无效。而且，中朝关系还没有达到中国放弃朝鲜的程度，所以全面的制裁的实效性确实很难实现。使用军事性的选择来压迫朝鲜，考虑国际政治现实和韩国的政策范围来的话，朝鲜更清楚地知道我们不能轻率地利用军事性的手段，所以对解决问题无效。

第三，强制抢夺朝鲜的核武器。美国进攻伊拉克直接消除侯赛因的方式。去朝鲜消除朝鲜保存的核武器或逐出保有核武器的领导者，这已经表示了战争性的军事行动。但是直接出动军事力量来强制抢夺的方式意味着朝鲜半岛的战争，所以不能轻率的选择。多么保守的政府，多么强硬的对朝立场的政府，不能选择冒着韩国生活地的危险去抢夺朝鲜核武器的方式。最坏的对朝鲜强硬者，金泳三总统也是当克林顿政府真的准备轰炸时，劝解美国总统的事情是已经历史性的现实证明。总之，通过战争强迫性的消除核武器的方式不是最合理的选择。

所说的三个方式当中，出动军事力量来强迫夺取的方式是根本不可能，而且对朝鲜制裁和压迫的方式来屈服朝鲜的方式也是成功率低的一种方法。

不能强迫地夺取核武器，又不能通过制裁来屈服朝鲜的话，最终，通过协商来解决问题。价格调整的绝裂而返回在某种意义上讲也表示一种协商的结果。为了贯彻自己愿意的价格，为了容易得到自己愿意的东西，在一定期间中停止协商，表示发怒的态度也是一种协商的技巧。长久制裁的局面在重新开始的朝美双边协商是表明了这些技巧。在解决朝鲜问题上中国是在朝美之间的协商上相互能接受交易的居间人，买卖者的角色。作为六方会谈的东道国，中国的角色就是当作朝美双方协商的仲裁者而促进者。所以中国的角色是对朝鲜制裁的实效性和决定权。

# 북핵해법과 중국의 역할 토론편

박경순 새세상연구소 부소장

북한의 핵개발을 핑계로 90년대 이후 지속되어왔던 북핵문제도 이제 해결을 향한 막바지 고비에 다다른 것 같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미직접대화를 결심해 보스워스 특사를 12월 8일 평양에 보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사의 방북은 북미직접협상의 출발을 의미하고, 미 행정부 당국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북미간 긴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이다. 이번 협상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마지막 협상마당이 될 것이다. 이번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북한은 사실상 핵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차지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한반도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토론회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본다.

발제문에 대한 몇가지 의견을 밝힌다.

## 1. 6자회담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처음 열린 것은 2003년 8월이다. 그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9.19 공동성명, 2.13 합의, 10.3합의 등을 도출하면서 한반도 비핵화과정을 진전시키는데 일정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정영철 교수는 “6자회담에 참여하는 주변국들의 중재역할은 북미협상을 촉진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특히 중국과 한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6자회담이 갖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긍정적 기능과 역할을 해왔다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과연 중국과 한국의 중재 역할이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하는 문제는 보다 엄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영철 교수도 인정했듯이 6자회담에서 합의된 주요 합의 내용들은 사실상 북한의 실력대결에 미국이 굴복한 것이거나, 북미직접협상에 의해 합의안이 마련되고 6자회담에서 추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볼 때 6자회담의 틀에서 이루어진 것이란 사실상 보잘 것 없었던 것은 아닌가? 특히 2008년 12월 6자회담이 파행으로 끝난 이후 회담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6자회담이란 틀이 갖는 한계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협의틀로서 6자회담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국제문제가 아니라 북미관계의 산물이라는 본질에서 볼 때 국제적 협의틀로서 6자회담이 갖고 있는 형식의 부적절성에서 볼 때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2. 중국은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잘 수행했는가?

정영철 교수는 중국과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북미협상을 촉진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한중이 북미핵대결이 물리적 파국으로 치달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이 한반도 비핵화 협상 진전에 일정한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6자회담 틀이 없었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한반도에는 전쟁이 터졌을까? 아니면 북미가 직접협상을 통해 평화적 문제해결에 나섰을까? 이 점에 대해 그 누구도 확실한 답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며, 국제정치학적으로 볼 때 특히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양국간의 관계와 전쟁과 평화 문제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가 양국의 힘의 역관계이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상 6자회담 틀이 없었더라도 북미간의 힘의 역관계에서 북미협상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6자회담 틀이란 미국의 고안품으로서 국제적 대북 압력을 위한 수단으로 탄생했고, 미국의 이러한 목적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봤을 때 6자회담 특히 회담 내에서 한중의 중재역할이란 것도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 3. 북핵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은 공정한 입장에 서야 한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이 의도했던 것만큼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원만히 수행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안보리 제재에 동참한 데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중국이 언행일치를 하지 못한 채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한 것은 북핵문제를 접근하는 중국 지도부의 입장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불평등하고 패권주의적 국제질서의 틀을 인정한 기초위에서 사고하고 행동했다. 그러다보니 확고한 원칙아래에서 일관된 입장을 갖고 대응했다기보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이율배반적인 대응을 펼쳐왔다.

중국이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지금까지와 같은 현상유지적 관점과 입장에서 탈피해 주권존중과 평등의 원칙아래 한반도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올바른 원칙과 방도를 세우고 이에 기초해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분노와 안보리 제재 동참은 스스로 핵개발과정에서 주장했던 원칙과 논리를 배반한 것으로 전 세계 진보적 민중의 비웃음거리로 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 하는 것은 주권수호를 위한 자위적 행위이고 다른 나라가 하는 것은 핵도발이라는 이중기준을 갖고 있는 한 중국은 21세기 세계의 중심국가로서 등장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21세기 세계의 중심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20세기 패권국가들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특징에 맞게 주권존중과 평등의 원칙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질서 수립을 선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덕적 지도적 권위를 획득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았을 때 중국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장 초점은 과연 북핵문제에서 중국이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북중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중국이 21세기 세계의 중심 국가에 걸맞게 강대국의 논리에 빠지지 않고 주권존중과 평등의 원칙에 기초해 진정으로 한반도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올바른 행동으로 일관하고, 이러한 원칙의 기초위에서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한다면 중국은 21세기 세계 중심국가로서 도덕적 지도적 권위를 획득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 朝核问题的解决方法和中国的作用 讨论文

朴敬淳 新世上研究所

90年代以后，以朝鲜的核开发为理由的朝核问题一直持续到现在，如今似乎该到了解决的最后关头了。奥巴马政府决心进行朝美直接对话，已经宣布12月8日派博斯沃思特使到平壤访问。这次特使访朝意味着朝美直接对话的开始。不管美国政府的当局者们如何表现，为了从根源上解决朝核问题，朝美之间长期的拔河将要开始了。这次的朝美对话将成为和平解决朝核问题的最后的希望。这次的协商如果以失败告终，那么朝鲜事实上将会确定其核大国的地位。如此一来，实际上朝鲜半岛无核化就不可能实现了。

从这一点来看，这次讨论会的意义非常之大。

## 1. 六方会谈是成功了，还是失败了？

为了朝鲜半岛无核化，2003年8月进行了第一次六方会谈。从那以后，在迂回曲折之下，推出了9.19共同声明、2.13协议、10.3协议等，在一定程度推进了朝鲜半岛无核化过程。

郑英喆 教授评价说“参加六方会谈的周边国家的仲裁作用在促进朝美对话和提出解决方案上起到了重要的作用…… 特别是中国和韩国的作用非常重要”。如此评价意味着，尽管六方会谈有一定的局限，但是总体上还是一直发挥着肯定的作用。

然而，中国和韩国的仲裁作用究竟对朝鲜半岛核问题的解决起到了多大的作用呢？这样的问题促使我们进行更加严谨的评价。正如 郑英喆 教授指出的，事实上，六方会谈达成的协议的主要内容是美国对朝鲜实力的屈服，或者说，六方会谈只不过是追认朝美直接协商时达成的协议案。这样看来，不得不说六方会谈实际没有什么有价值的成果。特别是 08 年 12 月 6 日 六方会谈搁浅之后，至今没有再次召开的现实清楚得揭露了六方会谈的局限性。

如此看来，作为为了朝鲜半岛无核化而进行国际对话的框架，六方会谈事实上可以看作是以失败告终了。从朝鲜半岛无核化问题不是国际问题而是朝美关系的产物这一本质来看，从作为国际对话框架的六方会谈形式的不适当性来看，可以说这是必然的结果。

## 2. 中国真的很好地起到了公正的仲裁者作用了吗？

郑英喆 教授评价说，中国和韩国的仲裁者作用对促进朝美对话和提出解决方案起到了重要的作用。从而肯定地评价了仲裁者的作用。当然，中国和韩国为了阻止朝美核对决中出现危局做出了努力，这些努力在朝鲜半岛无核化协商进行中起到了一定的积极作用这一点是不能否定的。

但是假设没有六方会谈框架，朝鲜半岛果然会爆发战争吗？或者，朝美会通过直接对话和平解决问题吗？对于这一点，谁都很难给出确定的答案。从国际政治学，特别是现实主义的观点来看，决定两国之间的关系是战争还是和平的决定性要素是两国之间力量关系；在力量原则支配下，即使没有六方会谈框架，从朝美之间力量关系来看，朝美对话也是不可避免的。事实上，六方会谈框架这一创意商品是美国为了对朝施加国际压力的手段，可以说美国在一定程度上已经实现了的这一目的。这样看来，对六方会谈，尤其是六方会谈框架中的中韩两国的仲裁作用也很难赋予很大的意义。

## 3. 在解决朝核问题时，中国的作用应该站在公正的立场上。

中国作为六方会谈的议长国，曾经努力地发挥其公正的仲裁者的作用这是不可否认事实。但是我们很难评价说中国完满地发挥了他所预期的作用。

中国言行不一致，没能完全发挥其作为公正的仲裁者的作用，是因为接近朝鲜问题的中国领导班子的立场本身存在问题。中国是在承认了不平等和霸权主义的国际秩序框架的基础上思考和行动的。这样看来，与其说中国是在固定的原则下持有一贯的立场来行动，不如说是根据情况和条件及利益的不同来行动。

中国想要完满地发挥其作为公正的仲裁者的作用就一定要从维持现状的观点和立场中脱离出来，在尊重主权和平等的原则下，为朝鲜半岛无核化和构筑巩固的和平体制采取正确的原则和态度，并以此为基础进行思考和行动。

中国对于朝鲜二次核试验的愤怒及其参与安理会制裁的行为违反了其自身在核开发过程中所主张的原则和法则，我们应该注意到这正在成为全世界进步民众的笑柄。本国做的事情是维护主权的自我防卫，别的国家做的事情是核挑衅，如果继续持有这种双重标准，中国会丧失其成为 21 世纪世界中心国家的道德权威。

作为 21 世纪世界的中心国家，中国如果想要确立其国际地位，就不应该沿袭 20 世纪霸权国家的形态，而是要倡导建立符合 21 世纪特征的，由尊重主权和平等原则支配的新的国际秩序，从而在这一过程中不断获得道德权威和领导权威。从这一点来看，最大的焦点是中国对朝核问题持有什么样的立场，如何管理中朝关系的问题。中国应该与其 21 世纪世界中心国家的地位相称，不沉陷于强国的逻辑，本着尊重主权与平等的原则真正的致力于构筑朝鲜半岛和东北亚和平体制，并从一而终地坚持正确的行动。如果中国在这种原则的基础上，积极发挥其公正的仲裁者作用，就会获得其成为 21 世纪世界中心国家的道德和领导权威







SESSION 2

미래지향적인  
한중·북중관계의 모색

사회 | **박순성** 동국대 교수 (코리아연구원)

발제1 | Xiong Lei 청화대 초빙교수, 신화통신 편집인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토론1 | Yun Shan 신화통신 자매 영문주간지 편집인  
**주장환** 한신대 교수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정봉주**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 이해 · 존중 · 평등 · 신뢰 미래의 중조와 중한관계를 전망한다

송레이(熊蕾) 칭화대 초빙교수 · 신화통신 편집인

시옹스(雙石) 쓰촨청두(四川成都) 경제방송국 작가<sup>1)</sup>

미래의 중조(中朝)와 중한관계를 전망하는데 있어 삼자의 상호간 이해와 존중, 평등과 신뢰가 아주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모든 국가관계의 기본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특히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배려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북아 관련 당사자들과 국제사회의 주류 관점 중에는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 명확히 실수와 결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북)이 그들 자신의 안보부문에서 합리적으로 요구(需求)하는 것에 대해 특히 필요한 이해와 존중, 평화와 신뢰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조선(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해와 존중, 평등과 신뢰는 필수불가결한 기초와 전제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이해와 존중, 평등과 신뢰에 기초하지 않으면 조선(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1) 본고는 쓰촨청두(四川成都)의 경제방송국 고급 엔지니어인 <개국제1전(開國第一戰)>의 작가 시옹스(저우쥘)의 도움을 얻었고, 그의 관점을 대표합니다. 시옹스의 정신적 노동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시옹스의 동의를 얻어 본문에 저와 그의 이름을 동시에 서명합니다.

## 1. 역사

우리들 사이의 이해와 존중, 평화와 신뢰를 말하기 위해 먼저 개인의 시각에서 역사를 한 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중국과 오늘날의 남북 양국을 포함한 조선의 관계는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멀리는 말할 것도 없이, 근대 중국의 역사에서 조선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중국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중일갑오전쟁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조선정부의 출병요구로 조선에 와 있던 청나라 군대는 평양에서 조선을 침입한 일본군에게 우위를 빼기게 됐고, 그 후 청나라 군대의 북양해군도 해전 중에 전군이 괴멸했습니다. 나약했던 중국 청나라 정부는 완전히 패배했을 뿐 아니라, 일본에게 배상을 해야 했고, 또 타이완을 할양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이후 조선과 중국은 항일투쟁에 돌입했고, 수십 년 투쟁한 끝에 결국 일본을 물리치고 투항시켰으나, 조선(한)반도는 오히려 두 쪽으로 나뉘어 졌습니다. 누가 나눈 겁니까? 조선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닙니다. 바로 미국인입니다. 그들은 편한 대로 그렇게 선을 그었고, 지금의 38선이 생겼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단지 미소군대의 임시 분계선이라는 의미였었지만, 이후에 복잡한 국제정치의 구조 속에서 조선(한)반도의 남북 분리 통치를 의미하는 정치분계선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명확히 38선 양쪽의 조선인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비록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1948년에 연이어 성립되어, 조선(한)반도에 두 개의 정권이 출현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남북 쌍방 모두 조선(한)반도에서 동일 민족의 통일대업을 완성하길 원했습니다. 심지어 무력에 호소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마찰했으며, 결국 '내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북 쌍방의 모순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민족통일을 완성하려는 바람은 동일합니다. 모두 강권정치 바둑판의 바둑알이 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모두 강자가 약자의 운명을 결정하는 국제정치에 대해 저항과 도전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1949년에 신 중국이 탄생됐고, 북쪽 조선은 중화인민공화국을 가장 빨리 승인한 많지 않은 국가들 중의 하나입니다. 1년도 지나지 않아, 조선전쟁(6.25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은 원래 조선민족 '내전'에 속하는 전쟁에 미국군대가 앞장서 개입함으로써 20개국과 지역군대가 휘말린 '국제국지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미군이 압록강 주변까지 올라와 신 중국의 안전에 위해를 끼쳤기 때문에, 중국인민지원군이 출병하여 조선(북)을 지원하도록 압박하였고, 이로써 중국은 이 '국제국지전쟁' 중에 충돌의 한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1950년 말에 태어났기 때문에 항미원조(抗美援朝)는 제 기억에 들어온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들 귀에 익숙해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중조 양국 인민의 우의는 선혈(鮮血)로 응결되어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말은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김일성 주석도 나와 같은 연령의 중국인들에게 가장 빨리 알려진 외국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이후 조선(북)의 천리마운동과 대형 매스게임 등을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면직물 공급이 부족했을 때, 조선(북)의 비날론이 우리들을 도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조선(북)은 우리들의 형제였고, 반면 한국은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인이 된 이후 이 선혈이 응결되어 만들어진 우의가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니며, 순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국인들 중에도 항상 조선(북)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조선(북)이 우리들의 문화대혁명에 찬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았고, 그 후 조선(북)이 우리들의 개혁개방에 찬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았으며, 지금은 조선(북)이 끊임없이 핵실험을 하여 동북아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더욱 달가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 학계의 어떤 이들은 중국이 지원군을 조선(북)으로 출병시켜 항미원조한 것 모두 김일성 주석의 뜻대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조선(북)의 주체사상, 선군노선 등 모든 것에 대해 코웃음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1992년 한국과 국교를 맺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들의 적국이 아닙니다. 양국 관계는 17년

동안 끊임없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으며, 정부 측의 말을 빌리자면, 이미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양국의 경제와 무역은 급격하게 증가해 오고 있으며, 무역액은 1992년 50억 달러에서 2008년 1683억 달러로 증가하여 한일(894억 달러)과 한미(848억 달러) 무역액을 합한 것에 접근하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중국 4대 수출대상국과 2대 수입대상국이 되었습니다. 양국의 인적 왕래도 빈번하여, 매년 500만 명이 왕래하고, 매주 거의 800편의 항공기가 양국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양쪽을 비교해 보면, 비록 중국과 조선(북)도 고위층의 왕래를 유지하고 있고, 문화교류도 존재하지만(특히, 중조우호 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적어도 2021년까지는 지속될 것이지만), 중한관계와 비교하면 중조관계는 다분히 한산합니다. 양국(중조)무역은 변경무역을 중심으로 하여, 2008년 무역 총액은 많아야 15억 달러로, 중한무역의 뒷자리 수치와 비교해 봐도 몇 배나 부족합니다. 이렇게 소량의 무역은 감히 언급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선(북)의 핵실험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의 비난은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록 10월에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조선을 방문한 후 중국 정부의 태도가 6월의 비난 태도에 비해 조금 완화되었고, 양국관계가 표면상으로도 다소 활기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한국과 교류하는 것처럼 그렇게 활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래 중국 민간에 끊임없이 한국 붐이 일고 있고, 많은 한류(韓流)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북) 붐 또는 조류(潮流)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과 조선은 비록 국교를 수립한지 60년이 됐고, 각별한 역사관계를 갖고 있지만(역사는 우리들의 피가 함께 흐르게 하고, 중조우호협력상호조약도 우리 양국을 맹우(盟友)로 만들었지만), 중국 정부와 매체가 조성하는 여론, 특히 중국이 의외로 조선(북)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인정한 것은 이미 선혈(鮮血)이 응결되어 맺어진 우의를 크게 식게 만들었습니다. 근래 들어, 특히 최근 십 수년 간 대다수 중국인들은 사실상 조선(북)에 대해 부정적인 면에 편중된 여론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언론매체는 조선(북)에 대해, 설사 가장 중립적인 보도라고 할지라도 조선(북)을 신비(불가사의)한 국가, 두꺼운 베일에 덮여있는 국가로 묘사합니다. 가끔 조선(북)을 정면으로 소개하는 한 두 편의 보도가 있는데(최근 중국 《청년보》가 조선에서의 유학 경험이 있는 한 중국청년에게 한 인터뷰와 같이), 여기서는 '조선(북)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한 국가'라고 말하며, 의외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통사람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나라라고 느끼게 합니다.

반면 중국과 한국은 국교를 수립한 지 17년이 되었고, 관계가 이미 전략적 협력 동반자까지 상승했습니다. 비록 중국은 평화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고, 또한 조선(한)반도의 어느 한 쪽과의 교류가 다른 한 쪽의 이익에 손해를 주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근래 남북조선(한)에 대한 실질적인 교류를 보면 한쪽은 차갑고 한쪽은 뜨거워 아주 선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2. 문제 제기

간단하게 역사를 되돌아 봤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조선(북)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4차례 가봤는데 인상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조선(북)과 한국의 정치 모두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하고 있지 않고, 연구도 부족합니다. 단지 제가 접한 정보들에 근거하자면, 한국의 민중은 이승만·박정희 정권에 동의하지 않았고, 현재의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태도가 전임 대통령만큼 우호적이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충분하지 못한 이해를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한국은 이승만·박정희 통치 하의 한국과 이미 다르



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많은 한국의 훌륭한 분들이 한국정치의 민주화를 위해 일생을 분투하여, 조선(한)반도 남북 양쪽 민중의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친구들이 저의 문제 제기를 한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것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선(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에서 모든 조선(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접해 봤는데, 모두 아래의 문제 제기에 적절한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어쩌면 조선(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진 정상적인 사유능력을 가진 중국인이란 누구나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느끼고 있는 것으로, 중국 정부가 진심으로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건설하고 발전시키길 원하는가 입니다. 중국과 한국도 의심할 여지없이 좋은 무역 파트너이고, 게다가 많은 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핵심 정책 결정권자들이 진심으로 중국을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여기고 있을까', '진심으로 중국을 자기편으로 여길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와 비슷하게 몇 년간 중국의 많은 지도자들과 학계인사들은 줄곧 미국과의 건설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 진정으로 미국의 핵심 정책 결정권자들이 어떤 성질의 전략적 동반자인 중국을 자기편으로 여기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의 머리에 분명 이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설령 한국과 미국의 핵심 정책 결정권자들 모두가 우리들(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여기고 자신들의 친한 친구로 여긴다면, 어째서 한국은 단지 미국하고만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중국과는 이런 훈련을 한 적이 없었던 걸까요? 당연히 어떤 이는 조선(북)을 자극하는 것을 우려해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조선(북)은 동맹조약을 맺고 있고, 평화를 목적으로 한 군사연습은 당연히 조선(북)의 양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러한 장애(조선의 우려)를 극복할 수 있다면 한국은 중국과 합동 군사훈련을 할 것입니까?

저는 결코 군사훈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기하는 이 문제 즉, 확실히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한국의 핵심 정책 결정권자들이 '중국을 자기편으로 여기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설사 언젠가 중한 양국이 정말로 그런 합동군사 훈련을 한 번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으로 양국이 자기편 수준의 관계를 달성했다고 의미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연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설사 한국의 핵심 정책 결정권자들도 중한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한중관계와 한미관계에 등호(=)를 그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정상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명히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조선반도가 안전하지 못한 요소가 단지 조선(북)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조선(북)은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대역무도(大逆不道)한 도전자가 되었고, 조선(한)반도와 동북아, 넓게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까지 도전했다고 불렸습니다. 중국은 일관되게 조선(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했고,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당시에 한국 측과 조선(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조선(북)이 비핵(非核)에서 유핵(有核)으로 바뀐 것은 단지 표상에 불과하고, 우리들이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하고 추궁하여 거슬러 올라가 찾아내야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원인이 이러한 표상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단지 조선(북)을 비난하고 간단히 제재에 들어가야 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미 증명된 것처럼 비난과 제재 모두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관련 당사자들은 실무를 더욱 충실히 한 기초 위에서 진정한 존중과 균형된 배려, 각 당사자들의 안전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모색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안정되고 균형 잡힌 것이어야지 한 쪽에 치우친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그 메커니즘은 가장 안전하지 않은 한 당사자의 우려를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본이 절대로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데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일찍이 침략 전쟁을 일으켰고, 아시아 인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국제사회는 일본이 무장을 해제하

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근래 일본의 군사력이 줄곧 회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조선(북)에 대해 취하는 어떤 압력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어떤 형식의 국제 경제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일찍이 침략전쟁을 일으켰고, 줄곧 약속을 위반하여 다시 새롭게 무장하고 있는 일본에게는 원칙 없이 관용을 베풀고 눈감아 주면서, 일찍이 전쟁의 피해자인 조선(북)에 대해서는 호되게 압박하는 겁입니까?

어떤 이는 조선(북)이 핵을 갖는 것은 일본이 핵을 갖도록 하는데 구실을 제공하고,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단, 문제는 조선에서 비핵화가 이뤄질 때, 일본이 군사재무장의 수순을 멈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조선(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조선(한)반도의 불안정한 요소라고 한다면, 조선(북)에서 비핵화가 이뤄질 때 조선(한)반도의 안전은 보장될까요? 조선(북)의 안전은 보장될까요? 미국 및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일본과 한국이 조선에 대한 안전을 승낙할까요?

이 문제로부터 세 번째 문제가 떠오릅니다. 조선(한)반도와 관련된 당사자들 중에 누가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은 간단한 제거법을 이용하여 지금 조선(한)반도 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6자 중 누가 가장 안전하지 않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을 봅시다. 미국과 조선(한)반도는 아주 광활한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6자 중 조선반도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조선(한)반도의 작은 변화에 대해 미국본토는 당연히 가장 적은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군이 있고, 세계의 많은 지역에도 주둔군을 두고 있으며, 6자 중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조선(한)반도와 관계가 가장 멀면서도 가장 안전한 당사자입니다. 다만 미국은 38선을 만든 당사자이며, 또한 일찍이 병력을 이끌고 38선에 뛰어 들었으며, 조선의 안전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안전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조선(한)반도에 주둔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중요한 이익상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러시아를 봅시다. 러시아는 지리상으로 미국보다 조선(한)반도에 많이 접근하여 있고, 조선(북)과도 일부분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의 역사를 1991년 소련 해체 이후부터 계산한다면, 그들과 조선(한)반도의 분쟁 사이에는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만약 소련이 조선(한)반도 분쟁과 연루된 역사를 러시아에게 적용한다면, 그들은 일찍이 오늘날 조선(한)반도를 가로막고 있는 38선을 인정하였고, 김일성 주석이 조선(한)반도를 통일하려 한 전쟁행동을 격려한 것 이외에는 과거와 지금을 막론하고 조선(한)반도로부터 어떠한 안전위협도 직접적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6자 중 태도가 가장 초연한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일찍이 거의 반세기 동안 여러 차례 침략전쟁을 일으켰고, 조선(한)반도 전체와 중국의 대만, 동북지역을 점령했습니다. 동북아와 아시아 기타 국가의 인민들에게 무수한 피 값을 빚지고 있습니다. 전후의 일본은 미국의 보호 아래서 그들의 전범인 천황의 정체(政體)를 그대로 남겨두었고, 일본 경제를 신속하게 성장시켰습니다. 일본의 전후 역대 정치지도자들은 그들의 전범 명령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모를 했고, 중국·한국·조선(북)의 많은 전쟁 피해자들을 위해 배상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일찍이 침략전쟁을 지지했던 일본 회사와 재단들은 지금도 계속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과 일본군국주의 세력의 대두는 여러 해 동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찍이 조선(한)반도 안전의 가장 큰 위협이었으며, 지금도 조선(한)반도 안전의 잠재위협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실력으로 조선(한)반도를 파괴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천만다행이나 만약 그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면 이는 곧 아라비아나이트와 같을 것입니다. 일본은 6자 중 유일하게 원자폭탄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하지만 그 두 발의 원자폭탄은 미국인이 투하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일본이 유일하게 경험했던 안전문제는 완전히 미국이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일본은 안보조약을 맺고 있고, 미국의 군사력이 일본의 경제력을 뒷받침하고 있어 일본의 안전은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남은 한국과 조선, 중국 세 당사자는 당연히 6자 중 진정으로 안전문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단 이 3자의 상황은 각각 다릅니다.

먼저 중국을 봅시다. 여기서, 저는 중국중앙민족대학 장홍량(張宏良) 교수의 견해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는 2009년 8월 8일 발표한 <조선-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최후의 울타리(朝鮮包圍中國的最后一道柵)><sup>2)</sup> 중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국 근대사를 되돌아보면 발견할 것이다. 중화민족의 안위와 흥망은 모두 조선과 관계가 있다. 일련의 망국, 멸종, 큰 화를 초래한 갑오전쟁은 조선에서 시작됐다. 일본이 두 번째로 전면적으로 중국을 침략한 전쟁도 조선에서 시작됐다. 50년대 초 전 세계의 눈앞에서 중국인민이 진정으로 일어섰던 것도 조선에서의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에서 시작됐다.”

지리상의 위치가 중조 양국이 이와 입술과 같은 관계가 되도록 만들었고, 현실 역사가 중조 양국을 맹우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국가 안전은 이런 이중관계와 뗄 수 없습니다. 중국이 1950년 조선(북)에 출병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대면해, 많은 중국 국내외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당시 조선에 출병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위해 아직 건국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 중국 지도자는 1개월 동안 심사숙고 한 뒤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만약 같은 사건이 멕시코에서 발생했다면, 미국의 지도자는 5분도 안 돼 출병을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냉전 후 새로운 구조와 직면하여, 서방 주도의 ‘국제사회’의 품에 들어가기에 급급했던 중국학계는 근래 필사적으로 중국을 ‘표백(漂白)’하고, 조선(북)을 냉대하고 있습니다. 애석한 것은 설사 그들이 칼을 휘둘러 궁에서 환관이 된다고 할지라도, 초래되는 결과는 단지 자기로 하여금 내외에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인식은 미국·일본·한국의 신임을 얻어다 해도 한 가족으로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일찍이 자신의 맹우인 조선(북)에게 스스로 우려를 하게끔 만들고, 점점 더 갈라서게 만듭니다. 중국의 다른 학자 양팡저우(楊芳洲)는 2009년 6월 13일에 발표한 한편의 글에서<sup>3)</sup>, 일본 《산케이신문》이 6월 12일 ‘일본 정부는 안보리 회의에 만족하며, 관건은 중조를 분열시키는 것이다’라고 쓴 제목의 글을 인용하며, ‘조선(북)을 적대시하는 것이 중국을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표백’된 중국이 중국에게 안전을 가져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한 식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도 더더욱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장홍량 교수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중국의 주변에, 즉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에서부터 동남아시아의 필리핀·싱가포르·태국, 남아시아의 파키스탄, 중앙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태평양의 괌 섬까지 우리들의 전략적 동반자인 미국의 군사기지가 10개나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대만에 무기를 팔고 있으며, 중국을 분열하려는 모든 세력에게 여전히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냉전적 사고를 갖고 싶지 않으며, 또한 미국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가 되고 싶으며, 많은 좋은 미국친구들을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 중국의 주변에 이 만큼(거의 중국을 포위할 만큼)의 군사기지가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당신과 좋아지고 싶은데, 당신은 왜 오히려 저희를 분열하려는 세력에게 지지를 보내는 겁니까? 중국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조선(북)과 관계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38선이 남아 있으면 필연적으로 마찰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38선 양쪽에서 원래 대등하

2) <http://www.wyxxsx.com/Article/Class16/200908/98137.html>  
<http://www.wyxxsx.com/Article/Class22/200906/89436.html>

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명확히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고, 미·일·한의 군사동맹이 있습니다. 반면 조선(북)은 비록 한 장의 동맹 약속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자기의 맹우를 ‘표백’하고 있는 중국과 태도가 줄곧 애매한 러시아, 그리고 줄곧 자신을 고립시키고 적대시하고 있는 국제사회와 직면하고 있습니다.

조선전쟁(6.25전쟁)이 끝났던 때와 비교해 반세기 이상이 지나는 동안 조선(한)반도의 다각적 관계에는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조선(북)과 한국 쌍방이 장기간의 대화를 통해서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공동 인식을 달성했다는 것이고, 1991년 쌍방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는 적어도 두 가지 방면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쌍방은 ‘조선민족은 반드시 통일할 것이다’라는 공동인식의 기초 위에서, 상호간에 상대방의 정권이 상대 쪽 지역에서 정치 합법성을 가지고 있음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통일 전에 각자 통치 지역의 국가권력으로서 합법 존재(설령 과도성의 것이라고 할지라도)임을 승인했습니다.

둘째, 쌍방의 이와 같은 상호 승인은 실제상으로도 통일방식에 대해 제한(어느 일방에 의한 무력통일의 합리성이 제거되었다)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는 지난 세기 조선(한)반도 충돌시의 상황과 크게 다릅니다. 만약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통일하려 한다면, 더 이상 ‘내전’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곧 ‘국제’ 전쟁으로 바뀝니다. 이와 같이 국제법상 ‘침략’ 정의가 쌍방의 행위를 비교하고 평가하는데 적용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조선(한)반도의 쌍방이 상대방의 안전에 대해서 법리상의 약속과 통제로 보아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조선(한)반도 쌍방이 만들어 낸 자주적 선택을 존중하며, 1991년에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안전체제 중에서 중한 국교수립의 의의를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 중중 동맹관계에 대한 새로운 한계입니다. 중중 간에는 1961년 7월 11일에 서명된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이 있습니다. 쌍방은 ‘어떤 국가의 체결당사자 쌍방에 대한 어떠한 일방적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것을 약속한다. 일단 체결하면 일방이 어떤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연합의 무장 공격을 받아, 이로 인해 전쟁상태에 놓이게 될 때, 다른 일방은 즉각 전력을 다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제3자의 무력 개입이 없는 내전은 당연히 조약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쌍방의 누가 먼저 무력을 사용하느냐에 관계없이). 현재 중한양국은 외교관계를 맺었고, 또한 상대방이 국제법상 ‘국가’ 존재임을 상호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기초에서 중한동맹과 상호원조관계는 이 밑선을 깨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의 국가안전에 대한 약속입니다. 중한의 외교관계 체결은 실제상으로도 중국정부가 한국의 국가안전에 대해서 만들어 낸 약속과 보증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승인한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어떤 기타 국가가 한국에 대해 무장공격을 하는 것은 중국정부의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선택도 중국정부와 유사하여, 옛 소련과 한국의 관계를 전승하였습니다. 옛 소련은 심지어 조선(북)과 한국이 나란히 유엔에 가입하기 전에 이미 한국과 관계정상화를 실현했습니다. 또 동북아 지역 안전체제 구축에 대한 역할도 당연히 중국과 유사합니다. <소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다시 새롭게 확정했으며, 한국의 국가안전에 대해서도 약속했습니다.

이는 또한 조선(한)반도의 한국 일방이 단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맹우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안전약속도 얻은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한)반도의 다른 한쪽과 비교해 본다면, 그 안전은 더욱 충분해 졌고 더욱 완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아주 유감스러운 것은 그들의 동포형제인 조선(북)은 안전에서 양측 동맹국과 같은 보증을 아직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선(북)의 맹우인 중국과 러시아와는 달리 조선전쟁(6.25전쟁) 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도 조선(한)반도의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또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은 여전히 조선(북)에 대해서 극도로 강



렬한 편견과 적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고집스럽게 조선(북)과의 관계정상화를 거절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조선(북)을 '악의 축'과 '깡패 국가'의 반열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한데, 조선(북)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안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38선의 유래와 그것이 조성한 남북 쌍방의 원한은 회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올해 10월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국방장관 게이츠가 10월 22일에 발표했던 공동성명에서 "조선반도의 정세에 변화 발생 시, 전 세계에서 가용한 미군병력과 전투력을 파병하여, 조선(북)에 대한 한국의 억제력을 증강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sup>3)</sup>

한국에게 진통제를 먹인 것 같습니다. '안심해라,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조선(한)반도의 긴장된 정세라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집에 부부 싸움이 생기면, 마음씨 좋은 이웃이 와서 싸움을 말리고, 반드시 양측의 분노를 잠재우고, 싸워서 안 된다고 설득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중 어느 한 쪽에게만 '안심하세요. 당신들 싸움에서 내가 온 힘을 다해 당신이 때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이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가 부부 두 사람이 다시 싸우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싸움을 말리는 척 하면서 고의로 한쪽 편을 들고 있는 것이며, 게다가 이 부부가 다시 싸우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미국의 국방장관 게이츠가 이번에 보여준 태도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역할은 아주 영광스럽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인들이 그에 대해서 감사해 합니다. 따라서 '6자 중에서 누가 가장 안전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제기에 대한 답은 뻔합니다. 조선(북)은 한 번도 그들 스스로 안심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붙지 않은 안전 약속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소위 국제사회의 시야에서, 조선(북)은 영원히 나쁜 일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 '악동'입니다. 그러나 상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안전이 극대한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는 어떤 사람도 가장 일어나기 쉬운 공격성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하물며 조선(북)과 같은 주권국가는 어떻겠습니까.

거대한 압력을 버티고 있는 조선(북)은 왜 '착한 아이'가 되는 것을 택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착한 아이'의 본보기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오싹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전 유고슬라브족은 일찍이 말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폭격을 당하고 해체되었으며, 지도자는 체포되어 심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행복한 생활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사담도 말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허구의 대량살상무기를 사찰하도록 하고, 조사하여 나온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늑대를 집안으로 끌어들여 놓았고, 자신도 교수대로 올라갔으며, 국민은 지금까지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 소련조차도 말을 듣는 것을 선택하여 해체된 이후, 러시아도 하마터면 '쇼크요법'으로 사망할 뻔 했고, 게다가 지금도 '나토의 동쪽 확대'라는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본보기가 있는데 조선이 '착한 아이'가 될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국제사회의 조선에 대한 불공평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 최초 정상회담만 하더라도, 명백하게 이것은 남북 쌍방의 공동 노력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해의 노벨 평화상은 단지 김대중 전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조선(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쏟은 노력으로 이 상을 받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결코 어떤 한 쪽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단지 한 쪽의 노력만을 인정했는데, 아무리 뭐라 해도 말이 안됩니다.

1973년을 회상해 보면, 베트남 노동당 중앙을 대표하는 레득토와 미국의 키신저가 파리에서 평화회담 중에 정전협의를 달성했기 때문에, 당시의 노벨평화상은 그들 두 사람에게 수여되었습니다. 비록 레득토는 미국인과 이 상을 함께 받

3) <http://news.sina.com.cn/w/2009-10-23/151418894557.shtml>



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래서 수상을 거절했지만, 최소한 공동 시상했고, 평화는 당사자 양측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했었습니다. 하지만 27년 후의 노벨평화상은 조선(북)이 조선(한)반도의 평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한 노력을 완전히 부정했고, 조선(북)에 대한 불안감은 단지 설상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한)반도의 유관국 중 가장 안전하지 않은 곳이 어디인가는 명확해 졌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조선(한)반도의 불안전 요소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입니다.

만약 모든 책임의 화살이 조선(북)을 향하고 있다면, 이것은 조선(북)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가 이 '악동' 이 항상 도발하고 소동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조선(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각 당사국들 중에 가장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바로 조선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각 국 중에서, 안전 위협에 직면해 있는 국가 중 조선(북)과 가장 비슷한 국가는 이스라엘입니다. 조선(북)과 다른 점은 안전이 위협받는 것에 직면해서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 행위를 취하는 이스라엘의 행동 규모와 격렬한 정도는 조선(북)과 비교가 안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서방 대국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압력과 제재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설령 그들이 상당한 면적의 아랍국가 영토를 점령할지라도 그들은 종전대로 미국의 호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북)의 '도발과 소동' 은 기본적으로 조선(한)반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소동의 원인도 자주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 분명하게 말하기 힘든 불명확한 분쟁이지만, 도리어 세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모든 아랍 국가에게 도전해도 서방세계 모두 이를 용인할 수 있는데, 왜 기껏해야 단지 자기 집 현관이 조금 시끄러운 조선(북)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트집을 잡는지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따라서 설사 조선(한)반도의 불안전 요소를 조선(북)이 '말을 듣지 않는' 것 때문으로 몰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사건의 표상일 뿐입니다. 조선(북)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상당부분 그들의 안전에 어떠한 보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안전에 어떠한 보증도 없기 때문이라고 한 이상, 우리들은 당연히 조선(한)반도의 불안전한 요소를 간단히 조선(북) 일방에게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말해서, 조선(한)반도 더 나아가서 동북아지역의 안전보장 체제는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주 불안정하고 심지어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이 '결함' 은 미국이 조성한 것으로, 달리 말하면 동북아 안전체제의 최대 위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시종 관련당사국들이 상호 신뢰 메커니즘을 형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호응을 만들어 내는 것을 원치 않는 미국입니다. '죄를 씌우려면, 어찌 구실이 없겠는가(欲加之罪 何患无辭).' 이것이 바로 미국의 국제안전사무 중의 일관된 행위입니다. 그들은 단지 누군가에 대해 착수하고자 하면, 이유가 없어도 이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라크가 바로 좋은 예입니다.

당연히 미국이 조선(한)반도가 오늘날까지 분열되게 한 주요 책임자라고 한 이상, 미국을 6자회담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도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미국은 조정자가 될 자격이 없으며, 오직 무조건적으로 조선(한)반도의 어느 일방의 안전을 담보할 책임과 또한 상응하는 제약을 받아들인 일방(적어도 중, 러와 마찬가지로) 동맹관계에 대해 한계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또 조선(북)의 안전에 대해서 약속과 보증을 주고, 최후에 이르러서는 아시아에서 철수하며 중국에 대한 군사적 포위를 없애야 합니다.

조선(한)반도에서 미국에 버금가는 또 다른 불안전 요소는 당연히 일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이 두 불안전 요소와 손을 잡고 조선(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조선(한)반도의 다른 일방에 대해 만들어 낸 안전 약속과 보증도 조선(한)반도의 충돌제어구조가 더욱 일방적으로 기울게 할 것입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조선의 불안감을 증가시켰고, 조선(한)반도의 안전이 보증 받을 방법을 없게 만들었습니다.

### 3. 전망

이상의 네 가지 문제제기를 통해 동시에 부족하나마 분석을 통해 미래의 중조관계와 중한관계에 대해 한 가지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자신의 안전이라는 각도에서 고려하여, 진심으로 조선(한)반도의 비핵화를 바라고 있고, 또한 이 바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중국은 조선(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고, '중미 쌍방의 이익'이라는 희망에 지나치게 의지하여,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노선을 선택했고, 조선(북)의 신뢰를 잃었으며(적어도 저버렸으며), 자기를 난처한 입장에 빠뜨렸습니다. 이 난처함이란 앞서 말씀드린 내외에 사람이 없는 것(단지 조선의 신뢰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기타 당사자로부터도 진정한 신임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중국과 관련 당사국들은 조선(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 안전체제를 위해 조선(북)을 제약하는 것보다 미국을 제약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 미국에 가서 조선(북)측이 참석한 학술회의에 처음으로 다녀온 한 친구가 저에게 '처음으로 조선인과 교류를 해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주 주의 깊게 조선인들을 관찰했고, 조선인은 손해를 보지 않고 매우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미국인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졌으나, 중국인에 대해서는 냉담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몇 차례에 걸쳐 말하기를 '어떤 일이 있든 미국은 그들(북)과 양자 협상하는 것이 좋지 다른 사람은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친구는 조선인의 이런 태도를 다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야? 중국은 많은 문제 상에서 미국의 태도와 다른 점이 없기에, 그들은 당연히 단지 미국인과의 교류만을 원하는 것이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중국인이 미국인의 종이 되고자 한 이상, 또는 미국인이 하는 대로 추종만 하는 이상, 조선(북)이 종에게 힘을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직접 주인과 교류하는 것이 더 간단한 것 아닙니까?

중조 간의 관계가 단지 지리상뿐만 아니라 감정상에서도 밀접한 형제상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이런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조선(북)을 위해 고려하지 않고 단지 중국 자신의 안전상 필요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단지 중국이 조선(한)반도 문제에서 발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중국은 조선(북)을 버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중조관계에서 특별히 필요한 것은 중국이 조선에 대해 더 많은 이해와 존중을 가지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1970년대 중국에서 아주 널리 퍼졌던 한 노래가 생각납니다. 캄보디아 원수 노로돔 시아누크왕이 직접 창작한 <중국을 그리워한다>입니다. 가사 중에는 이런 두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은 큰 나라이지만, 조금도 이기적이거나 거만하지 않고, 사람을 대함에 겸손과 예의가 있으며, 크고 작음에 관계 없이 평등하게 대합니다.”

“당신은 각 국 인민의 자유와 독립과 평등을 지키고, 세계평화를 수호합니다.”

이 노래가 불릴 당시 저는 결코 이 노래의 내용에 대단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 그러나 지금 당시의 국제 문제에서 중국이 가졌던 많은 입장을 그리워합니다. 이 두 구절의 가사는 당시 중국의 대외관계에 대한 사실적 묘사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부유한 친구가 된 후 국가의 주류 말투도 점차 정영화(精英化)되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라'나 '먼저 부유해져라'의 득의만만한 태도로 아직 '고난의 행군' 중에 있던 당시 작은 형제를 훑어보았습니다. 어투상 위에서 밑을 내려보는 듯한 우월감은 모두 억제하기 어려운 것이고, 숨기기 어려운 것입니다. 심지어 사회의 네트워크 상에서 공감과 심지어 갈채를 받을 수 있고, 여론의 대세를 형성합니다.

이와 같은 우월감은 사실 우리와 우리 선배들 모두 일찍이 겪어 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극도로 반감을 가

지고 있음에도 그렇습니다. 당시의 어른, ‘큰 형님’ 들도 같은 우월감을 가지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듯 살펴보거나 심지어 우리와 우리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을 ‘대국의 쇼비니즘(Chauvinism)적인 태도’로 여겼습니다. 이는 중국의 대문학자 루쉰이 비판했던 ‘일단 부유해지면 태도가 바뀐다(一潤臉就變)’ 바로 그것 같습니다.

이건 사람으로 하여금 대단히 유감스럽게 만듭니다.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의 글을 인용해서 표명한 것과 같이, 중국이 조선(북)과 소원한 것은 서방 사회가 낙관적으로 예상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계속해서 중국과 조선(북)에 대해 할 수 있는 분열책동을 다 진행할 것이고, 화물과 자금이 조선(북) 주변국가로부터 조선(북)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것이며, 조선(북)의 물류 네트워크에 대해서 감시와 통제를 실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중국은 조선(북)에 대한 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선(북)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조선(북)이 국제사회의 압력을 버텨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선(북)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 위협에 대해서, 또한 조선(북)이 이와 같은 국면에 대해 취하고 있는 대응 조치와 전략(특히 조선이 유관국들에게 자기의 안전지위 보장에 대해 제출한 요구)에 대해서 중국은 더 많은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조선(북)은 주권국가이며, 자기의 의지와 자기가 적당하다고 여기는 방식에 따라 국제교류를 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만약 이 점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양국은 정상적인 교류조차도 하기 어렵고, 더욱이 어떠한 친밀한 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적어도 조선(북)에서 자기에게 더욱 충분하고, 더욱 완비된 국제안전보장 방면의 요구를 얻기 위해서(특히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중국은 더 많은 이해를 나타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중조 간의 공동이익은 불일치보다 원대하고, 중조 사이는 중미 사이보다 더 필요하고 더 실현 가능한 ‘공동 이익(윈윈)’이 있습니다. 중조 쌍방은 조선(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안전 방면에서 공동 진퇴의 공간이 있고, 게다가 아주 큼니다.

중국이 다른 국가가 어떻게 할지를 요구할 수 없으나, 중국 자신은 응당 충분한 이해의 기초 위에서 조선(북)에 대해 당연한 존중을 주어야 합니다. 몇몇 서방의 여론에 흔들려 행동거지를 망각해서는 안 되며, 중국이 조선(북)의 생명줄을 잡고 있다거나, 또는 중국이 조선(북)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여기거나, 조선(북)이 곧 중국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존을 가진 어떤 민족이라 할지라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며, 하물며 우리 자신도 이 같은 느낌과 저항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양국의 피로 맺어진 역사를 말하자면, 신 중국 제 1대 지도자는 당시 아주 멀리까지 내다보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에 가서 싸우는 것은 ‘미국과 대항하여 조선을 돕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보위하는 것(抗美援朝, 保家衛國)’이다. 조선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

50년 전, 중국지원군이 철군하여 귀국하기 전날 밤에, 신 중국 외교부장 천이(陳毅) 총사령관은 지원군장교에 대한 연설 중에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은인(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찾으려 하지 않고, 나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나를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옛 신릉군은 조나라를 구하고, 한단의 포위를 풀고 난 후, 득의만면하며 조나라를 구하고 천하에 이름을 날렸다고 자부했다. 한 친한 친구가 그에게 교만하지도 공이 있다고도 하지 말라는 충고를 했는데, 신릉군이 들은 충고는 ‘다른 사람에게 얻은 은혜는 잊어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푼 은혜는 기억해서는 아니 된다’인데, 이는 중화민족의 전통이다.”

이는 단지 일개 국가의 품격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중조양국의 ‘이와 입술이 서로 의지하는(唇齒相依)’ 것과 비슷한 운명, 공동 이익, 공동 이해 관계의 문제입니다. 곳곳에 은인(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들어, 어디를 가든 반감을 줄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하물며 중국인민과 고락을 함께 하고 명운을 함께 한 조선(북)인민도 중국에게

은혜가 있고, 게다가 자립 자강의 사회주의 조선(북)의 존재 자체는 중국의 변경안전에 있어 보호벽이 됩니다. 하지만 중조 맹우관계가 일단 파열되면, '자기편을 슬프게 하고 적을 기쁘게 한다(親痛仇快)'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가장 큰 손해를 입는 자도 오로지 중국일 것입니다.

중국은 모든 원칙의 문제에서 조선(북)이 일관되게 중국을 지지하고, 대만·신장위구르·티베트의 독립과 중국을 분열하려는 모든 세력에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중국이 조선(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려는 바램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택한 노선이 미국과 타협하여 물러선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6자회담의 5자가 조선 일 방을 대하는 국면이 조성되었습니다. 조선(북)은 당연히 이를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조선(북)이 중국을 버리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여 6자를 양자로 바꾸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국면을 바꾸기 원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자신과 조선(북)의 관계를 중요하게 바라보고, 보호해야 하며 조선(북)의 민족적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노선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걸핏하면 조선(북)을 제재하고 압박하는 세력과 함께 나쁜 짓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조선(북)을 존중하고, 조선(북)에 대해 평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지금의 중국과 조선(북)은 일찍이 있었던 무슨 종속관계가 아니며, 오로지 평등한 관계일 뿐입니다. 양국 간에 틀린 의견이 있으면, 평등한 협상을 통해 공통점을 취하고, 다른 점은 보류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이 자신의 바람대로 일을 처리하게 해서도 안 되며, 이유 없이 상대방이 미국의 바람대로 일을 처리하도록 압박해서도 안 됩니다. '조선(북)이 중국의 말을 듣게 하고 싶다'거나, 또는 '조선이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중국에게 참기 어려운 종류의 여론이라는 것, 이런 말들은 모두 서방이 중조관계를 이간질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해 해야 합니다.

이해와 존중, 평등과 신뢰가 있고, 주요하게는 중국측의 조선(북)에 대한 이해와 존중, 평등과 신뢰가 있을 때, 양국은 그나마 상호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조선(한)반도 평화에 대한 진정한 바람과, 중조 양국관계의 바람직한 발전을 통해서 만이 조선(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발전은 주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중한 양국의 국교수립 이후, 중국이 양국관계의 발전을 바라는 것은 진심이며, 노력도 일관적입니다. 비록 근래 중한 민간 사이에서 악담이 서로 오고 간 사건이 있었지만, 그건 모두 지류(支流)이고, 중국 주류의 생각은 중한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더욱이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린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관건은 한국의 핵심 결정권자들이 중국을 진정으로 자신의 전략적 동반자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느낌에 양국관계 중에 정책결정권자 측면의 일부 기복은 항상 한국에서 온 것이지, 중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조 양국관계의 발전이 조선(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한 양국관계의 발전도 조선(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보호합니다. 서로를 비교해 보면 조선(북)의 경제상황이 더 곤란하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조선(북)과의 경제·무역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도 조선(한)반도 남북 쌍방의 관계가 한 걸음 더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만에 친척이 있는데, 일찍이 인위적인 장벽 때문에 저희 양안의 친척은 연락이 중단된 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동포애는 어떤 정치력으로도 막거나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뼈가 부러져도 살이 붙어 있는 것과 같은 우리 동포 골육의 정은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선(한)반도의 평화·안전·통일은 원래 당연히 조선(한)반도의 사람들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게 하고, 특히 조선(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에 위해(危害)를 끼치고, 조선(한)반도의 골육이산을 초래한 세력이 이러쿵저러쿵 하게 하는 것은, 우리 세계의 큰 비극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理解·尊重·平等·信任

## 展望未来的中朝和中韩关系

熊蕾

双石

【熊蕾注：本文的撰写，得到了四川成都经济电视台高级工程师、《开国第一战》作者双石（周军）的帮助并代表他的观点。为尊重双石的精神劳动和表达本人的谢意，征得双石的同意，本文与双石联合署名。】

展望未来的中朝和中韩关系，三方之间相互的理解、尊重、平等、信任至关重要。当然，这也应该是所有国家关系的准则。这里强调这一点，是因为我们东北亚的和平和安全，特别需要做到对有关各方合理诉求的兼顾和理解，而有关东北亚各方和国际社会主流语境中，在这一点上显然存在着缺失或缺陷——至少是不充分的。尤其是对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在自身安全环境方面的合理需求，特别缺乏必要的理解、尊重、平等和信任。而谋求朝鲜半岛和东北亚的和平和安全，理解、尊重、平等和信任，则



是必须具备的基础和前提。没有基于客观公正的立场上的理解、尊重、平等和信任，朝鲜半岛、东北亚乃至世界的和平和安全，就是空话。

## 1. 历史

要谈我们之间的理解、尊重、平等和信任，我想先从我个人的视角回顾一下历史。

中国和包括今天南北两个朝鲜在内的整个朝鲜的关系，源远流长。远的不说了，近代中国的历史，更和朝鲜密切相关。让我们中国人痛彻心脾的中日甲午战争，就是从日本侵夺朝鲜开始的。结果，应朝鲜政府之请出兵朝鲜的清朝军队，在平壤不明不白地让借机侵入朝鲜的日军占了上风，之后清军的北洋水师又在海战中全军覆没。软弱的中国清朝政府不仅损兵折将，还要赔日本银子，还被迫割让了台湾。

此后的朝鲜和中国，先后都投入了抗击日本侵略的斗争。斗争了几十年，终于打到日本投降了，朝鲜半岛却分成了两半。是谁分的？不是朝鲜人，也不是韩国人，是一个美国人。他随随便便这么一划，就出来了这条三八线。虽然当时仅仅是作为苏美军队的临时受降分界线，但后来却在复杂的国际政治博弈的格局中变成了朝鲜半岛南北分治的政治分界线。而这个格局，显然是三八线两边的朝鲜人都很难以接受的。虽然大韩民国和朝鲜人民民主共和国在 1948 年先后成立，使得朝鲜半岛出现了两个政权，但是南北双方都想完成半岛上同一民族的统一大业——甚至不惜诉武力，摩擦不断，最终酿成了内战。虽然南北双方矛盾尖锐对立，但在完成民族统一的意愿上是具有同一性的：都不甘于充当强权政治棋盘上的棋子，都要对强者决定弱者命运的国际强权政治实行反抗和挑战！

1949 年新中国成立，北朝鲜是最早承认中华人民共和国不多的几个国家之一。不到一年之后，就爆发了朝鲜战争。这场原本属于朝鲜民族内战的战争因美国军队率先介入而转化成为一场有 20 个国家和地区军队卷入的国际局部战争，而且因美国军队兵临鸭绿江边危及了新中国的安全，迫使中国人民志愿军出兵援朝，成为这场国际局部战争中冲突的一方。

我本人生于 1950 年末，抗美援朝是进入我记忆的第一件事。与此相关，就是我们耳熟能详的“中朝两国人民的友谊是用鲜血凝成的”。许多志愿军的英雄，至今还是我的偶像。金日成也是我这个年龄的中国人最早知道的外国领导人之一。当然，和他一起知道的，还有杜鲁门和李承晚，但是他们都是我们心目中的坏蛋。以后，我又知道了朝鲜的千里马运动和大型团体操等等，也听说在我们棉布供应紧缺的时候，朝鲜的维尼纶帮助了我们。那时候，朝鲜是我们的“哥们儿”，而韩国是敌视我们的。

可是，从我成人以后，我开始感觉到这个“鲜血凝成的”友谊并不那么单纯，而是疙里疙瘩的。好像我们中国老是有些人对朝鲜不高兴——先是不高兴他们不赞成我们的文化大革命，之后不高兴他们不赞

成我们的改革开放，现在更不高兴他们一个劲地在那里试验核武器，搞得东北亚的人和全世界的人都不得安生。有些中国学术界的人甚至把中国派志愿军出兵朝鲜抗美援朝，都说成是中国“上了金日成的当”，对朝鲜的“主体思想”“先军战略”等等一概嗤之以鼻。

与此同时，中国在 1992 年和韩国达成了建交协议。韩国不再是我们的敌国了。两国关系 17 年来不断升温，按照官方的说法，已经从全面合作伙伴关系提升为战略合作伙伴关系。两国经贸往来迅猛增加，贸易额从 1992 年的 50 亿美元提高到 2008 年的 1683 亿美元，接近韩日（894 亿美元）和韩美（848 亿美元）贸易额的总和。韩国已经成为中国第四大出口对象国和第二大进口对象国。两国的人员交往也很频繁，每年往来 500 万人次，每周近 800 个航班穿梭于两国之间。

相形之下，虽然中国和朝鲜也保持着高层往来，也有文化交流，特别是《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还有效力，至少继续有效到 2021 年，但是与中韩关系相比，中朝关系明显冷清很多。两国贸易以边境贸易为主，2008 年的贸易额最多只有 15 亿美元，比中韩贸易的零头还差好几倍。这样少量的贸易，好像还不敢声张。对于朝鲜核试验的问题，中国官方谴责的调门也愈来愈严厉。虽然 10 月间中国温家宝总理访问朝鲜之后，我个人感觉中国官方的态度比 6 月间的谴责态度缓和了一些，两国关系表面上也有所升温，但是仍然不像与韩国交往那样热闹。这些年在民间，有大量的“哈韩”派、有不断的“韩流”，可是却没有听说有“哈朝”派或者“朝流”。

总之，从我个人的感觉，中国和朝鲜虽然建交 60 年，有着非同寻常的历史关系——历史让我们血流在了一起，《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也让我们两国成为盟友，但是中国官方和媒体造成的舆论，尤其是中国竟然认可了联合国对朝鲜的制裁，已经让这鲜血凝成的友谊大大降温。这些年来，特别是最近十几年来，大多数中国人实际上是浸泡在一边倒的对朝鲜的负面舆论中。媒体对朝鲜，即使最中性的报道，也要把朝鲜描述成为“神秘的国度”，“蒙着厚厚的面纱”。偶尔有一两篇正面介绍朝鲜的报道，如最近《中国青年报》对一位在朝鲜留过学的中国青年的采访，说“朝鲜是一个值得我们尊敬的国家”，竟让很多人觉得匪夷所思。反观中国与韩国建交 17 年，关系已经上升到“战略合作伙伴”，虽然中国奉行和平外交，也确实主张与朝鲜半岛任何一方的交往都不损害另一方的利益，但是这些年来对南北朝鲜的实质性交往，一冷一热，对比实在鲜明。

## 2. 疑问

简短地回顾了历史，这里提出我的疑问。

在提出疑问之前，我想先说明：我至今还没有去过朝鲜——韩国倒是已经来过四次，印象很不错。我



对朝鲜和韩国的政治都不是很了解也缺乏研究，只是根据一些我所接触到的信息，不认同李承晚、朴正熙政权，也听说现在韩国的李明博总统对中国的态度不如他的前任友好。但是，根据我的有限了解，我认为，今天的韩国，同李承晚、朴正熙统治下的韩国，已经不一样了。包括金大中前总统在内的很多韩国仁人志士，为韩国政治的民主化奋斗了一生，不仅赢得了整个朝鲜半岛南北双方人民的尊敬，也赢得了中国和世界包括我在内的很多人的尊敬。所以，我希望韩国的朋友不要把我的疑问看做是对韩国的不友善。在朝鲜半岛问题上，我不是专家，但是我在中国所接触过的所有朝鲜半岛问题专家们的见解，全部都没有回答我的这些疑问。这些疑问，应该是任何有正常思维能力的关心朝鲜半岛问题的中国人，自然都会产生的。

我的第一个疑问是：我和中国很多人都感觉，中国政府是真心地要和韩国建立并发展战略合作伙伴关系的。中国和韩国也无疑是很好的贸易伙伴，并且有很多的文化交流、人员往来。但是，韩国的核心决策层真把中国当作战略合作伙伴吗？真能把中国当成自己人吗？

与此相似，多年来，中国很多领导人和学界人士也一直在张扬和美国的“建设性战略伙伴关系”。可是，如果真有谁相信美国的核心决策层把中国当成不管什么性质的战略伙伴，当成了自己人，我看他脑子一定进水了。

就算是韩国和美国的核心决策层都把我们当成战略伙伴了，当成他们的知己，那为什么韩国只和美国搞联合军事演习，却从没有和中国搞过这样的演习？当然，有人会说怕刺激朝鲜。可是中国和朝鲜有盟约在手，为了和平目的的军演，应该可以取得朝鲜的谅解。那么如果能克服这个障碍，韩方会和中方联合军演吗？

我对军事演习并不感兴趣。我提出这个问题，就是希望搞清楚，韩国的核心决策层，有没有把中国当成自己人？即使有朝一日，中韩两国真的搞了那么一次军事演习，是不是就意味着两国达到了那种“知己”的程度而不是演戏？即使韩国的核心决策层也认可中韩的战略合作伙伴关系，韩中关系和韩美关系，是否就能划上等号？

对这个问题的答案，我想智商正常的人，都心知肚明。

我的第二个疑问是，朝鲜半岛的不安全因素，仅仅是因为朝鲜有核吗？

朝鲜自从进行了核试验，就成了大逆不道的“挑战者”，被说成是挑战了半岛、东北亚乃至世界的和平和安全。

中国一贯主张朝鲜半岛无核化，金日成主席在世时，也曾与韩方达成过实现半岛无核化的共识。但是，朝鲜从无核到有核，只是表象，我们更应该做的，是追根溯源，寻找究竟是什么原因造成了这个表象，而不是一味地谴责和简单地制裁朝鲜。因为事实已经证明，谴责和制裁，都无助于问题的解决。简言之，

制应该是稳定平衡而不是倾斜的——它应该解除最不安全的一方的顾虑。

我想，我们大家都会赞成日本绝不可以有核，因为它曾经发动侵略战争，加害过亚洲人民。第二次世界大战结束的时候，国际社会就做出了解除日本武装的决定。但是，这些年来，日本的军事力量一直在恢复，却完全没有遭到国际社会像对朝鲜那样的打压。日本从来没有受到任何形式的国际经济制裁。为什么要姑息纵容曾经发动过侵略战争而一直在违反约定重新武装的日本，而要严厉打压曾经的战争受害者朝鲜呢？

有人说，朝鲜有核会给日本有核以借口，引起连锁反应。这种担心不是没有根据。但问题是，在朝鲜无核的年代里，日本停止过它重新建立军事武装的步伐吗？

如果说朝鲜有核，是半岛不安全的因素，那么，在朝鲜无核的时候，半岛的安全是不是有保证呢？朝鲜的安全是不是有保证呢？美国以及在美国核保护伞下的日本和韩国，对朝鲜的安全有没有承诺呢？

由这个问题，产生了我的第三个疑问：朝鲜半岛有关各方，哪一方最不安全？

我们可以用简单的排除法，来看看目前参加朝鲜半岛会谈的六方中，哪一方最不安全。

先看美国：美国和朝鲜半岛隔着一个辽阔的太平洋，在六方中离朝鲜半岛最远。朝鲜半岛的风吹草动，美国本土应该是受影响最小的。而美国在韩国、日本有驻军，在世界很多地方也有驻军，是六方中军事实力最强的。它应该是和朝鲜半岛关系最远也最安全的一方。只是因为美国是三八线的始作俑者，还曾经领兵打过三八线，直接威胁过中国的国家安全，更不要说朝鲜的安全，而且它至今在朝鲜半岛还有驻军，才成为一个重要的利益相关方——尽管这个北美洲国家本来应该和我们亚洲国家的事一点关系也没有。

再看俄罗斯。俄罗斯在地理上和朝鲜半岛比美国接近得多，和朝鲜也有一点点边界。可是如果把现在俄罗斯的历史从 1991 年苏联解体以后算起，它和朝鲜半岛的纠葛，没有任何关系。如果把苏联牵涉到半岛纠葛的历史加给俄罗斯，那么它除了曾经认可了造成今天半岛分裂的三八线，鼓励过金日成统一朝鲜的战争行动之外，无论过去和今天，都没有直接遭受过任何来自半岛的安全威胁。而它在六方中的地位，似乎也最超然。

日本曾经在长达半个多世纪的时间里，多次发动侵略战争，占领了整个朝鲜半岛以及中国的台湾和东北，欠下我们东北亚和亚洲其他国家人民无数血债。战后的日本在美国的保护下，保留了他们的战犯天皇政体，扶植日本经济迅速蹿升。日本战后历届政坛领导，对他们的战犯亡灵不断祭奠，拒绝为中国、韩国、朝鲜的很多战争受害者赔偿，那些曾经支持过侵略战争的日本公司和财团，如今继续繁荣。而且日本重新武装的举动，日本军国主义势力的抬头，多年来没有间断。可以说，日本曾经是朝鲜半岛安全



的最大威胁，至今也是半岛安全的隐患。以它的实力，它不来破坏半岛安全已属万幸，若说它的安全会受到威胁，则是天方夜谭！

当然，日本是六方中，唯一受过原子弹之害的一方。但是，那两颗原子弹是美国人投下的。也就是说，日本唯一有过的安全问题，完全是美国造成的。如今美国和日本有安保条约，美国的军事实力加上日本的经济实力，日本的安全毫无问题。

在剩下的韩、朝、中三方，应该是六方中真正有安全问题的三方。但是这三方情况各有不同。

我们先来看中国。这里，我想引用中国中央民族大学张宏良教授的看法。他在 2009 年 8 月 8 日发表的《朝鲜——包围中国的最后一道栅栏》<sup>1</sup>中指出：

回顾中国近代史就会发现，中华民族的安危兴亡大都与朝鲜有关：导致一系列亡国灭种大祸的甲午战争，起自于朝鲜；日本第二次全面侵华战争也是起自于朝鲜；50 年代初在全世界眼里，中国人民真正站起来了，同样是起自于（在）朝鲜的抗美援朝战争。

地理位置造成了中朝两国唇齿相依的关系，现实历史造成了中朝两国的盟友关系。中国的国家安全，和这两重关系是分不开的。面对一些中国当年出兵朝鲜的质疑，很多中外学者指出，当时为了是否出兵朝鲜，成立还不到一年的新中国领导人斟酌讨论了一个月，才下定决心；而如果同样的事情发生在墨西哥，美国的领导人可能不用 5 分钟就会做出出兵的决定。

然而，面对冷战之后的新格局，急于投入西方主导的“国际社会”怀抱的中国学界，这些年来拼命将中国“漂白”，冷落朝鲜。可惜的是，即使他们挥刀自宫成了太监，落得的结果也仅仅是把自己搞得里外不是人——既没有得到美、日、韩的信任成为人家的自家人，还搞得自己曾经的盟友朝鲜对自己心生疑虑，越来越生分。中国另一位学者杨芳洲在 6 月 13 日发表的一篇文章中，<sup>2</sup>引用日本《产经新闻》6 月 12 日题为《日本政府满意安理会决议，认为关键在于分化中朝》的文章，指出，“敌视朝鲜让中国成了普世笑料”。

“漂白”中国，有没有给中国带来安全呢？没有。中国非但没有成为人家的自家人，反而自身的安全也更加没有了保障。如张宏良教授所指出，今天，在中国的周边，从东亚的韩国、日本，东南亚的菲律宾、新加坡、泰国，南亚的巴基斯坦，到中亚的阿富汗、乌兹别克斯坦和吉尔吉斯斯坦，加上太平洋上的关岛，有我们的战略伙伴美国的 10 个军事基地。美国照样售台武器，照样给所有分裂中国的势力撑腰打气。

我不想有冷战思维，我也不反美。我很愿意跟美国做战略伙伴，也有很多很好的美国朋友。但是我不

---

<sup>1</sup> <http://www.wyxsx.com/Article/Class16/200908/98137.html>

<sup>2</sup> <http://www.wyxsx.com/Article/Class22/200906/89436.html>



好，你为什么却还要支持分裂我的势力？

中国不安全，韩国呢？

韩国也没有安全感。这不是因为朝鲜如何如何，而是因为只要有一条三八线在那里，就必然有发生摩擦和冲突的可能。所以这种不安全感，三八线两边本来应该是对等的。

然而现在，韩国有美国明确的核保护，有美、日、韩的军事同盟，朝鲜却面临着虽有一纸盟约却正在“漂白”自己的盟友中国和态度一向暧昧的俄罗斯，还有一直在孤立自己、敌视自己的国际社会。

较之于朝鲜战争结束之时，半个多世纪以来，朝鲜半岛的多边关系发生了很大变化。其中最大的变化的是：朝韩双方经过长期对话就和平统一问题达成共识，并于 1991 年双双同时加入联合国。

这个变化至少有两个方面的意义：

一、双方在“朝鲜民族必将统一”的共识的基础上，互相承认了对方政权在己方地域的政治合法性——也就是承认了对方作为统一前在各自统治和治理地域的国家政权的合法存在（即或是过渡性的）；

二、双方的这种相互承认，实际上也是对统一方式作出的限定——排除了任何一方单方面武力统一的合理性。这与上个世纪半岛冲突时的情况大为不同：倘若任何一方企图单方面以武力“统一”对方，将不再具有“一国内战”的性质，而变成了“国际”战争。如此，国际法意义上的“侵略”定义，将适用于衡量和评估双方的行为。

这其实也应视为朝鲜半岛双方对对方安全在法理意义上的一个承诺和制衡。

中国政府尊重朝鲜半岛双方作出的自主选择，于 1991 年与韩国建立了外交关系。我认为，在东北亚地区安全体系中，中韩建交意义可作如下解读：

一、对中朝同盟关系的新界定。中朝间于 1961 年 7 月 11 日签署有《中朝友好合作互助条约》，双方“保证共同采取一切措施，防止任何国家对缔约双方的任何一方的侵略。一旦缔约一方受到任何一个国家的或者几个国家联合的武装进攻，因而处于战争状态时，缔约另一方应立即尽其全力给予军事及其他援助”。（着重号是笔者加的。）而没有第三方武装力量介入的内战，当然不在条约范围之内——不管双方谁先动武。现在中韩间建立了外交关系，也就是相互承认了对方作为国际法意义上的“国家”的存在，在此基础上的中朝同盟和互助关系，将不能突破这个底线。

二、对韩国国家安全的承诺。中韩外交关系的建立，实际上也是中国政府对韩国国家安全作出的承诺和保证：作为中华人民共和国承认的一个主权国家，任何来自其他国家对韩国的武装进攻，不可能得到中国政府的支持。

俄罗斯的选择也与中国政府类似：传承了前苏联与韩国的关系（前苏联甚至在朝韩双双加入联合国之

前就与韩国实现了关系正常化),对东北亚地区安全体系产生的作用当然也与中国类似:重新界定了《苏朝友好合作互助条约》,对韩国国家安全作出了承诺。

这也就是说,朝鲜半岛上的韩国一方不仅得到了来自美日方面的安全保障,也得到了作为朝鲜盟友的中俄方面的安全承诺——较之于半岛的另一方,其安全地位更显充分,也更趋完备。

非常遗憾的是,作为其同胞兄弟的朝鲜,安全地位却未能得到双方盟友这般对等的保证。

与作为朝鲜盟友的中俄不同,当年朝鲜战争中扮演着重要角色,迄今也对半岛局势施加着重要影响并仍然扮演着重要角色的美利坚合众国,却依然对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表现极度强烈的偏见和敌意,不光是顽固地拒绝与其实现关系正常化,而且还将其归入“邪恶中心”和“流氓国家”之列!

厚此薄彼竟至于此,对朝鲜来说,何来公道可言?又何来安全可言?

不用回顾三八线的由来和它造成的南北双方的恩恩怨怨。就看看今年10月出访韩国的美国国防部长盖茨在10月22日发表的一项联合公报中说的什么:“当朝鲜半岛情势发生变化时,将在全世界调遣可用的美军兵力和战斗力,增强韩国对朝遏制力。”<sup>3</sup>

好像是给韩国吃了定心丸:放心,天塌下来我帮你顶着!实际上,这是在给朝鲜半岛的紧张局势火上浇油!我们普通老百姓家里发生两口子打架,好心的邻居来劝架,一定是平息双方的怒火,劝他们不要打。如果有什么人对其中一口子说:你放心,你们俩打架,我全力以赴帮你打!他这是安好心吗?他能让两口子不再打架吗?他是在拉偏架,而且唯恐这两口子不吵架。美国的国防部长盖茨这番表态,扮演的就是这么个角色。这个角色非常不光彩,可惜很多韩国人还要对他感恩戴德。

所以,六方之中,哪一方最不安全,答案是明摆在那里的。朝鲜从没有得到让它放心的不附加任何条件的安全承诺。

在所谓国际社会眼里,朝鲜永远是一个做坏事、不听话的“坏孩子”。可是,常识告诉我们,任何感觉自身安全受到极大威胁的人,都容易最具有攻击性以求自保,更何况像朝鲜这样一个主权国家。

承受着巨大压力的朝鲜,为什么不选择做“好孩子”?因为“好孩子”的榜样实在让人寒心:前南斯拉夫曾经选择了听话,结果挨轰炸、被肢解,前领导人遭关押受审判,而老百姓至今也没有过上好日子。伊拉克的萨达姆也选择了听话,让人家核查子虚乌有的大规模杀伤性武器,虽然没有查出来,仍然引狼入室,闹到自己上了绞架,国家和百姓至今不得安宁。就连前苏联选择听话解体之后,俄罗斯也差点没被“休克疗法”治死,而且至今面临着“北约东扩”的威胁。有这样的榜样在那里,朝鲜还可能选择去做“好孩子”吗?

国际社会对朝鲜的不公平,不胜枚举,仅2000年金大中前总统和金正日委员长的南北首脑首次会谈,

<sup>3</sup> <http://news.sina.com.cn/w/2009-10-23/151418894557.shtml>



明明是南北双方的共同努力，可是当年的诺贝尔和平奖，就只给了金大中前总统一人。以金大中前总统为半岛和平所付出的努力，获得这个奖当之无愧，可是这种努力毕竟不是单方面所能奏效的。而国际社会只承认一方面的努力，无论如何说不过去。回想 1973 年，因为代表越南劳动党中央的黎德寿和美国的基辛格在巴黎和谈中达成了一项停火协议，当年的诺贝尔和平奖授予了他们两个人。虽然黎德寿不愿意与美国人分享这个奖项而拒绝领奖，但是起码这样颁奖还是承认了和平是当事双方的事。而 17 年后的评奖，完全否认了朝鲜对促成半岛和平的努力，对朝鲜的不安全感只能是雪上加霜。

清楚了朝鲜半岛有关各方最不安全的是哪一方，我的第四个疑问是，朝鲜半岛的不安全因素，究竟来自哪里？

如果所有谴责的指头都指向朝鲜，说半岛的不安全是因为这个“坏孩子”老是在寻衅滋事，那前边的分析已经表明，这种说法站不住脚，因为朝鲜半岛问题有关的几方，安全最没有保障的就是朝鲜。

在世界各国中，面临的安全威胁和朝鲜最为相似的国家，是以色列。与朝鲜不同的是，在安全面临威胁采取攻击性行为以自保的以色列，行动的规模和激烈程度远非朝鲜所能比，但是因为美国和西方大国的支持，以色列极少受到国际社会的打压和制裁。哪怕它侵占了大片阿拉伯国家的领土，它也照样受到美国的青睐。而朝鲜的“寻衅滋事”，基本不出朝鲜半岛的范围，而且滋事的因由也往往是一个巴掌拍不响的说不清道不明的纠葛，却成了对世界的挑战。以色列挑战了几乎所有的阿拉伯国家，西方世界都能容忍，为什么对至多只是在自家门口闹一闹的朝鲜，就这么不依不饶，实在是怪事。

所以，即使非要把朝鲜半岛的不安全因素归咎于朝鲜的“不听话”，那也只是事情的表象。从某种意义上说，朝鲜之所以“不听话”，很大程度是缘于它的安全最没有保证。既然是因为它的安全最没有保证，我们当然不应该把半岛不安全的因素，简单地归咎于朝鲜一方。

从根本上说，朝鲜半岛乃至东北亚地区的安全保证体系是有重大缺失的，因而也是极具不稳定性乃至危险性的。这个“缺失”就是美国造成的——换言之，东北亚安全体系的最大威胁不是别人，而是始终不愿意为有关各方形成互信机制作出积极响应的美利坚合众国！欲加之罪，何患无辞，这是美国在国际安全事务中的一贯作为，只要他想对谁动手，没有理由可以制造理由——伊拉克就是一个很好的例子！

当然，既然美国是使朝鲜半岛分裂至今的主要责任人，让它参加六方会谈，也并无不当。只是它没有资格充当调停人，只能是要承担无条件保证半岛任何一方的安全的责任并接受相应制约的一方——至少象中俄一样，对盟友的关系作出界定，对朝鲜的安全给予承诺和保证，直到最后撤出亚洲，取消对中国的军事包围。

朝鲜半岛的仅次于美国的另一个不安全因素，当然是日本。然而韩国却和这样两个不安全的因素联手

对付朝鲜，而中俄对半岛另一方作出的安全承诺和保证也使半岛的冲突制衡的架构更显倾斜，这无疑也加剧了朝鲜的不安全感，也就导致了半岛的安全无法得到保证。

### 3. 展望

提出了以上的四点疑问，并做出了粗浅的分析之后，我想对未来的中朝关系和中韩关系做一个展望。

应该说，中国从自身安全的角度考虑，是真诚地希望朝鲜半岛无核化的，而且这个愿望也无可厚非。只是中国为了实现半岛无核化，过于一厢情愿，过于寄托于“中美双赢”的希冀，从而选择了一条不是那么恰当的路线，失去了——至少是辜负了——朝鲜的信任，将自己陷入了一个尴尬的境地。这种尴尬，前边已经提到，就是里外不是人——不仅失去了朝鲜的信任，也并没有赢得其他各方的真正信任。

**中国和有关各方应该认识到，在朝鲜半岛乃至东北亚安全体系中，制约美国，比制约朝鲜，更为重要！**

最近，一位去美国参加了一次有朝鲜方面出席的学术会议的朋友告诉我，这是他第一次和朝鲜人交往。他很注意地观察了他们，发现朝鲜人不吃亏，非常自尊。另外，就是对美国人很在意，但是对中国人很冷。他们几次明确表示，有什么事，美国和他们两家商量就好了，不用管别人。我这个朋友有些不理解朝鲜人的这种态度。我说，这有什么不好理解的？中国在很多问题上和美国的表态没有什么两样，人家当然只需要和美国人打交道了！既然你要做美国人的奴才，或者唯美国人的马首是瞻，人家有什么必要和奴才花费力气呢？直接和主子打交道，不是更省事吗？

中朝之间的关系，是否能恢复到不仅在地理上而且在感情上也唇齿相依的兄弟状态，目前还看不到这种希望。但是，即使不为朝鲜考虑，仅仅从中国自身的安全需要出发，哪怕仅仅是为了保住中国在朝鲜半岛问题上的发言权，中国对朝鲜也必须不抛弃、不放弃。

在未来的中朝关系上，特别需要中国对朝鲜有更多的理解、尊重和平等相待。这让我想起 70 年代在中国流传很广的一首歌曲，就是柬埔寨王国元首诺罗敦·西哈努克亲王亲自创作的《怀念中国》。歌词中有这样两段：

你是一个大国，毫不自私傲慢，待人谦虚有礼，无论大小平等相待。

你捍卫各国人民（的）自由独立平等，维护世界和平。

当时的我并不觉得这首歌的内容有什么了不起，但是如今，我也很怀念那个时候中国在国际问题上的很多立场。这两段歌词，应该是对当时中国对外关系的非常真实的写照。

然而，当中国傍上了富豪朋友之后，国家主流话语也逐渐精英化，以“施恩于人”和“先富起来”的志得意满打量还在“苦难行军”中的当年小兄弟，语气语境上居高临下的优越感都是很难按捺也很难掩



饰的，甚至还能在社会上网络上赢得共鸣乃至喝彩，形成舆论强势——虽然这样的优越感其实我们和我们的上一辈人都似曾相识，而且极度反感：当年那些洋大人、“老大哥”们，不也带着同样的优越感居高临下地审视乃至指教过我们和我们的国家么？我们不是也曾将其归入“大国沙文主义的态度”么？这真像中国的大文学家鲁迅批评过的：“一阔脸就变”！

这非常令人遗憾。如前边所引日本《产经新闻》的文章表明，中国疏远朝鲜，是西方社会所乐观其成、正中下怀的。他们还要继续对中朝进行尽可能的分化，阻止货物和资金从朝鲜周边国家流入朝鲜，对朝鲜物流网络实施监控。

在这种情况下，中国必须端正对朝鲜的态度。对朝鲜的处境，对朝鲜所承受的国际压力，对朝鲜面临的安全威胁，以及朝鲜面对这样的危局所采取的应对措施和方略——特别是朝鲜向有关国家就自己的安全地位保证提出的要求，中方应该多加理解。朝鲜是主权国家，有它自己的意志和按自己认为适当的方式进行国际交往的权利。如果不理解这一点，两国连正常的交往都难以做到，更不要说什么亲密关系了。至少，在朝鲜为自己赢得更为充分，更为完备的国际安全保证的方面的要求——尤其是对美国的要求，中方不仅应表示更多的理解，还应给予实际的支持。中朝间的共同利益是远大于分歧的，中朝间比中美间更需要也更有可能实现“双赢”。中朝双方在朝鲜半岛乃至东北亚和平安全方面，有共同进退的空间，而且还很大很大！

中国不能也无法要求其他国家怎么做，但是中国自己，应当在充分理解的基础上，对朝鲜给以应有的尊重。不要被某些西方舆论忽悠得忘乎所以，自以为中国掌握着朝鲜的生命线，或者自以为中国“有恩于”朝鲜，朝鲜就要听命于中国：将心比心，推己及人，这在任何一个自尊的民族来说都是很难接受的，何况我们自己也有过这种感受和抗拒的经历。说起我们两国那段鲜血凝成友谊的历史，新中国第一代领导人当时就极有远见地声明：中国人民志愿军赴朝作战，是“抗美援朝，保家卫国”。支援朝鲜是为了保护我们自己的国家，我们有什么理由要求人家对我们感恩戴德？五十年前，在志愿军撤军归国前夕，新中国外交部长陈毅元帅在对志愿军将领的讲话中就指出过：

**我们任何时候，任何地点，不要去充恩人，以为我有恩于你，你就要给我磕头。**古代信陵君救赵，解了邯郸之围后，喜形于色，以为拯救了一个赵国，便可名扬天下。一位知己的朋友劝告他，不要骄傲，不要居功、信陵君得到的忠告是：“人有德于公子，公子不可忘也；公子有德于人，愿公子忘之。”这是中华民族的传统。

这不仅仅是一个国家风度的问题，更是中朝两国“唇齿相依”的相似命运共同利益共同利害关系的问题，处处充恩人到哪儿都会惹人反感，何况与中国人民同过甘苦共过命运的朝鲜人民也有恩于中国，何况自强自立的社会主义朝鲜的存在本身也是对中国安全边疆的屏障！而中朝盟友关系一旦破裂，“亲痛



仇快”自不待言，利益受损最大者也只能是中国。我们更应该看到，在所有大是大非的问题上，朝鲜一贯支持中国，反对台独、藏独、疆独和一切分裂中国的势力。中国追求朝鲜半岛无核化的愿望无可厚非，但是选择的路线是对美国妥协退让，结果造成了六方会谈五方对朝鲜一方的局面，朝鲜当然不愿意，抛开中国和美国直接谈，把六方变为两方，是顺理成章的事。要改变这种局面，中国必须珍视自己与朝鲜的关系，爱护这种关系，尊重朝鲜的民族感情，不可以强加于人，更不可以和国际上动辄制裁和打压朝鲜的丑恶势力同流合污。

尊重朝鲜，就必须对朝鲜平等相待。如今的中国和朝鲜，早已不是什么藩属关系，而只能是平等的关系。两国之间有不同意见，要通过平等协商来求同存异，不能意气用事，非让对方按照自己的意愿来行事，更没有理由强迫对方按照美国的意愿来行事。想让朝鲜听命于中国，或者说朝鲜不听中国的话就是让中国难堪之类的舆论，都是西方给我们下的眼药水，是挑拨离间中朝关系。中国不可以上当，落入西方势力分化中朝关系的圈套。

有了理解、尊重、平等，主要是中国方面对朝鲜的理解、尊重、平等，两国才有可能恢复相互信任。以中国对朝鲜半岛和平的真诚愿望，中朝两国关系的良性发展，只能有利于朝鲜半岛的和平和安全。

中国和韩国关系的发展，应该主要取决于韩方对中国的信任。中韩两国建交之后，中国发展两国关系的愿望是真诚的，努力也是一贯的。虽然这些年来中韩民间有过一些恶言相向的事件，但是那都是支流，中国的主导思想是发展中韩关系，并且很高兴把两国关系提升到战略合作伙伴关系。然而，问题的关键在于韩国的核心决策层是不是、愿意不愿意把中国真正当成自己的战略合作伙伴。我的感觉，两国关系中政策决定层面的一些起伏，总是来自韩国方面，而不是来自中国方面。同中朝两国关系的发展，会有利于朝鲜半岛的和平和安全一样，中韩两国关系的发展，同样是要维护半岛的和平和安全。相比之下，因为朝鲜的经济处境更困难，中国目前更应该加强和朝鲜的经贸关系。

最后，中国也希望朝鲜半岛南北双方的关系有进一步的发展。我有亲人在台湾，曾经因为人为的阻隔，我们海峡两岸的亲人中断联系也有几十年。我深深知道，那种血浓于水的同胞情谊，是任何政治力量无法阻断的。打断骨头连着筋，我们的同胞骨肉情，外人也是理解不了的。半岛的和平、安全、统一，本来应该是半岛人自己可以说了算的事，却要让外人说三道四，特别是让真正危害过半岛安全和平和造成半岛骨肉离散的势力来说三道四，这不能不说是我们世界的一个大悲剧。

# 미래지향적인 한중·북중관계의 모색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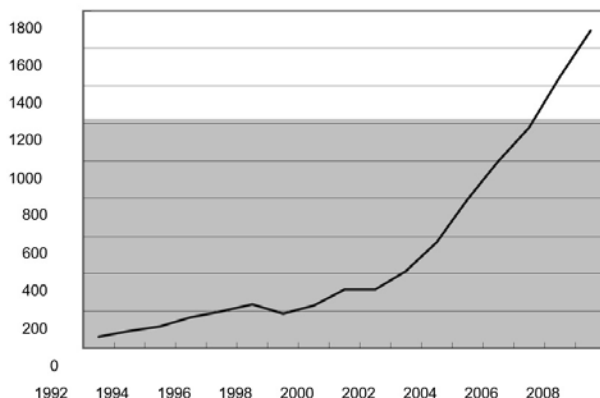
## 1. 한중관계의 발전

1992년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이후 한중관계는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룬 분야는 물론 경제분야이다. 양국의 교역액은 2008년 약 1,683억 달러(중국측 통계로는 1,860억 달러)에 달했으며 한국에게 중국은

제1의 교역상대국이고 중국에게 한국은 일본, 미국, 홍콩에 이어 제4의 교역상대이다. 인적왕래도 크게 증가해 양국간 인적왕래는 연간 500만 명에 달했다. 양국교류에 비대칭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중국에게 한국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교류의 증가는 정치관계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1992년 8월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양국이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이후 양국관계는 '협력 동반자관계'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

〈그림 1〉 한국 무역규모의 변화 (단위: 억 달러)



방중)→ ‘전면적협력동반자관계’ (20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 방중) → ‘전략적협력동반자’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 방중)의 순으로 격상되어왔다. 그리고 양국 사이의 고위급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양국 외교부간 고위급 전략대회 개최 및 국방당국간 고위급 상호방문과 상호연락체제 강화에 합의하는(2008. 8 한중 정상간 공동성명) 등 정치대화의 제도화도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중관계의 빠른 발전은 동북아의 경제협력을 촉진시켰고 현재 동북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 되는데 중요한 공헌을 했다. 그리고 냉전체제 해체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특히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협력이 북핵위기가 극단적인 충돌로 이어지지 않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성과를 기초로 양국관계는 최근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양국관계의 발전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장애요인이 존재하며 실질적인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 2. 한중관계 발전의 장애요인

우선 양국관계의 발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한계가 있다. 한중수교는 냉전체제의 해체에 따른 필연적 결과이며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한중수교가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중수교는 동북아에서 군사적, 정치적 대립을 청산하고 새로운 평화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었다. 그리고 1991년 UN에 남북이 동시가입하는 등 중국이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사실상 시간 문제가 되었다.

그렇지만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북한의 참여가 있어야 달성될 수 있는 목표이다. 그런데 1992년 한중수교는 이와 결부된 다른 외교적 관계의 조정과 병행된 것이 아니라 북한 문제를 남겨놓은 채 진행된 것이었으며 그 결과 한국은 소련, 중국 등 냉전시기 적대국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반면 북한의 미국, 일본과의 관계는 개선되지 못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것에는 북이 그 이전에 소위 교차승인안을 반대해온 것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다. 그러나 1992년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완전히 변해 북한은 교차승인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sup>1)</sup> 그러나 한중수교가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지 않았다.

그 반대로 미국과 남한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는 정책을 선택했고 북한은 이에 안전보장을 명분으로 핵개발을 시도하며 북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 심화되어왔다. 당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요 행위자들이 전략적 사고로

---

1) 김일성은 한중수교를 앞두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방문한 당시 첸지천(錢其琛) 당시 외교부장과의 만남에서 한중수교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 한중관계의 발전과 북미관계의 발전을 조절해줄 것을 특별히 요청하였으나 중국은 이에 대해서도 한중수교가 장기적으로 북한과 미국, 일본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답으로 대응하였다. 이 만남에 대해서는 첸지천의 회고록을 참고. 錢其琛, 『外交十記』, 世界知識出版社 2003, 157-160면.

2) 미국과 남한이 북한붕괴론에 기울게 된 것은 냉전체제의 해체 과정에서 자본주의진영의 힘의 우위가 강화된 결과였다. 그리고 중국은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서방국가부터 제재를 받고, 1991년에는 소련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빠른 경제성장만이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로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국의 최고실력자인 덩샤오핑(鄧小平)은 1992년 1~2월 소위 남순강화를 통해 개혁개방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했고, 1992년의 한중수교도 그 연장선 위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상황에 대처하기보다는 단기적 이익에 집착한 측면이 있고, 결국 북한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동북아질서의 재편은 동북아 평화체제의 형성을 지연시키고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남겨놓았으며 한중관계에도 여러 어려움을 조성하고 있다.<sup>2)</sup>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앞으로 한중관계나 동북아 평화체제와 관련한 문제들을 전략적 각도에서 처리해야만 역내의 대립과 갈등 구도를 청산하고 한중관계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한중관계 진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양국이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양국 사이에는 전략적 갈등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한국의 한미동맹이 한중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미동맹은 동북아의 냉전구조의 형성과 함께 만들어진 것이다. 최근 한미동맹도 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이양되는 등의 변화를 겪고는 있지만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냉전구조가 청산되지 않고 있는 한 한국 대외관계의 중요한 축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한미동맹강화론은 중국으로 하여금 한미동맹이 군사적 성격과 직간접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기도 했다.

예를 들면 2008년 5월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시점에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미군사동맹을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군사동맹으로는 현재 세계 혹은 지역이 직면한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한미동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언급을 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물론 최근 미중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변수가 당장 한중관계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은 낮다. 그렇지만 한미동맹이 주변국들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역할의 확장을 추구한다면 한중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 초래하고 있는 불확실성도 전략적 갈등요인의 하나이다. 중국의 부상은 중국과 한국, 한반도와 같은 주변국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점차 심화시킬 것이다. 13억을 넘는 인구, 광대한 영토, 동아시아에서 제국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성장에 주변국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냉혹한 국제관계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는 피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실제로 중국과 주변국들 사이에는 19세기말부터 이러저런 갈등과 충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19세기말 중국의 조선에 대한 군사적 개입, 1950년대 초반 한국전쟁 등의 부정적 경험이 있다. 주로 해양경제확정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영토분쟁도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중국의 부상에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한국과 같은 주변국들이 이러한 불안감에 입각해 중국을 대하는 것이 중국의 반발을 초래하며 관계를 악화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민간 사이의 신뢰부족도 한중관계발전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사실 한국과 중국의 인적 왕래, 경제교류의 규모를 보면 전략적 관계라는 목표는 전혀 과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서, 가치적 측면에서의 상호신뢰의 증진 속도는 교류의 양적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양자 사이의 이러한 불균형은 한중사이에 갈등을 확대시키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8년 10월 실시된 동북아역사재단의 조사에서도 한중관계가 “나쁘거나 아주 나쁘다”라는 답이 59.9%로 2007년 34.5%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중국응답자 가운데는 16.6%가 “나쁘거나 아주 나쁘다”고 답했다. 한국인들이 상대방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유학생 등의 활발한 인적 교류로 양국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줄어들면서 한국에서 중국을 비하하거나 비판하는 말과 행위가 바로 중국 내로 전달되고 이것이 감정적 충돌을 확대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소위 혐한류가 출현한 것도 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된다면 한중관계의 발전은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 3. 한중관계의 현황

이러한 문제들의 존재가 한중관계의 발전을 당장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어떤 국제관계이든지 문제가 없는 관계는 있을 수 없다. 다만 양국이 진정한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위의 문제들을 피해가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한다. 현재 한중의 상대국과의 관계에 대한 전략과 태도를 평가하면 아래와 같다.

#### 1) 중국의 한중관계에 대한 입장

중국은 대외관계에서 자신의 부상에 우호적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과 안정적인 협력관계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이 여러 주요 국가들과 '전략적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의 중요한 목표가 국제사회가 부상하는 중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과도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한국이 정치군사적으로 자신을 견제하는 포위망의 한 축이 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정치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협력관계의 발전을 한중관계 발전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 삼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당장 정치군사적 협력을 질적으로 높이거나 이와 관련된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경제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통해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한중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정치군사적 문제는 양자관계를 통해서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경제협력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상호신뢰도 증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치협력도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아울러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의 방지와 평화적 상황의 유지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의 평화적 공존을 선호하고 남북 모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즉 경제적 측면만 주목하면 한중관계가 북중관계를 앞도하고 있으나 이념, 역사, 지정학 등의 요인들을 고려하면 한중관계 때문에 북중관계를 희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 2) 한국의 한중관계에 대한 입장

표면적으로 보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중관계 속도조절론”과 같이 한미동맹과 한중협력관계를 대체재로 간주하는 주장들이 나타나며 한국의 중국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정권교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한중관계는 안정적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어떤 이념적 성향의 정부가 등장하든지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과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한국의 중요한 외교목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에게는 특히 장기적으로 중국과 평등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한국 역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앞으로 20년여간 고도성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중국은 이미 한국에게 최대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부상했으며 양국의 경제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호혜적



경제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가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우호적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시하는 장기 목표이다.

### 3) 해결되어야 할 문제

한중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이 앞에서 설명한 상대방의 핵심적, 전략적 이해를 얼마나 존중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이익을 촉진할 수 있는 협력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한중수교 이후 지금까지 양국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전략적 이익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한국은 중국의 영토 및 주권에 대한 주장을 존중해왔고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의 약간의 오해는 있었지만 MD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했던 것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는 미중관계가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해온 덕이기도 하지만 한미동맹을 당장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여러 전략적 갈등요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가 전략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긍정적 태도를 취해왔다. 양측의 이러한 태도는 전략적 갈등요인이 표면화되고, 한중관계발전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한중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는 중국의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는 발언(남북문제, 한미동맹 관련)들이 양국관계에 부담을 주었던 사례가 적지 않다. 그리고 중국의 성장에 대한 과도한 우려의 표출도 중국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한국이 아직 한미동맹 관계와 한중관계를 병행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 비전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문제가 반복해서 출현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중국 측에서는 자신의 부상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영토주권에 대한 정당성을 역사에서 찾으려는 시도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가 당장 대부분 주변 국가들과 마찰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중국이 장기적으로 제국질서의 복원을 기획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내의 법치를 강화해 중국이 규범과 규칙을 중시한다는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 즉 중국의 행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국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평화발전의 원칙을 계속 견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얻는 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부상과 주변국들과의 평화적이고 평등한 관계의 발전을 양립시킬 수 있는 외교적 비전을 더욱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전략적 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 4. 미래지향적 한중관계 발전 – 한중관계의 전략적 기회를 잘 활용하자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다면 중단기적으로 중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향후 20여년의 시간은 한중관계에 전략적 기회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초강대국으로의 발전하는 과정에 있지만, 낮은 사회발전 수준, 경제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대외적으로 공격적인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낮고 주변국가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계속 중시할 것이

다. 평화발전론이 이러한 의도를 잘 보여준다. 한국이 이 시기를 잘 활용해 한중관계를 평등하고 호혜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구축해간다면 한중관계는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이 시기에 분단체제를 극복해가고, 외교관계를 새로운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에 적응시켜가며 한중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만약 한국과 중국이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지 못할 경우 상술한 불안요인들이 한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한중FTA 체결 등 한중경제협력을 제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초기에는 중국측이 적극성을 보였으나 최근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적절한 시점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한미 FTA, 한EU FTA, 한일FTA 등의 순서로 추진하며 한국이 중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도 경제적인 영역에서 홍콩, 타이완과의 경제협력과 한국과 같은 비중화경제권 사이의 협력 사이에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정치군사적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전략대화, 15 트랙, 민간교류 등 각급대화채널을 체계화시키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새로운 사회경제발전 모델에 대한 탐색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과거 신자유주의적 경제모델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진행 중이다. 중국은 이미 허세사회(和諧社會) 건설을 국가목표로 제시했고, 일본의 새 정부도 우애사회(友愛社會)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새로운 담론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나 민생문제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등장했다. 이와 관련한 공동의 논의가 한중, 한중일 사이의 가치충돌을 축소시키고 신뢰를 증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에서 다자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측은 전통적으로 다자협력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왔으나, 최근 국제적으로 중국에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자주의를 전술적으로 수용해왔다. 일본 민주당 정부의 등장 이후 아시아 중시외교를 표방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에 따라 동아시아 차원의 다자대화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반면 동북아에서의 다자대화는 커다란 발전이 없다. 앞으로는 동북아 지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다자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한중일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이를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민간부문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양국 관계는 엘리트간의 협력이나 교류가 주도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민간 부문 사이의 교류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단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규범은 형성되지 않아 많은 불필요한 마찰이 생기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양국이 전략적 관점을 가지고 해결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 학술, 언론, 출판, 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5. 조중관계, 남북관계, 한중관계 : 세 가지 관계의 동시발전

조중관계는 주권국가들 사이의 관계로 한중관계의 종속변수로 다루어질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한중 양국이 각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특수관계를 맺고 있고 조중관계가 한중관계, 동북아질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중관계의 발전과 조중관계의 발전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남북관계까지 포함하면 한중, 남북, 조중 등의 세 가지 관계를 같이 발전시킬 때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조중관계가 한중관계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남북관계와 한중관계가 서로 충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에 비해, 조중관계가 남북관계 혹은 한중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이 조중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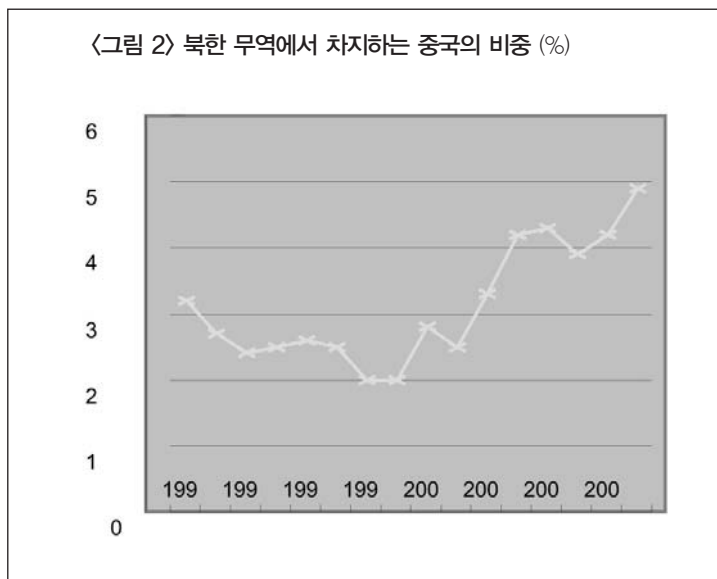
첫째, 조중관계의 발전이 비핵화를 지체시키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과 한중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북핵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의 입장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중국과 한반도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기본목표를 공유하고 있고 조중관계가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 진전되지 않는 것을 지키기 때문에 이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둘째, 조중관계의 발전이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이다. 그러나 중국은 남과 북 모두와 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추구하고 있으며 남과의 관계 때문에 북과의 관계를 희생시키거나 북과의 관계 때문에 남과의 관계를 희생시키는 것을 원하지는 않고 있다. 남한과의 경제협력과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안정을 위한 협력은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북한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에서 중국과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되는 국가이다. 따라서 남북 모두 중국에게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남북한 모두와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표 1〉 북한의 대중교역 추이(2000~2008) (단위: 백만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출액	37	167	271	395	586	499	468	582	754
수입액	451	571	467	628	800	1,081	1,232	1,392	2,033
총액	488	737	738	1,023	1,385	1,580	1,700	1,974	2,787
무역총액	2,398	2,664	2,902	3,115	3,554	4,057	4,346	4,738	5,640

셋째, 조중경제협력의 진전이 북한경제가 중국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무역통계에서 나타나는 북한의 중국의존도 증가는 양국 조중사이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제환경과 관련된 문제이다. 북한은 2000년 이후 대외교역을 증가시켜왔지만 이 시기 일본은 북한과의 교역을 사실상 중단했고 다른 서방국가와의 교역의 증가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만이 주요 무역상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제재문제가 해결되고 국제환경이 정상화된다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할 것이다. 이는 무역만이 아니라 투자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즉 조중관계 발전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목표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들이 제기될 수는 있겠지만 한중관계와 남북관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조중관계의 발전이 장기적으로 북한이 대외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핵문제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측면을 더욱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

다. 따라서 남한에게 더 중요한 것은 조중협력의 진전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취하고 이를 남북관계, 한중관계의 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조중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남한이 북·중·러·한 경제협력에 소극적인 것이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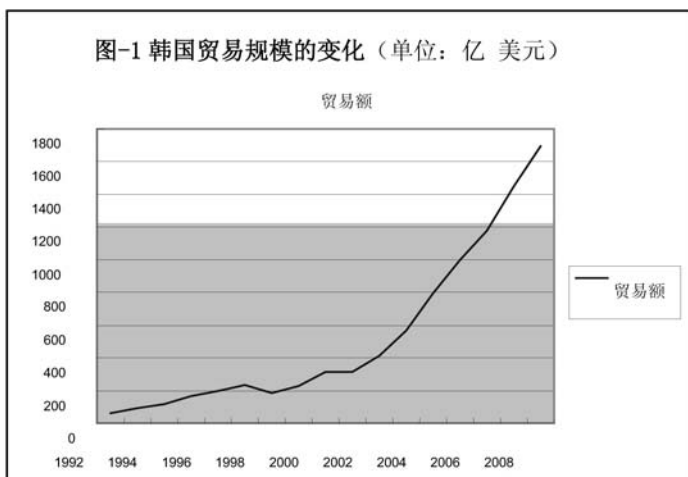
물론 중국도 조중협력이 한중협력과 남북관계의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두만강유역개발과 같은 경우는 당초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고 압록강 공동개발은 주로 중국과 북한이 주체이지만 그 성공을 위해서 한국도 투자 등의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더욱 개방적인 방식으로 이들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이 지나치게 단기적 이익에만 집착한다면 전략적 기회를 놓치는 우를 다시 범할 수도 있을 것이다.

# 谋求面向未来的中韩、中朝关系

李南周 圣公会大学中国学科政治学

## 1. 中韩关系的发展

1992 年中韩建交之后中韩关系快速发展。尤其是在经济方面取得了突出的成就。2008 年两国的交易额达到了约 1683 亿美元（按中国统计是 1860 亿美元），中国是韩国的第一大贸易伙伴，韩国对中国来



说,是继日本、美国、香港之后的第四大贸易伙伴。民间往来也有很大发展,平均每年达到了 500 万名。两国交流虽然存在着不对称的一面,但韩国对中国来说是很重要的贸易伙伴。

经济交流的增加带来了政治关系的发展。两国政治关系按照‘友好合作关系’(1992 年 8 月两国建立外交关系时)→‘合作伙伴



关系’（1998年11月访问韩国前总统金大中）→‘全面合作伙伴关系’（2003年7月前总统卢武铉访问）→‘战略合作伙伴关系’（2008年5月李明博总统的访问）顺序加深。并且两国间的高层交流也一直在顺利进行，两国外交部高层多次进行战略会晤，强化高层会晤的机制和相互之间的联系（2008年8月中韩首脑联合声明），以求实现将政治对话制度化。

中韩关系的迅速发展促进了东北亚的经济合作，现在东北亚成了经济方面最具活力的地区之一；冷战结束之后，特别是朝鲜的核问题还没解决的情况下，两国的合作一方面避免了朝鲜的核危机，另一方面朝鲜半岛与东北亚得保安定（确保了朝鲜半岛与东北亚的安定）。这为两国形成战略合作伙伴关系提供了条件。但是两国间关系发展仍然存在着不少的障碍，所以形成实质性的战略合作伙伴关系仍然需要不少的时间。

## 2. 中韩关系发展的障碍

首先，两国关系的发展受到历史的限制。中韩建交是冷战体制解体的必然结果，这也是一件重大的历史事件。但问题是中韩建交之后却没有在朝鲜半岛构筑新的和平体制。为了消除东北亚地区军事政治的对立，和建立新的和平秩序，要求中韩两国必须建交。此外，1991年韩国与朝鲜同时加入了联合国，所以中国与韩国建立外交关系只是时间问题。可是在东北亚和朝鲜半岛，需要朝鲜的参与才能建立新的和平体制，1992年中韩不是在调整外交关系的前提下（如没有解决朝鲜问题）建立了外交关系，这导致韩国与冷战时期的敌对国家苏联、中国等建立了外交关系，但是没有改善朝鲜跟美国、日本的关系。

当然造成这种情况原因之一是朝鲜之前反对所谓的“交叉承认”。1992年情况完全改变了，朝鲜希望以“交叉承认”方式来改善与美国的关系，不过中韩建交并没有促进这种转变。<sup>1</sup>与此相反，美国与韩国选择对朝鲜执行孤立政策，朝鲜以安全保障为由试图进行核试验，围绕朝核问题的矛盾越来越深化了。当时虽然具有着相当的程度差异，但主要行为者没有以战略性的思考来对待情况，而是执著于短期的利益。在排除朝鲜的情况下对东北亚新秩序的构筑推迟了东北亚和平体制的形成，并且为新矛盾的产生播下了种子，中韩关系也受到了一定的影响。<sup>2</sup>这样的历史经验告诉我们，双方只有从战略性角度处理中

---

1)在中韩建交之前，金日成对中国外交部部长錢其琛表示不是反对中韩建交，而是要求调整中韩关系发展、朝美关系的发展。但中国表示中韩关系的发展将会改善朝鲜与美国、日本的关系。这次会谈参考錢其琛的回忆录。錢其琛，《外交十記》，世界知識出版社 2003，157-160 页。

2)美国 and 韩国之所以倾向于朝鲜崩溃理论，是因为在拆除冷战时期，资本主义制度是增强力量优势的结果的过程。在中国的 1989 年的天安门事件后，接受来自西方国家的制裁，苏联在 1991 年解散，我分析中国判断只经济快速增长可以克服这一危机。中国领导人邓小平通过由 1992 年 1 月至 2 月的南巡讲话强调加快改革开放，并 1992 年的中韩国交正常也是跟这情况有关的。

韩关系或者与东北亚和平体制相关的问题，才能创造出清算地区内的对立和矛盾，使中韩关系安定发展的基础。

虽然两国已经建立了战略合作伙伴关系，但是中韩关系发展仍然存在障碍，而最大的障碍就是战略性的纠纷。

首先，韩美同盟给中韩关系发展带来负面影响尚未解决。韩美同盟和东北亚冷战结构是一起形成的。最近韩美同盟也逐渐将作战统治权移交了韩国，但是如果东北亚与朝鲜半岛的冷战结构得不到清除的话，那么将对韩国的对外关系产生重要的影响。李明博政府上台之后提出的韩美同盟强化论使得中国怀疑韩美同盟是否图谋在军事上直接或间接牵制中国。

例如，2008年5月28日李明博总统访问中国时，中国外交部发言人表示韩美军事同盟是冷战时期留下的，这种军事同盟不能解决现在世界或地区的安全保障问题，这种否定评价引起了讨论。当然因为最近中美关系发展比较稳定，而这样的趋势将持续一段时间，所以美国善变成为中韩关系发展障碍的可能性很低，但是如果韩美同盟在没有同周边国家协商的情况下而肆意追求扩张，就可能会在中韩相互信任方面产生负面影响。

此外，中国地位的急速上升造成的不确定性也是战略性纠纷产生的原因之一。中国的崛起促使中国和韩国/朝鲜半岛这些周边国家实力差距不断扩大。总数超过十三亿的人口，地域辽阔，曾经是东亚地区的帝国，中国的崛起令周边国家感到焦虑，如果考虑到冷酷无情的国家关系，那么这在一定程度上也是不可避免的。事实上，中国和周边国家自19世纪后期开始就经历过各种各样的矛盾和冲突，所以这种忧虑越来越深。中韩两国之间也有诸如19世纪末中国对朝鲜的军事干预以及20世纪50年代初朝鲜战争等不愉快的经历。虽然主要是海洋边界的划定问题，但是领土纷争也尚未完全解决，这也是让韩国恐惧中国崛起的重要原因。而且像韩国这样的周边国家如果以这种不安感与中国交往，就可能引起中国的排斥，中韩关系也可能恶化。

两国人民之间的信任不足也是中韩关系发展的主要障碍。事实上从中韩两国的民间往来与经济交流的规模来看，战略合作伙伴关系的目标一点也过不过分。但是从情感、价值的层面来看，相互信赖的增进速度跟不上交流数量的增加，两者的不平衡促使中韩两国矛盾扩大化，或者引起其他不必要的矛盾。2008年10月东北亚历史财团的调查显示59.9%的韩国人认为中韩关系“不好或很不好”，比2007年的34.5%上升了很多。相反，16.6%中国应答者的答案是“不好和很不好”。由此可见，韩国人对中国有着更加否定性的评价。但是留学生的频繁交流，两国之间信息的非对称性下降，在韩国贬低或者批判中国的言行会很快传入中国，这使得情感上的冲突扩大的事件频频发生。最近在中国出现所谓的反韩流的现象也可以归结于此。这样下去可能会给中韩关系的发展带来巨大的不利影响。

### 3. 中韩关系的现状

这个问题的存在不会使中韩关系立即恶化。任何一种国家关系都存在着一些问题。但是两国为了发展真正的战略关系，也很难回避上述问题，必须正确认识这些问题并不断的为解决问题而努力。现就中韩双方对中韩关系的战略和态度做如下评价：

#### 1) 中国对中韩关系的立场

在崛起的过程中营造一个友好的周边环境，是中国对外关系中的一个重要目标，因此中国谋求与韩国发展稳定的合作关系。中国注重同各个重要国家发展“战略性合作关系”，这其中的重要目标可以说是为了让国际社会认可中国的崛起。因此，中国也与韩国发展战略合作伙伴关系，目的是切断韩国政治军事制约中国的可能性。

中韩经济合作关系的发展被认为是中韩关系发展的最重要的基础。比起在中韩关系中切实提高政治军事合作或者试图尽快解决与此相关联的问题，中国更致力于通过经济合作的持续发展为中韩关系的发展强化基础。中韩之间存在的诸多政治军事问题只通过双方关系很难解决，所以这可以称为非常现实的接近。但是为了促进持续稳定的经济合作，需要合作的制度化和相互信任度的增加，所以政治合作也在稳步的发展。

朝鲜半岛正在追求防止武装冲突，维持和平的局面。为此选择了主张南北和平共存，努力和南北都建立合作关系的战略。也就是说，经济上是中韩关系超越中朝关系，但从理念、历史、地政学等因素考虑的话，中韩关系并没有使中朝关系受到损害。

#### 2) 韩国对中韩关系的立场

韩国对中国的政策表面上看似乎是改变了很多次。如李明博政府上台之后提出的“中韩关系速度调节论”，以韩美同盟和中韩合作关系为替代品的主张出现了，这样看起来韩国对华政策出现不少的变化。但是到现在为止，政权交替并没有影响中韩关系的稳定发展。在韩国不管持有什么理念倾向的政府上台，和新崛起的大国中国保持稳定的合作关系正成为韩国重要的外交目标。尤其是对韩国来说，和中国长期发展平等互利的关系很重要的目标。

韩国也非寻常重视与中国的经济合作，未来的 20 年间可能一直维持高速发展的中国已经是韩国最大



的贸易伙伴，两国之间的经济合作会更加强化，所以与中国能否发展互惠互利的经济合作关系会成为韩国经济持续增长的最重要变数。最后，使中国对朝鲜半岛和平统一采取友好态度是韩国对中关系上最应重视的长期目标。

### 3) 需要解决的问题

中韩关系的稳定发展在于前面提到的如何尊重对方的核心的、战略性的理解，以及促进这种战略利益的合作关系能否持续。到现在为止，中韩建交之后两国基本上采取了尊重对方战略利益的态度。

韩国一直尊重中国所主张的领土权，虽然在战略柔韧性问题上存在一些误解，但对 MD 的根本性反对就是其中一例。对于中国，中美关系一直向肯定的方向发展，中国没有把韩美同盟当作是其与韩国关系发展障碍的原因。

尽管存在着很多的战略纠纷，但是两国关系应该成为战略性关系，在这一点上，中国也一直采取肯定的态度。双方的这样的态度使战略纠纷的因素表面化，能够防止对中韩关系发展的否定影响。

但是给中韩关系带来否定影响的行为也不是绝对不存在，比如韩国的容易引起中国误会的发言（关于韩国与朝鲜的问题，韩美同盟）等，给两国关系造成负担的实例也不少。还有韩国对中国的崛起表现出的一些过度的担心，这也都给中韩关系造成了负面的影响。韩国，到现在为止没有找到战略性的方法使韩美同盟与中韩关系能够同时发展，这是造成问题反复出现的根本原因。

中国是为了消除因自身的崛起而产生的不确定性，需要采取更积极的态度。与此相关，当中国试图在历史中找到享有领土主权的正当依据时，应该采取谨慎的态度。这样的试图不仅仅可能引起与周边国家的冲突，也会导致对中国长期计划恢复帝国秩序的怀疑的增加。还有中国要强化法治，表明中国始终是重视法律法规可以信赖的国家。即现在中国所主张的和平发展原则继续坚持下去才是能得到信赖的关键。更重要的是明确地提出能够使中国崛起与发展和其他国家之间的和平平等关系并立的外交方法，并要强化与此相关的战略性讨论。

## 4. 展望中韩关系的发展 - 把握好中韩关系的战略性机会

如果韩国对发展和中国的关系采取谨慎态度，那么短期内中韩合作关系发展上应该不会出现很大的问题。而且可以说以后的 20 年是中韩关系的战略性机会。虽然现在中国处于向强国发展的过程当中，但是由于社会发展水平低及经济上的不平等等问题，中国不太可能采取攻击性的政策，而是会继续重视与

周边国家维持友好关系的政策。‘和平发展论’就清楚地表现了这一意图。韩国应该利用这个好机会，应当坚持和平互惠发展，加强基础制度建设促进中韩关系快速发展。在这一时期，韩国要克服纷争体制，使外交关系适应新的朝鲜半岛和东北亚秩序，强化发展新阶段中韩关系的基础。如果中韩抓不到这个机会，中韩关系发展可能受到负面的影响。为了使中韩 FTA 签订等中韩经济体制制度化，应加强的努力。因为初期中国表现出了积极性，但是最近采取了消极的态度，所以韩国有必要在合适的时间建立新的势力。尤其是如果按照韩美 FTA, 韩 EU FTA, 韩日 FTA 等的顺序来推进，韩国要避免‘意图性的’排除中国的印象。中国在经济领域，要防止与香港、台湾这样的非中华经济圈地区的经济合作与韩国的不对称。为了增进政治军事的信赖，有必要使双方的战略对话，民间交流等方式系统化，制度化。

在探索新的经济社会发展的模式方面，应该强化合作，世界金融危机之后对过去的新自由主义经济模式的批判性讨论正在进行中。中国已经提出‘建设和谐社会’的目标，日本的新政府也是提出了‘友爱社会’的目标。韩国没有提出和他们类似的目标，但是民生问题成为了最重要的政治性议题。与此相关的共同研究能够减少中韩日之间的价值冲突，也是提升相互间信赖度的契机。

在东北亚要强化多边合作，中国对多边合作一直持否定态度，但是最近中国为了在国际关系上形成友好的气氛，为了牵制美国的单边主义而战略性地采取了多边主义。日本民主党上台之后，标榜着重视亚洲外交。但东北亚层次的多方对话并没有比较活跃地进行，而是没有什么很大的改变。今后，为在东北亚地区发展新形态的多方合作，需要更加努力，中日韩三国首脑会谈的惯例化会为其创造出新的势力。为了增加民间信赖度也需要不断的努力，两国关系已经超过了精英之间的合作和交流所主导的阶段，向民间交流占重要比重的阶段发展。但是针对这些变化的规范还没有形成，所以产生了许多不必要的摩擦。关于这个问题两国应该从战略性的观点讨论解决方法，实现学术，舆论，出版，文化等多方面的合作。

## 5. 中朝关系，朝韩关系，中韩关系：三种关系的同步发展

我们不应该把中朝关系作为主权国家之间的关系和中韩关系的从属关系来对待，但是因为中韩两国分别与朝鲜人民民主主义共和国建立了特殊的关系，中朝关系对中韩关系和东北亚关系都有很大的影响，所以需要同时考虑中韩关系与中朝关系发展。包括朝韩关系在内的

中韩、中朝、朝韩三种关系同时发展的时候，才能促进朝鲜半岛和东北亚的和平与发展，其中最大的问题是中朝关系对中韩关系和朝韩关系的影响。因为，比起认为朝韩关系和中韩关系相互冲突的人，更多的人认为中朝关系会给朝韩关系与中韩关系带来负面影响。中朝关系负面看法产生的原因有以下。

第一，中朝关系的发展放缓了‘无核化’进程，因此对改善朝韩关系和中韩合作产生了负面影响。根



据形势的不同，韩国和中国关于朝核问题的立场可能存在差异。但是因为中国与朝鲜半岛有着共同促进朝鲜半岛和平与无核化的基本目标，而中朝关系脱离这一框架的话就不会有进展，所以不用过于忧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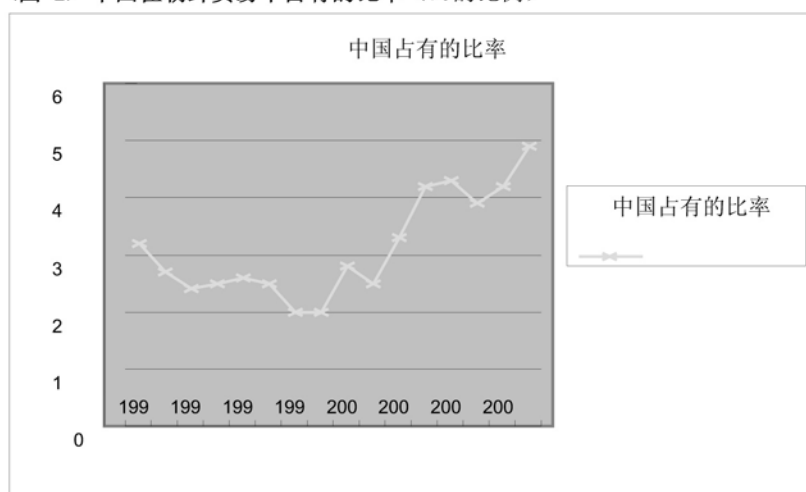
第二，是担心中朝关系的发展会引起中国对朝鲜半岛政策的变化。但中国追求与韩国和朝鲜共同发展合作关系，中国不希望因发展中韩关系而牺牲中朝关系或因发展中朝关系而牺牲中韩关系。中国和韩国的经济合作以及为了朝鲜半岛和东北亚安定的合作，是成功推进中国改革开放政策的重要因素。因为朝鲜在非常重要的区域与中国接壤，所以是中国维持周边国家稳定的关键国家。因此韩国和朝鲜对中国来说都具有很重要的战略性意义，中国正试图同时发展与韩国与朝鲜的合作关系。

第三，中朝经济合作的发展可能导致朝鲜与中国经济上的从属关系。但最近朝鲜对中国依赖度的增加不仅仅是中朝关系的问题，更是有关国际环境的问题。朝鲜 2000 年以后增加了对外交易，但实际上日本中断了与朝鲜的交易，在与其他西方国家的交易几乎没有增加的情况下，中国和韩国就成了朝鲜的主要贸易国家，所以中国的贸易比重提高了。如果制裁问题得到解决，国际环境正常化，中国占有朝鲜对外贸易的比重会逐渐减小。这不仅表现在贸易额上，而且表现在投资上。

〈表 1〉 朝鲜的民间贸易趋势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出口额	37	167	271	395	586	499	468	582	754
进口额	451	571	467	628	800	1,081	1,232	1,392	2,033
总额	488	737	738	1,023	1,385	1,580	1,700	1,974	2,787
贸易总额	2,398	2,664	2,902	3,115	3,554	4,057	4,346	4,738	5,640

〈图-2〉 中国在朝鲜贸易中占有的比率（%的比例）



即，不用过于担心中朝关系的发展。因为韩国与中国的战略性目标不可能完全一致，所以可能出现这样的担心，但没有直接威胁中韩关系和朝韩关系的问题。反而更重要的是为中朝关系的长期发展，朝鲜对外开放的积极进行，可以对朝核问题做出战略性决断等创造良好的环境，所以对于韩国来说，更重要的是，对中朝关系的进展采取开放式的态度，并为了把中朝关系与朝韩发展、中韩发展联系起来而提出战略。中朝经济合作的活跃进行本身并不是问题，韩国消极地对待朝-中-俄-韩经济合作才是问题所在。

当然，中国为了使中朝合作与中韩合作和朝韩关系发展连接起来，也需要努力。特别是像豆满江流域开发一样，当初就是作为国际合作项目推进的，而鸭绿江共同开发的主题虽然是中国和朝鲜，但是韩国也在投资等方面发挥了积极的作用。考虑到这些，我们应该以更开放的方式推进这些开发项目。如果中国过分地执着于短期的利益，会再次犯下错失战略性机会的错误。

# 조선(한)반도 비핵화와 지구 비핵화

원산 신화통신 영문주간지 편집인

먼저 송레이(熊蕾) 발표자의 중조관계에 대한 생각에 동의합니다. 중국과 조선(북)인민은 줄곧 깊고 두터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들의 국토가 접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서로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모두 열강의 침략을 받아 국토가 식민지·반식민지로 전락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수많은 훌륭한 의사들이 피를 흘리며 싸운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라는 영화 한편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최근 한국이 친일파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중국이 배울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여기서는 중조와 중한 관계를 논하지만, 지금 쌍방관계는 모두 조선의 핵 문제와 떼어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조(북)핵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북)핵문제는 줄곧 사람들이 비교적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로, 조선(한)반도의 평화는 세계 인민이 희망하는 것이고, 더욱이 동북아지역 인민이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마땅히 더 전면적이고 더 깊이 있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지구의 비핵화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핵무기의 전면금지과 철저한 폐기를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이 전제로부터 벗어나서 어느 지역의 비핵화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게다가 이것으로서 확정을 짓는다면, 수 만발의 핵탄두로 가득 찬 이 세계에서, 어느 지역 또는 어느 국가의 단독 비핵화가 지역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핵무기가 등장한 이래 세계에는 단지 한 차례의 원자탄과 세 차례의 유사 핵무기 사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사용이라고 표현하지 핵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모두 핵무기 또는 유사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아, 핵무기 또는 유사 핵무기 공격을 받은 국가와 지역은 모두 비핵국가와 비핵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제1차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미국이 일본지역에 투하한 원자탄으로, 이는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3차는 미국과 나토군대가 걸프전에서, 유고 공격과 이라크에서 사용한 우라늄탄입니다. 우라늄탄은 우라늄 238로 제조한 것인데, 우라늄은 원자탄과 대등한 것으로, 그 원리나 인류 및 환경에 대한 파괴로 볼 때 영락없는 핵무기입니다. 코소보의 한 지역에서, 미국과 나토군대가 투하한 3000~5000발의 우라늄탄은 지역의 백혈병 유아와 암 사망자 수를 상승시켰으며, 심지어 영국·미국병사들조차도 이를 모면할 수 없었습니다. 유엔환경국의 계산에 따르면, 이라크전쟁 중 미영 연합군이 사용한 무기에는 우라늄이 1000톤에서 2000톤 가량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우라늄탄은 수만에 달하는 무고한 일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았고, 우라늄탄의 방사능 피해가 인민들에게 가져온 엄청난 피해와 고통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미국과 나토군대가 우라늄탄을 사용한 결과에 관해서, 유엔 및 각 방면의 전문가들 모두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여 우라늄탄의 방사성 오염 및 인류와 환경에 대한 파괴를 완전하게 증명해 냈습니다. 아주 유감스러운 것은 설사 이렇다 할 지라도, 유엔도 우라늄탄을 사용하는 것을 질책하고 금지하는 결정을 만들어 내지 못했고, 우라늄탄을 사용한 국가도 일반인과 인류사회가 재난을 겪기 전에 다시는 일방적으로 핵무기나 유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사실은 지금의 세계는 여전히 전쟁이 발생할 불안정한 요소로 가득 차 있으며, 인민은 전쟁 중에 끊임없이 엄청난 피해를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만약 우리가 단지 한 개의 작은 나라 또는 어느 지역 단독으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결정이나 약속을 하도록 요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에게 같은 결정과 약속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면 현명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불평등, 현명하지 않은 전제가 조선(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보장할 것이라는 것은 완전히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유엔헌장〉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평등하고, 인구는 인종·종교·언어로 차별 받지 않고 모두 평등하며, 소위 평등이라는 것은 대국·소국 할 것 없이 모두 평등한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느 국가는 핵무기를 가질 수 있고, 어느 국가는 핵무기를 개발 할 수 없다고 정한 것입니까? 만약 약소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정을 위협한다고 말한다면, 그럼 강대국이 더 많은 수와 살상력이 더 강한 핵무기를 갖는 것은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한 쪽은 질책하면서 다른 한 쪽은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저는 설사 조선(북)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입장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조선(한)반도의 현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선(북)이 핵무기 개발의 입장을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기타 중소국가가 핵무기를 이용해 국방능력 증강을 꾀하려는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선(북)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 1990년대 초반부터 미국이 계속해서 아프간·유고·이라크 등의 주권국가에 대해 진행한 전쟁은 일반인의 엄청난 사상을 초래했으나, 국제사회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기의 국방력에 의지하는 것 이외에는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부시 행정부는 무책임하게 조선(북) 등의 국가를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런 일방적인 규정은 국제 긴장 정세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악의 축'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데, 만약 대규모 살상무기를 획득하려 하는 것이 악마 국가의 기준이라면, 이미 대규모 살상무기를 갖고 있는 미국은 이렇게 비난 할 자격



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충동적이기 쉬운(충동을 일으키기 쉬운) 것으로 ??악의 축?? 또는 ??불량 국가??로 규정한다면, 조선(북) 및 모든 조선(한국)민족이 200년 동안 한반도 대외침략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것과 비교해, 아메리카 합중국은 건국 후 200년 동안 모두 69번이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관여했습니다. 남북전쟁과 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더라도 67번의 전쟁이고, 냉전 종식 이후 2008년까지 총 12번의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충동적인 국가입니까? 미국의 이중 잣대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언제 어떤 이유에서 전쟁의 타격을 입게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사람들을 강자가 왕이고, 약자는 수모를 받을 대로 받는 밀립의 법칙 속에 놓이게 합니다. 2차 대전 후 쉽게 이루기 어려운 국제준칙은 빈 껍데기 같았고, 이는 핵무기 확산의 진정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이 밖에 중국인으로서 저는 중국이 백 년 넘게 외국의 침략을 받아온 역사에 대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한)민족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문제에서 그들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선(북)인민은 일본에 의해 반세기 가까이 통치를 받았고, 몇 명의 일본 불한당들이 놀랍게 황궁에 들어가 국모를 살해했는데, 조선인민의 입장에서 보면, 주권은 바로 생명권인 것입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지금의 정책을 버리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의 문을 자신의 이익 쇠사슬로 본다면, 여전히 조선민족의 내부에서 한쪽은 지지하고 다른 한쪽은 강압한다면, 조선(한)반도의 긴장 국면은 근본적인 개선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조선(한)반도는 세계가 불안정해 질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선(한)반도의 인민도, 미국의 인민도 모두 이런 정책의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 朝鲜半岛无核化与全球无核化

云杉

首先，我很赞同熊蕾女士对于中朝关系的看法，中国和朝鲜人民，一直有着很深厚的感情，不仅仅因为我们国土相依，更重要的是，我们有着相同的历史背景，我们都有过被列强侵略、国土沦为殖民地、半殖民地的历史，都有过无数仁人志士浴血而战的记忆。多年以前，看过一部影片《安重根刺杀伊藤博文》，感觉很震撼。最近看到报道，韩国正在追查韩奸，我很欣赏，值得中国好好学习。虽然这个单元是谈中朝和中韩关系，可是目前在这两个双边关系中，朝核问题都是一个绕不开的问题。所以我还是想借这个机会，就朝核问题，谈谈我的看法。

关于朝核问题一直是人们比较关注的一个问题，朝鲜半岛的和平是世界人民所希望的，更为东亚地区的人民所期盼，因此，我希望在这个问题上应该有更全面更深入的认识。

我简述一下我的基本观点：实现半岛无核化的前提应该是全球无核化。我们一贯主张全面禁止和彻底销毁一切核武器，如果离开这个前提来就某一地区的无核化进行讨论，并且由此认定，在这个充斥着上万枚核弹头的世界里，某一地区或者某一国家的单独无核化能保障该地区的和平，那是完全不切实际的。

从核武器问世以来，世界上只发生过一次原子弹和三次类核武器使用事件。我用的是“使用”，而不

是“核战”，因为对方都是没有核武器或者类核武器的，受到核武器或者类核武器攻击的国家和地区恰恰都是无核国家和无核地区。

第一次是二战结束前美国在日本地区投掷的原子弹，这个众所周知。后来三次是美国和北约军队在海湾战争、进攻南联盟和在伊拉克使用的贫铀弹。贫铀弹是铀 238 制造的，所谓贫铀，只是相对原子弹而言，从其原理和以及对人类、环境的破坏，是不折不扣的核武器。在科索沃一地，美国和北约军队就投下了 3000~5000 枚贫铀弹，致使这个地区的白血病幼儿和癌症死亡人数成几何数字上升，甚至连英美士兵都未能幸免。伊拉克战争中，根据联合国环境保护署的专家计算，美英联军所使用武器中贫铀含量在 1000 吨至 2000 吨之间。贫铀弹导致数以万计的平民无辜死亡，而贫铀弹的放射性伤害更是无法预计，给人民带来的巨大的伤害和痛苦。

关于美国和北约军队使用贫铀弹的后果，联合国以及各方面的专家都有调查和研究，完全证实了贫铀弹的放射性污染以及对人类和环境的破坏。非常遗憾的是，即使这样，联合国也没有作出禁止和谴责使用贫铀弹的决定，使用贫铀弹的国家，也没有在平民和人类社会所承受的灾难前做出不再单方面使用核武器和类核武器的承诺。

那么，我们必须看到的事实就是，在现在的世界上，仍然充满了发生战争的不确定因素，人民在战争中不断承受的巨大伤害。在这样的现实中，如果我们仅仅要求一个小国或者某个地区单独做出不发展核武器的决定或者承诺，而不去要求世界上具有最大核武器的国家做出同样的决定和承诺，既不是明智的，更不是平等的，用这种既不平等，也不明智的前提来保证朝鲜半岛和世界的和平，是不切实际的。

根据《联合国宪章》的规定，国家之间平等，人类不分种族、宗教、语言，一律平等，所谓平等，就是大国小国，权利平等。那么，谁规定了哪个国家可以拥有核武器，哪个国家不可以发展核武器？如果说小国弱国发展核武器是威胁到地区或者世界的和平稳定，那么大国强国拥有数目更多、杀伤力更大的核武器不是更加威胁到世界的稳定与和平？我们为什么谴责一方而忘掉另一方？我认为，即使北朝鲜放弃了发展核武器的立场，也不会根本性改善半岛局势的现状，即使北朝鲜放弃了发展核武器的立场，也不会改变其他中小国家谋求用核武器增强国防能力的趋势。重要的是，我们应该看到，朝鲜发展核武器的原因是什么。

从上个世纪九十年代始，美国连续对阿富汗、南联盟、伊拉克等主权国家进行的战争，造成了平民的极大伤亡，国际社会没有对这样的行动作出任何制衡，这就给人们留下了这样的结论：除了依靠自己的国防力量，没有任何可以选择的途径。

其次，布什政府不负责任地认定北朝鲜等国是“邪恶轴心”，这种单方面认定加剧了国际紧张局势，

人们甚至不知道“邪恶轴心”的标准是什么，假如试图获取大规模杀伤武器是“邪恶国家”是标准的话，那么作为已经具有“大规模杀伤武器”的美国来说，有什么资格提出这样的指责？如果用“容易冲动”来界定所谓的“邪恶轴心”或者“无赖国家”的话，那么，北朝鲜或者整个朝鲜民族在 200 年中没有发动过一次对外侵略战争，相比之下，美利坚合众国在建国后的 200 年中共发起和卷入 69 场战争，除南北战争与二战外，是 67 场战争。冷战结束后至 2008 年，共 12 场战争。请问，谁是容易冲动的国家？在美国的双重标准前，人们无法预料，自己的国家在何时出于何种原由，就可能会遭受到战争的打击。这种不安全感使人们置身于丛林规则之中，强者为王，弱者备受欺凌。二战后来之不易的国际准则如同虚设，这就是核武器扩大化的真正动因之一。

此外，我特别想说明的是，作为中国人，我对中国一百多年来备受外国侵略的历史记忆犹新，我非常理解朝鲜人民在发展核武器问题上的立场，朝鲜人民被日本统治近半个世纪，几个日本流氓竟然能够闯入皇宫杀害国母，对朝鲜人民来说，主权就是生命权。

如果美国政府不放弃现有政策，把别人的国门视为自己的利益链，仍然在朝鲜民族的内部，支持一方而压制另一方，朝鲜半岛的紧张局势就不会得到根本性的改善。朝鲜半岛就会成为世界动荡的导火索，而朝鲜半岛人民，也包括美国人民，都会成为这种政策的受害者。

# 미래지향적인 한중·북중 관계의 모색

주장환 한신대 중국지역학과

## I. “미래지향적인 한중·북중 관계의 모색” 논평

필자는 전반적으로 한중과 북중 관계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중심에 두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한중과 북중 관계가 발전할 수 밖에 없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빠져있어서 아쉽다. 필자의 생각의 근거에는 이 양자 관계는 발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듯 하다. 따라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이 양자 관계가 왜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회가 되면 밝혀줬으면 한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양자 관계는 다른 여타 국가와의 관계와 같이 발전, 유지, 퇴보 중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 또한 있기 때문이다.

또 필자가 본문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는 이들 양자 관계에 대한 보다 전략적인 상(혹은 발전 방향)에 대한 필자 스스로의 견해가 궁금하다. 이는 일본의 새로운 정권의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진행 될 수 있는 새로운 동아시아 더 좁게는 동북아 질서 구축과도 관련한 것이면 좋겠다.

## II. 미래지향적인 한중·북중 관계의 모색을 위한 제언

이상과 같은 간단한 논평을 기초로 본인은 미래지향적인 양자 관계 모색을 위한 몇 가지 원칙적인 수준에서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중국은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현재 G2로써 인정받고 있고, 최소한 지역 강대국으로서는 이미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부담스러워 하는 G2라는 용어를 제외하고라도,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일례로 중국의 인접국인 인도, 아세안, 일본과 같이 영해, 영토 및 역사 등을 겪고 있는 나라와, 소수 민족 문제 등으로 언제든지 갈등이 격화될 수 있는 중앙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모순이 덜 격렬한 한국과 북한 등의 국가 등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는 중국의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부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두 국가에 대해 현재의 비균형적 접근 즉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 중심/북한에 대해서는 정치 중심'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중국으로서는 역으로 한국과 북한에 대한 균형적 접근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칫 중국의 주변 안보 환경에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단 체제의 해소에 지금까지의 태도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 한국은, 일부 중국의 학자들을 포함하여,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고 붕괴될 수도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소위 '북한 급변사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 없이, 이러한 단정적 가설은 무엇보다도 국익의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체제 전환에서 급진적 방식은 점진적 방식보다 그 비용이 더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제적 경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급변 사태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각도에서 바라봤을 때 매우 불행한 것이며, 이의 직접 피해 당사자는 한국이 될 것이다. 북한 체제의 점진적 변화를 촉진 내지 유도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주요 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중 관계의 측면에서도, 이른바 '좋은 이웃', '나쁜 이웃'의 이분법이 아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다중적인 존재로서 중국을 인식해야 한다. 위의 이분법은 친중/반중의 비 현실적인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더불어 보다 복잡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를 제거한다. 거대한 이웃 국가의 부상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추세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중장기적으로 한국은 '用中'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결론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중·북중 관계는 각국의 발전이 자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호적인 관계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각국이 취하는 것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제일 기본적인 것은 6자 회담을 통한 북한 핵 문제의 해결에 대한 성실한 태도와 이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은 보수적으로 보아도, 북한의 체제 안정과 경제 발전, 중국의 주변 외교 안보적 차원에서의 위협 요인 소멸과 경제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생산 기지 및 소비 시장 확보, 한국의 안보 위협 요인 소멸등의 이점을 각국에게 줄 수 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중국은 2005년 Banco Delta Asia Bank 사태 이후 보여줬던, 즉 6자 회담의 신속한 진행을 원하지 않는 듯한 입장을 취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유보적인 태도는 결국 북한이 핵을 실험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또 6자 회담의 주도권을 결국은 북미간의 문제로 국한시켜 중국의 영향력 강화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6자 회담의 지체가 국익에 부합되는지를 다시 판단하고, 국익에 부합한다면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인 중재자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 “谋求面向未来的中韩, 中朝关系” 讨论文

周长焕 韓神大學校 中國地域學科

## I. “谋求面向未来的中韩, 中朝关系” 评论

报告人把给中韩和中朝关系的发展带来否定影响的原因作为重点进行了全面地分析, 但是比较缺少对  
中韩和中朝关系应该会发展的原因进行分析, 对此我感到有些遗憾。即报告人想法的基础是以两国的  
关系必须发展为前提的。所以我们可以发现报告人的意图是为了更进一步的发展而寻找某些东西。如果有  
机会能从根本上说明两国关系为什么应该发展就更好了。这是因为, 现实中两国的关系和其他国家之间  
的关系一样, 有在发展、维持和退步中进行战略性选择的余地。

另外, 报告人在本文中多次谈及两者之间的战略性发展方向, 对此, 我十分想知道报告人自己的见解。  
因为日本新政权的政策变化, 东亚及东北亚秩序的构筑得以进行, 如果有这方面的相关见解就更好了。

## II. 为了谋求面向未来的中韩, 中朝关系的提议

以上面的简单的评论为基础，我想对谋求面向未来的两国关系提出几条基础性建议。

1. 中国已经被认定为是现代的 G2 国家，至少作为地区大国已经无可厚非。即使把中国感到负担的 G2 这一用语除外，中国也应该考虑其作为地区大国的作用。这一地区国家可以分为三类：一是像和中国接壤的印度、东盟、日本一样饱受领海、领土和历史争议的国家；二是因为少数民族问题随时都有可能矛盾激化的中亚国家；还有相对来说矛盾并不十分激烈的韩国和朝鲜等国家。

在这种情况下，对于中国作为地区大国的崛起，朝鲜半岛算是持有比较友好的态度的地区。在这一方面，为了克服中国对朝鲜半岛不均衡的，即“对韩以经济为中心、对朝以政治为中心”的接近，中国需要战略性接近。如果想要更积极的发挥作用，中国应该对韩国和朝鲜的均衡接近提出具体的计划，而且对于稍不注意就会给中国周边的安全环境带来严重的恶性影响的结盟体制，中国应该在消除这一体制上采取更加积极的态度。

2. 韩国，包括一部分中国学者应该从朝鲜体制不安定，很有可能崩溃的思想中脱离出来。对所谓的“朝鲜急变事态”给韩国的影响不加判断，这种武断的假设，对国家利益来说比任何事情都要显得毫无意义。一般国际经验中，在体制转换中采取激进方式会比渐进方式花费更多的费用。因此，朝鲜急变事态从朝鲜半岛安定与和平的角度来看，是非常不幸的事情，而它的直接受害者将会是韩国。促进乃至诱导朝鲜体制的渐进性的变化应该成为朝韩关系的主要原则。

在公众关系的层面，也不应该持有所谓“好的邻居”，“坏的邻居”的两分法，而是把中国作为一个既好也坏的多重性的存在来认识。上面的两分法强求亲中或反中的非现实性的意识形态，同时摒弃了构建比较复杂的战略的基础。现实地承认强大邻国的崛起，将这一趋势利用到有助于国家利益的方面上，在这一意义上，韩国在中长期之内应该持有“用中”的姿态。

3. 总的来说，各国应该认识到其他国家的发展会有利于本国的发展，为了建立友好的关系各国应该通过采取实际的措施，将面向未来的中韩中朝关系具体化。可以说根本在于用诚实的态度通过六方会谈解决朝鲜核问题，以此实现构筑朝鲜半岛和平体制。朝鲜半岛和平体制的构筑，保守的来看也会给各国带来多方面利益。例如，朝鲜的体制安定和经济发展；中国周边外交安全上威胁因素的消灭，经济上新的生产基地和消费市场的确保；韩国的安全威胁因素的消灭，经济上新的生产基地和消费市场的确保等。

为此，中国继续采取 2005 年澳门汇业银行（ Banco Delta Asia Bank ）事件以后的立场，即不希望六方会谈迅速进行的立场是不行的。这种保留的态度可以认为是后来朝鲜进行核试验的背景之一。并且，六方会谈的主导权最后也被朝美之间的问题所限制，而在中国的影响力强化方面也是否定的。韩国应该重新判断六方会谈是否符合国家利益，如果符合国家利益，应该发挥比现在更加积极的仲裁者的作用。

# 미래지향적인 한중·북중 관계의 모색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 한중관계

한중관계는 지난 1992년 8월 국교정상화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양국관계는 정치적으로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공식화하였고, 경제적으로 중국은 한국의 제1의 교역대상국이자 해외투자국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상의 양국관계 발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애요인이 남아 있다는 발표자의 견해에 대체로 동의한다. 그러나 발표문에서 한중관계의 장애요인으로 △냉전 구조에 기초한 한미동맹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인한 불확실성 △민간차원의 신뢰부족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한중관계 장애요인을 양국관계로 국한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중관계의 발전을 제한하고 동북아 지역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기본요인은 한중관계 자체보다는 미중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전환이나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동북아 지역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미국의 역할이나 미중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발표문에서 제기한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병행발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1차적 책임은 한국인지 미국인지, 가능한 방안은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 2. 북중관계

발표문에서는 북중관계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발표자는 남북관계-북중관계-한중관계의 병행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과 북중관계와 한중관계-남북관계가 긴장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중 3자 관계가 병행 발전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북중관계와 한중관계-남북관계는 상황에 따라 긴장관계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 원인은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남북관계 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즉,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을 국제적으로 고립 또는 압박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경우 북중관계와 한중관계-남북관계는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국의 대북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 특히 북한체제의 안정적 유지를 바라고 있다. 이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드러난 중국의 태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내부의 논란 끝에 나타난 중국의 정책방향은 △북중관계를 과거의 혈맹관계에서 실리주의적 정상국가 관계로 전환 △북중관계로 인해 미중관계가 손상되는 것에 반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한 북한체제의 고립이나 붕괴 반대 △제재의 목적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입장을 바탕으로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북한 강경대응의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차단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따른 조치는 이행하지만 이로 인해 북중간의 정상적인 협력이 손상되기를 원치 않았다. 안보리 제재결의안 발표 직후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우리는 사물의 옳고 그름을 근거로 입장과 정책을 결정한다. 북중 사이 정상적 교류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고 밝힌 점도 이러한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안보리 제재 결의안 발표 이후 북중 경제협력이 위축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게다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양자간 회담의 재개 및 북한의 다자회담 복귀 등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통해 금년 초에 양국수교 60주년을 위해 예정되었던 대규모 경제지원 및 협력사업 등을 발표하였다. 이는 안보리 결의안에 기초한 대북제재 국면이 사실상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발표문에서는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의 심화는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 1990년 이후 북한의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1990년 초반이후 북한 전체 교역량의 25-30% 수준을 매년 유지하였으나, 2002년 이후 북한의 전체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대되어 2008년도의 경우 27억 8천 7백만 달러로 북한 전체 교역액(남한제외)의 70%를 넘어서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 심화는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의 시장에서 중국산 소비재의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산업부문에서도 중국산 원자재와 중간재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중국 경제의존도 심화는 중국 상품의 저렴한 가격, 낮은 거래비용, 지리적 이점 등의 경제적 이유와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제재해제와 경제지원 확대, 남북경협 확대 발전, 북일관계 정상화 등이 이루어진다면 대중국 의존도는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의 북핵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대북 제재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가 구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3.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 및 입장

중국은 국가목표의 가장 우선적 순위를 경제발전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 내부는 물론 주변정세의 안정유지를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주변국의 안정은 중국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중요한 한 축이다. 이러한 국가목표 하에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유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북한 체제의 유지 △한반도 비핵화 △북한 난민의 중국 유입 억제 △중국 동북지역 및 조선족 내 한국민족주의의 영향 억제 △한국과 경제 협력 확대 등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현재 경제성장과 미래의 지속 발전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된 평화유지 정책이다. 최근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점도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통한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의 대외적 환경을 만들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안정과 지속발전을 이루는데 있어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과의 정치, 외교적 충돌을 피하는 최선의 길이기도 하다.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제재나 군사적 방법은 중국의 안정과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고수하는 것이다.

둘째,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인식된 한반도 평화의 절실함이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중국과 미국의 갈등관계를 증폭시킬 수도 있는 민감한 대상인 한반도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관리해냄으로써 미-중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 과거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이 모두 한반도를 중심으로 촉발되었다는 역사적 교훈 앞에서 중국의 한반도 평화적 관리정책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산물이기도 하다.

셋째, 중국은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현상유지를 원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최소한 중국의 성장과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인식이 깔려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이 중국의 발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균형점을 이루고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치를 막아주는 방패지역으로 기능하고 있고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의 최대 동반자의 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 안보와 경제의 두 측면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셈이다.

넷째, 남북한에 대한 균형정책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정치적 수단을 통해,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적 수단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적 균형을 이룬다는 점이다. 즉, 북한에 대해서는 전통적, 이념적 전통을 상징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실천에서는 실리주의를 관철하는 양면전술을 구사,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관계의 적극적 확대와 더불어 정치, 외교 안보 등 전면적 관계발전을 모색해나가는 것이다.

# “谋求面向未来的中韩, 中朝关系” 讨论文

洪翼杓 對外經濟政策研究院

## 1. 中韩关系

1992年8月中韩建交以后, 中韩关系在政治、经济和社会文化领域都有了飞跃的发展。政治上, 2008年5月李明博总统访问中国时正式确立了“战略合作伙伴”关系。

经济上, 中国是韩国最大的贸易伙伴和第一大海外投资对象国。但是报告人指出, 尽管两国关系在表面上有如此大的发展, 但是想要形成实质性的““战略合作伙伴”关系, 仍然还有一些障碍因素。我大体上同意这一见解。

报告中提出了△以冷战结构为基础的韩美同盟 △中国迅速崛起而产生的不确定性△两国人民之间缺乏信任等几点障碍因素, 这把两国关系的障碍因素局限在了两国之间。事实上, 制约中韩关系发展, 导致东北亚地区不确定性的基本原因, 不仅仅在于中韩关系本身, 而更多的在于中美关系。因此, 为了缓解因为韩美同盟转变和中国迅速崛起而产生的东北亚地区的不确定性, 需要调整美国的作用和中美关系。

## 2. 中朝关系

报告中并没有充分地谈及中朝关系,报告人只是强调了朝韩关系-中朝关系-中韩关系的同时发展非常重要,以及中朝关系和中韩关系-朝韩关系并不是紧张关系这两点。对于中朝韩三国的关系应该同时发展的见解我没有异议。但是我认为中朝关系和中韩关系-朝韩关系可能随着情况的不同而变得紧张。而紧张的原因又会因为韩国和美国的对朝政策,朝韩关系的变化而不同。即,朝美关系和朝韩关系紧张化,韩国和美国把对朝政策焦点放在对朝鲜进行国际孤立和压迫的时候,中朝关系和中韩关系-朝韩关系紧张化的可能性非常高。这样就会引起中国对朝政策的改变。

中国希望朝鲜半岛的稳定,尤其是希望保持朝鲜体制的稳定。这从朝鲜二次核试验之后中国的态度中反映了出来。朝鲜二次核试验之后,中国在经过内部的讨论之后表现出的政治方向是△中朝关系由过去的血盟关系向实利主义的正常国家关系转变。△反对因为中朝关系而损害中美关系。△反对因国际社会的制裁而造成朝鲜体制的孤立和崩溃。△制裁的目的可以简化为朝鲜重归六方会谈。

中国以这些基本立场为基础,在强调对朝“制裁和对话”并行非常重要的同时,着力切断国际社会对朝制裁--朝鲜强硬应对的这一不断反复的恶性循环。并且,中国政府虽然履行联合国安理会制裁案的措施,但是不希望因此损害中朝之间的正常合作。理事会制裁决议宣布之后,中国外交部发言人秦刚表明“我们根据事情的是非曲直来决定我们的政策和立场。中朝之间正常的交往不会受到影响。”实际上,安理会制裁决议宣布以后,中朝经济合作几乎没有萎缩和中断的例子也明确证明了这一立场。

并且,为了朝鲜半岛无核化,朝美两国会谈的再次展开和朝鲜重回多方会谈的可能性刚刚有了提高,中国就通过温家宝总理访朝宣布了今年初为纪念两国建交六十周年而预定的大规模经济支援和合作项目。另一方面,报告中指出朝鲜经济对中国的依赖程度深化具有肯定性。我大致上赞同一个观点。对中国的经济依赖程度深化是最近朝鲜对外经济关系中表现出的最大特点。1990年以后,上升为朝鲜最大贸易国的中国在九十年代初期以后每年都保持着占据朝鲜贸易总额25%-30%的贸易水平。2002年开始,中国占据朝鲜贸易总额的比重急速增加,到2008年,27亿八千七百万美元的贸易额超过了朝鲜贸易总额的70%(除了韩国)。

朝鲜对中国的经济依赖程度深化在市场上也表现了出来。在朝鲜市场上,中国产消费品的占有率不断增加,在产业部门里,中国产原材料和中间产品的输入也在扩大。朝鲜对中国经济依赖程度深化的过程中,中国商品的低廉价格、低廉的交易费用、地理的优势等经济原因,以及国际社会强化对朝制裁等原因一起发挥着复杂的作用。所以,国际社会制裁的解除和经济支援的扩大,朝韩经济合作的扩大发展,朝日关系的正常化等目标实现的话,朝鲜对中国的依赖程度将会逐渐降低。但是,一旦现在的朝核问题陷入胶着状态,对朝制裁的局面长期化,也不能排除朝鲜对中国的经济依赖程度结构化的可能性。

### 3. 中国的对朝鲜半岛政策的基调和立场

中国把经济发展放在了国家目标的首要位置上，为此，中国非常重视内部和周边局势的持续稳定。尤其周边国家的稳定是保证中国经济发展的重要支柱。在这样的国家目标下，中国把下面的问题设定为核心课题。△保持对朝鲜半岛问题的影响力△维护朝鲜半岛的和平与稳定△维持朝鲜体制△朝鲜半岛无核化△遏制朝鲜难民涌入中国△遏制中国东北地区和朝鲜族内韩国民族主义的影响△扩大与韩国的经济合作

为此，中国对朝鲜半岛的政策基调可以整理为以下内容。第一，维护和平政策。采取这一政策是因为中国现在的经济增长和未来的持续发展，只有在保持朝鲜半岛和平与稳定的条件下才有可能。对于最近成为主要争论焦点的朝核问题，中国发挥了积极的作用，也是因为中国想要通过朝鲜半岛的和平与稳定创造一个使中国经济持续增长的外部环境。在实现中国的稳定和持续发展方面，朝鲜半岛无核化也是最重要的要素之一，同时，朝鲜半岛无核化也是避免与美国和日本等西方国家发生政治、外交冲突的最好途径。

第二，从历史教训中认识到的朝鲜半岛和平的切实性。朝鲜半岛是有可能扩大中国和美国之间矛盾的敏感对象，所以中国对朝鲜半岛的政策也体现了通过和平处理朝鲜半岛问题，提前隔断中美矛盾的意图。

第三，比起朝鲜半岛的急剧变化，中国更希望维持现状。因为在中国的立场上，现在朝鲜半岛的局势至少不会成为中国发展的障碍。这是因为现在朝鲜半岛的局势形成了不会干扰中国发展的最小的平衡点。因为朝鲜是阻拦中国和美国直接对峙的盾牌，而韩国是中国经济合作伙伴中最大的国家之一。中国在现在的朝鲜半岛局势中，同时考虑着安全和经济两方面的利益。

第四，对朝韩的均衡政策。通过对朝鲜的政治手段，对韩国的经济手段实现朝鲜半岛的和平均衡。即对朝鲜象征性地强调传统的理念和思想，实践中贯彻实利主义的两面战术。对韩国，积极扩大经济关系的同时，谋求政治、外交安全等全方位的发展。

# 21세기 새로운 한중관계 모색: 상생평화국가

정봉주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 1. 문제 제기 : 아시아의 힘

미국 중심의 경제질서가 금융위기 이후 중국과 인도가 주도하는 '이스트팔리아'의 신질서가 '웨스트팔리아' 질서를 대체되고 있음. 웨스트팔리아 질서란 베스트팔렌의 영어식 발음으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진 곳임.

30년 종교전쟁 끝에 맺어진 이 조약을 계기로 유럽에는 왕을 중심으로 한 신성불가침의 국가주권이 확립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럽의 국제질서가 구축됐음.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수 백 년 간 이어진 서방주도 시대가 지나고 중국과 한국,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 한 신 아시아 시대가 열리고 있음.

## 2.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

### 1) 미국의 약화와 중국의 부상

2000년 9·11테러 사건이후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1극 다자체제'로 변화되고 있음. 물론 아직도 미국의 슈퍼파워는 건재하다는 주장이 강하지만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 그리고 2008년 미국발 국제금융위기는 미국의 국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2009년 1월 등장한 미국 오바마 정부의 대외정책 목표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임. 오바마 정부는 이를 위해 부시 정부가 추진해 온 '일방주의적 힘의 외교'를 배제하고 '스마트 파워'에 의한 새로운 평화협력외교를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의 스마트 파워 외교가 취임 초기에는 어느 정도 힘을 발휘했지만 최근에는 각국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음. 이의 원인은 오바마 정부의 소극주의적 대외정책도 문제이지만 핵확산, 기후문제, 국제경제 등 국제현안에 대한 국가이기주의의 확대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 G2 시대의 도래와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군사력을 확대하고 주변문제에 대한 개입주의를 확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세계질서의 축이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이미 언론에서는 G2시대가 사실상 시작됐다고 보도하고 있음. 향후 동북아 및 세계질서는 패권국 미국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도출될 수 있을 것임.

특히 한국이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떠한 대외정책을 추진해야 하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임.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남주 교수의 발제문은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3.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의 평화 미래

미국의 많은 학자들은 1980년대 미국 경제성장의 하락으로 미국의 패권이 쇠퇴할 것이라는 소위 '미국 쇠퇴론'을 주장하기 시작했음. 그리고 미국의 쇠퇴에 이어 부상할 국가로 중국을 지목하고 소위 '중국위협론'을 거론하기 시작했음. 미국의 주요 국가기관들은 2030년을 전후하여 미국과 중국의 국력이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미국 이후 중국이 유일 패권국이 될 것이라는 성급한 분석도 나오고 있음.

그러나 중국이 패권국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즉, 중국은 55개의 소수민족 문제가 있고, 해안선의 부유층과 내륙의 극빈층 등 심각한 빈부격차, 보편적 국제가치인 인권과 평화에 대한 경시, 공산주의 일당 체제의 권위주의적 사상통제 등이 '중국의 대국화'를 가로막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음.

사실 중국은 개혁개방 30년만에 거대공룡으로 변했음. 각종 국력수치가 세계1, 2위를 휩쓸고 있음.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갈 길이 멀. 중국 지도부는 여전히 '샤오캉 사회 건설'에 매진해야 함. 국제정치에서도 경제현대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시급한 과제임.

동북아는 한국(북한)을 비롯하여 중국(대만), 일본 등 3개의 축이 작용하고 있음. 다행히 동북아 3국은 동북아공동체 구성을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으며 이미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임. 이미 3국 정상회의와 3국 외상회의가 거의 정례화되어 제도화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음.

그러나 동북아는 경제적 협력과 의존은 심화되어 가는 반면 정치군사적 신뢰가 부족함. 더군다나 서로 침략과 피침의 기억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고, 영토문제까지 겹쳐 언제든지 갈등과 대립이 야기될 소지가 있음.

과거 냉전시대에는 경제보다는 이념에 의하여 대외정책을 추진했으나 21세기 각 국가는 실리주의 외교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중국은 국제평화질서를 구축하려 하기보다는 아직도 냉전적 진영외교가 작용하고 있음. 물론 이는 미국의 동북아국가와의 동맹정책에 기인하는 요인이 크지만 결국 중국도 힘에 의한 국제질서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을 것임.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이렇다할 만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의혹을 갖게 하는 것임. 과거 중국이 지배하던 동북아 질서는 힘과 전쟁, 즉 힘에 의한 패권적 질서였음. 한국은 이러한 중국에 대해 피침을 받거나 종속을 강요받아야 했음.

중국은 향후 보다 적극적인 강대국화 전략과 실리중심의 외교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큼. 또한 중국은 향후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자국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한반도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개연성이 클 것임. 이로 인해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다 어려운 외교환경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임.

중국이 동북아의 진정한 대국이 되려면 상생평화국가를 지향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역내 문제를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동북아 평화다자기구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만들어 가야 할 것임. 동북아의 평화 미래는 중국의 부국강병 정책에 의한 패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평화협력을 숭상하여 평화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있을 것임.

#### 4. 바람직한 한중관계를 위한 과제

주지하다시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과제는 산적해 있음. 정치군사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 다자안보기구를 구성해야 함. 동북아 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군사주의적 경향이 강하여 군비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더군다나 모든 나라들이 국방백서를 통해 주적내지는 위협국가로 상정하고 있고, 이를 겨냥한 군사훈련도 매년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

다행히 경제적 협력과 의존도는 매년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불균등한 무역거래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음. 동북아 국가간의 역내 FTA를 조속히 추진해야 하나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필요성을 공감할 뿐 큰 진척이 없음. 특히 역사, 가치, 정체성 등에서도 상당한 이질성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동북아가 평화공동체가 되려면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야 함. 이를 위해서는 중국 등 동북아 국가들이 상생평화와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상생평화국가를 국가의 기본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임.

동북아 국가들이 과거처럼 강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국가이기주의를 내세우면 갈등과 대립이 심화될 것임. 이는 결국 19세기와 같이 동북아 국가들의 동반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임. 그러므로 과거의 불행을 막고 공동번영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동북아 국가의 평화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따라서 중국은 한국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한국 또한 중국과의 호혜적 평등관계를 정립하고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제도화해 나가야 할 것임.

특히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체제안정과 개혁개방 확대를 통한 한반도 통일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남북한 및 중국 간 선순환적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정립하여 상호 갈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동북아 공동의 평화제도를 시급히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 谋求 21 世纪新的中韩关系：和平共存国家

鄭鳳柱, 民主政策研究院 副院长

## 1. 提出问题：亚洲的力量

金融危机以后，由中国和印度主导的‘东伐利亚（伊斯特伐利亚）’秩序正在逐渐取代以美国为中心的‘西伐利亚（威斯特伐利亚）’经济秩序。西伐利亚是 Westfallen 的英语发音，是 1648 年西伐利亚条约签订的地方。经过 30 年的宗教战争而签订的这一条约，确立了欧洲以王权为中心的神圣不可侵犯的国家主权，并以此为基础构筑了欧洲的国际秩序。西伐利亚条约以后，维系了几百年的西方主导时代已经过去，以中国，韩国，日本和印度为中心的一个新的亚洲时代正在展开。

## 2. 新的世界秩序的形成

### 1) 美国的弱化和中国的崛起

2000 年 9.11 恐怖袭击事件之后，以美国为中心的世界秩序正转变为“一极多强制”。虽然现在也有人主张美国的强大力量仍然健在，但是阿富汗战争，伊拉克战争，以及 2008 年爆发于美国的国际金融危机正在弱化美国的国力。

2009 年 1 月登台的奥巴马政府的外交政策的目标是恢复美国的全球领导地位，为了达到此目标，奥巴马政府摒弃了布什政府一直推进的“单边主义力量外交”，强调所谓“软硬兼施（smart power）”的新的和平协作外交政策。

虽然美国的 smart power 外交政策在就任初期发挥了一定的作用，但是最近正接受着来自各个国家的挑战。究其原因，奥巴马政府的消极外交政策是问题之一，但是对于核扩散、气候变化和国际经济等国际悬案的国家利己主义的扩大也是一个非常重要的原因。

## 2) G2 时代的到来和新的国际秩序的形成

在这样的国际环境中，中国正通过经济的持续增长，不断加强军事力量，扩大对周边问题的介入主义。正因如此，我们可以看到世界秩序的格局正在以中美两大强国为中心重组。

舆论界认为 G2 时代已经开始，今后，东北亚和世界秩序会根据霸权国家美国和挑战它的中国之间的关系而演绎出各种各样的剧本。

特别是对于韩国，在这两个国家之间应该采取什么样的外交政策更是一个非常重要的问题。在这一层面上，我们认为李南周教授发表的文章中给出了一个非常有意义启示。

## 3. 中国的崛起和东北亚的和平未来

由于 20 世纪 80 年代美国经济增长的滑落，许多美国学者开始主张美国的霸权会衰退，也就是所谓“美国衰退论”；并且指出随着美国的衰退，中国将崛起，开始了所谓的“中国威胁论”。美国的主要国家机构推断，2030 年左右，中国和美国的国力将会旗鼓相当，甚至还有中国会成为美国之后的唯一霸权国家的过激分析。

但是对于中国会成为霸权国家这一点也有人持有怀疑态度。即有见解认为，中国有 55 个少数民族的问题，沿海富有阶层和内陆贫穷阶层严重的贫富差距，对普遍国际价值的人权和和平的轻视，共产主义一党体制的专制主义思想统治等会成为“中国大国化”的障碍。

事实上，中国改革开放三十年来，取得了巨大的发展，各项数值都处于世界第一、第二的位置，但是中国仍然有很长的路要走，中国的领导班子仍然要努力向“小康社会”迈进；在国际政治中，为经济现代化创造环境，也是非常急迫的问题。

东北亚是韩国（朝鲜）、中国（台湾）和日本三个国家正在发挥作用。值得庆幸的是，东北亚三国为了构建东北亚共同体正在提出各种各样的提案，已经形成了一定程度的纽带关系。三国首脑会议和三国外相会议几乎已经固定化，并且正朝着制度化的水平前进。

但是东北亚的经济协作和依存关系深化的反面，政治军事上的信赖还很不够。而且，相互之间侵略与被侵略的记忆仍然强烈地支配着三个国家，再加上领土问题，随时都有惹起矛盾和对立的可能。

在冷战时期，比起经济，国家更多的以理念来推进外交政策，但是进入 21 世纪，实利主义的外交正发挥着巨大的作用。但是比起构建国际和平秩序，中国还在采用冷战时期的阵营外交方式。当然美国与东北亚国家的同盟政策是引起这一外交方式的重要原因，但是我们能看出中国也想要构建依赖强权的国际秩序。

中国在解决朝核问题上的消极态度，在构筑朝鲜半岛和东北亚和平体制上没有充分发挥应有的作用等都会让人产生这样的疑惑。过去，中国支配的东北亚秩序是力量和战争，即依靠力量的霸权秩序，而韩国受到了这样的中国的侵略，并被强求服从。

今后，中国推进比较积极地强国化战略和实利主义的外交政策的可能性非常大。并且，今后中国在解决朝核问题以及构筑朝鲜半岛和平体制的过程中为了贯彻自己的利益，更加积极的参与朝鲜半岛问题的可能性也很大。因此，中国和韩国也可能会面临更加困难的外交环境。

如果中国想要成为东北亚真正的大国，应该志向建立和平共存国家。为此，应该积极提案和创建能够通过对话和合作解决地区内问题的东北亚多国和平机构。东北亚的和平未来不会取决于中国的富国强兵政策的霸权，而是取决于中国引领国际和平合作，确保和平的领导作用。

#### 4. 为了所希望的中韩关系的课题

正如大家看到的，关于东北亚和平的课题堆积如山。在政治军事方面，解决朝核问题并以此为基础建立东北亚多国安全机构。东北亚地区比其他任何一个地区的军事主义倾向都要强，军费竞争正在深化。尤其是所有的国家都通过国防白皮书把其他方定为了主要敌国或者具有威胁性的国家，并且针对此的军事训练每年也都在大规模的进行着。

幸运的是，各国经济上的合作和依存度每年都在扩大。但是，不均等的贸易往来仍然绊住了各国的



手脚。虽然都说应该尽早促进东北亚各国之间的域内 FAT，然而也只有在打官腔时才会感觉到这一必要性，并没有大的进展。特别是各国在历史、价值、党性等方面也表现出了相当大的异议。

因此，如果想要构建东北亚和平共同体，就必须解决堆积如山的悬案。为此，中国等东北亚国家应该将建立和平共存和共同繁荣的和平共存国家设定为基本目标。

如果东北亚国家还像过去一样，以强烈的民族主义为基础推进国家利己主义的话，矛盾和对立就会更加深化。结果，会像 19 世纪一样，东北亚国家自己导致共同的没落。

所以，中国应该通过和韩国等国家的合作，不断构筑朝鲜半岛和东北亚的持续可能的和平体制。韩国也应该确立和中国间的互惠平等关系，不断促进东北亚地区和平的制度化。

特别是韩国和中国有必要通过扩大朝鲜的体制安定和改革开放来不断造就朝鲜半岛的统一环境。并且，为了确立南北韩和中国之间面向未来的良性循环关系，使相互之间不再出现矛盾，我们应该尽快推进东北亚共同的和平制度化。

